

김 기영 시선 모음 1

봄의 몸짓들-사막과
오아시스

머리말

춘래 불사춘이라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라는 선현들의 말씀이 남의 일이 아닌 요즘 세상이다. 혼탁한 정치와 메말라가는 인간들로 우리 사회는 양들의 침묵 같이 감성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사회 생활은 사하라 사막 같이 황량하고 무미 건조하게 되어 가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폐북이라는 작은 표현의 장을 얻어 남기고 싶은 느낌들을 시로 굽적거리기 수년이 지났다. 폐북의 빈 페이지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시나마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본 시선 1집은 2020년 경 폐북 시들을 모아 본 것이다. 시라고 하지만 무엇이 시인지 아직도 감을 못잡고 있는 가운데 그저 진솔한 느낌을 글로 전해 보려는 작은 마음으로 아직도 폐북에 시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제 2집 제 3집처럼 씨리즈로 출간해 볼 요량이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직접적인 서정적 표현이 아닌 비유와 풍자적 표현이 많아 시를 통하여 감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독자의 기대에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만 풍자와 해학으로 이해하면서 감상하면 망외의 즐거움이 아닐까 한다. 본 시선 모음은 독자의 지루함을 덜기 위하여 중간 중간에 사진을 삽입하였다. 시의 감상과 함께 자연과 가족이 가져다 주는 오붓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3년 여름이 짙어져 가고 있다. 예년보다 더한 폭염이 온다는 예보 속에 독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제목 차례>

1. • 뭐 그런 것들로 •	11
2. • 존엄사와 죽을 권리 •	14
3. • 아귀예찬 •	16
4. • 생상스와 피타고라스 •	18
5. • 돈킹 •	21
6. • 하늘과 세상 •	23
7. • 오더 오브 더 코이프(Order of the Coif) •	25
8. • 국가론 •	27
9. • 거문고와 가야금 •	30
10. • 희극과 비극 •	32
11. • 신중현과 보니 김 •	36
12. • 유명인과 대마왕 •	38
13. • 상갓집과 가무음곡 •	41
14. • 지혜와 은혜 •	43
15. • 작은 소야곡 •	45
16. • 이슬람과 통닭 •	47
17. • 약속과 쓰레기 •	50
18. • 킬링 필드 •	53
19. • 도깨비와 허깨비 •	55
20. • 동학농민운동 •	57
21. • 논개와 스카렛 •	60
22. • 내 맘대로 암호화폐 •	62
23. • 지폐와 파이낸셜 •	64
24. • 장단의 인생별곡 •	66
25. • 3자 낚두리 •	68

26. • 사건과 논쟁 •	70
27. • 베갯머리 귀밑머리 •	72
28. • 홍길동 •	74
29. • 라면과 설렁탕 •	76
30. • 그래피티와 벽화 •	78
31. • 결투 •	81
32. • 스프링크스와 피라미드 •	83
33. • 타이완의 노래 •	85
34. • 쇼크와 충돌 •	87
35. • 역관과 소통 •	89
36. • 바보와 신화 •	91
37. • 역사별곡 •	93
38. • 남겨진 명언 •	95
39. • 아멘과 오 마이 갓 •	97
40. • 역사와 바이오 •	99
41. • 반란의 변주곡 •	103
42. • 영터리 지리여행 •	105
43. • 장군과 재상 •	107
44. • 한지방의 노래 •	109
45. • 아비농과 김대두 •	111
46. • 조각과 호박 •	113
47. • 안방극장 •	115
48. • 생명과 어릿광대 •	117
49. • 직장인과 모리배 •	119
50. • 학교와 별 •	121
51. • 이야기와 명 때리기 •	124
52. • 당뇨와 배부른 거지 •	126

53. • 시간과 사람 •	128
54. • 관보의 노래 •	130
55. • 이치로와 생활인 •	132
56. • 노교수의 하루 •	134
57. • 게오르규와 아리랑 •	136
58. • 로마와 터키 •	138
59. • 전봇대와 산 •	140
60. • 노동요와 대한민국 •	142
61. • 가을 하늘 •	145
62. • 알츠하이머와 다운증후군 •	147
63. • 독일과 독도 •	149
64. • 지하철과 도서관 •	151
65. • 소프트웨어 •	153
66. • 페디그리 •	155
67. • 인사동 발라드 •	157
68. • 개미와 배짱이 •	160
69. • 신화와 낚시 •	162
70. • 마굿간과 연금공단 •	165
71. • 무관의 제왕 •	168
72. • 천기누설 •	170
73. • 술 익는 마을 •	172
74. • 인섭이와 용섭이 •	175
75. • 콘센트와 반지 •	177
76. • 아가씨와 할머니 •	179
77. • 이무기와 용 •	180
78. • 덧없는 세월 •	182
79. • 만산홍엽 •	184

80. • 빈 배와 스님 •	186
81. • 모래성 •	189
82. • 50대의 조의제문 •	192
83. • 도둑과 주 예수 •	194
84. • 한가위와 시간들 •	195
85. • 후천성 면역 결핍증 •	197
86. • 덕이 •	199
87. • 삼손과 데릴라 •	201
88. • 순장 •	203
89. • 몽골리아 •	205
90. • 비타민 같은 하느님 •	206
91. • 먹이 사슬 •	209
92. • 튀니지아 •	211
93. • 코로나의 휴일 •	213
94. • 마스크와 사람 •	215
95. • 나의 명예를 메고 •	217
96. • 시인과 농부 •	219
97. • 노년의 김씨 •	220
98. • 까발리에 •	221
99. • 시간과 달팽이 •	223
100. • 쓰디 쓴 사랑 •	225
101. • 영혼과 육체 •	227
102. • 갈증 •	229
103. • 생명의 추억 •	231
104. • 점심 한끼 인생 살이 •	232
105. • 고양이와 호랑이 •	233
106. • 하느님은 불한당 •	234

107. • 주말은 시간 여행 •	235
108. • 사이보그의 아침 •	237
109. • 농사꾼과 선생님 •	239
110. • 커피 한잔의 하루 •	240
111. • 찰나같은 세상 •	241
112. • 기울어진 운동장 •	242
113. • 출애굽기 •	243

1. • 뭐 그런 것들로 •

일상 여기 저기
인상적인 문구들
나라가 키운다나
나라키움
우리의 앞은 결국 대한민국
다시 또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종교보다도 영원한 것 같은 국가
실제 국가와 정치는
종교보다도 역사가 깊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고금의 진리
카토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공인되고
장 칼뱅은 신의 주권 예정설
기독교의 보편화 세속화
한국의 전광훈 같고
마틴 루터는 모두에게 성서를
라틴어를 독일어로
신교의 독립과 번영을 얻어내네
영국은 국교회 오랜 성공회의 전통
앵글리칸 도메인으로
국가와 종교는 함께 하네
오랜 뒤 마틴 루터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로 부활하여
정의의 왕국을 꿈꾸고
목사님은 인권운동가가 되네
종교와 정치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우열이 갈라지고
바티칸 시국만이 황성 옛터처럼
이제 국가의 복음은 헌법과 법치주의로
미 연방 수정헌법 첫 머리에는
국교부인과 표현의 자유

현대의 종교국가는
 국제사회의 골치거리
 이란 북한 이슬람 테러리즘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겠다는 종교
 프로방스의 성인 생 프란시스코 아씨씨
 그의 검약과 박애정신은
 온 세상에 뻗쳐 도시 이름이 되고
 우리 시대 교황으로 부활하여
 가난하고 불우한
 이를 위해 기도하네
 우울한 우리 세상은 좋지 못하고
 거리에는 정치를 외치는 종교인들
 직업 정치가들을 대신해야 하고
 감옥을 왔다 갔다
 법이 서지 못하면
 더 많은 희생양들이
 우드로 윌슨은
 생각있는 변호사
 생각있는 국제관계 학자
 국제사회에
 월소니안 전통
 진보정치의 패러다임을 뿌리내리고
 장 칼뱅은 충성사상과 인간개조
 우리에게 윤리와 신앙을
 보수정치의 패러다임을 생각하게 하네
 오늘 이땅의 우리들
 멋진 국가 멋진 정치는 멀어지고
 법치주의는 위협받네
 나라키움
 다시 또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국가와 정치는 피할 수 없는
 시민들의 운명
 사람들의 선택은 광화문 거리
 성탄절 우리는

종교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은 먼 옛날 얘기
성탄절 노 교수는
폐북앞 담배 한개비
종교 국가 헌법 뭐 그런 것들로

2. • 존엄사와 죽을 권리 •

도대체 이게 뭐냐.
누구는 문학 소설을 찾고,
누구는 음악 감상 미술 감상,
사적인 풍요를 즐기고.
조용한 시간은 사색으로 빠져 드네.
우리의 거리, 수 많은 이웃들.
잠시 호수 앞에서 참선 같은 시간을.
호수는 호수인지,
고요와 참선은 좋은 상태의 동물로.
의과와 수의과는 별 차이가 없는가?
좋은 짐승이 좋은 사람 같고.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그 많은 의학 분과,
짐승과 사람은 다른가 보네.
사람은 사회가 있고 참여가 있네.
의무가 있고 담배를 피네.
정신과는 아마 사람만이.
그래서 융과 프로이드는
우리의 위대한 선생.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끝이 없네.
사람의 공적 생활은 인권.
우리는 정부와 관계를 맺고,
헌법에는 열거되지 아니한 인권보장 조항.
흠즈와 브랜다이스의 사생활의 권리는
헌법을 풍성하게 하고,
인권은 사람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무엇인지?
보건에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
자영업자의 생존권,
퀘퀘묵은 헌법조항.
담배를 피워물게 하네.
질 낮은 삶일 망정 생존권을 우선하나?

기본권은 충돌하고
보건 법규에 대한 위헌심판이 가능할까?
흡연권은 행복추구권이라고
우겨대던 골초 시절.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라던
젊은 시절.
이제는 고통받는 병상의
불치병 환자 앞에서
죽을 권리를 알게 되네.
인터넷 시대 인권 목록에는
잊혀질 권리가 추가되고,
사람과 인권은 시간과 함께 새롭네.
다시 또 우리의 미시족은 사람과 짐승으로.
이때쯤이면 김충동 이름의 폐친 사진이.
종족 유지 본능 아닌
성을 다스리고 이용할 줄 아는
유일한 유기체 사람이라는 짐승.
권해성은 성을 권한다는 이름 같고,
음악 가사는 뷰우티풀 크라이.
짐승 아닌 사람들은
노동과 책임이 있고,
자영업자는 삭발하네.
하모니카와 총알자국
같은 코로나 시대.
언제나 하느님의 분노가 가라 앉을지?
유튜브에는 백신과
장티부스라는 다큐멘터리.
노 교수의 시간은 이것이 정치다로 .
우리의 정치는 의과인지 수의과인지?
우리는 어느 쪽에 죽을 권리를?
우리는 누구에게 존엄사를?

3. • 아귀예찬 •

 뼈다귀 같이 되버린 노년은
 생명을 위하여 잠을 청하네
잠 속에서 만난 아귀 같은 하느님은
 인간의 못된 마음
 나는 꿀물 너는 독약이라네
아니 우리들 모두 꿀물 아니었나요
 이건 불공평해요
 외치고 항의하다 문득 잠을 깨네
 아하 하느님의 뜻은 더 살거라
 세상의 이무기를 알아라
 영생 같던 꿀잠은
 그만 새벽의 영혼이 되어
 달력을 바라보네
 또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갑자기 잠을 깬 우리는 지구로 떨어지네
 만유인력의 진리는 인생을 알아라
 중력과 무게는 우리의 피와 살
 우리의 밥숟가락 우리의 배설물
인생은 생로병사 힘이 되고 병이 되고
 급기야 중환자실 장례식장에는
 하느님을 향하는 사람들
이 하느님이 하느님인가 아귀인가
 밤과 낮은 되풀이 되고
 노년의 우리들은 깨닫네
 작고 달성할 수 있는 꿈을 갖자
 소확행을 실천하자
 노년의 깨달음 소확행
소확행은 소중한 확실한 행복
 소확행은 만유인력과
아귀 다툼 속 핀 우리의 진실
 거룩하고 고귀한 우리의 인생
 백그라운드(background)

백드롭(backdrop)외치다
아귀의 심판을 받아
백파이어(backfire) 당했네
나는 없어지고 배경도 사라지네
걸어온 길은 잣더미가 되고
이력서(curriculum vitae)만
덩그러니 남아버린 후진 인생
인디애나 후저스도 아니고
후진 인생은 이제 그만
나도 그만 하느님인지 아귀인지가 되어
깨달은 인생 진리를 실천하자
소확행은 우리를 인근 야외 카페로
하느님처럼 꿀물이나 한잔 마시자
잠을 깨 켜 본 TV 소셜미디어에는
유명인사들의 신년사
거창한 신년사는
우리의 중력 우리의 꿈 우리의 병
새해도 벌써 이틀째가 되어 가네

4. • 생상스와 피타고라스 •

세상이 무엇인가요
지도를 찾고 주위를 돌아보네
어느 현명한 학자가 있었네
세상은 수라고
만물의 근원은 수니라
보이지도 않는 것이 세상인가요
내가 그리잖니
로마 숫자 아라비아 숫자
다른 학자는 대답하네
세상은 소통이라고
문자는 우리의 머리털
최고 권위의 학회지들
이코노믹스 레터즈
피직스 레터즈
애들 키우는 우리들도 역시
수능은 언어능력 수리능력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린 우리는
미 대선까지 뺏치고
유튜브는 부정선거
정부는 당선축하 메시지
북한은 체제 북한은 국가
미국은 연방체제 연방국가
말도 많은 체제와 국가
유신체제로 독재를
북한을 국가로 전단금지법
뼈 아픈 미 의원의 지적
북이 한국처럼 되어야
그 반대가 아니라며
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급기야 사설은 공수처를
2021년 체제라 하네
국가를 대표한 선거인단은

오래전 자신들의 선조들이
뉴욕에 모여 그랬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네
새로운 연방정부가 탄생하네
역대 최다 득표
컴퓨터 같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
숫자의 위력은 부정선거론을 일축하고
우리는 피타고라스가 되어
피는 다 탔다 이제 가야지
어렵던 상황은 다 타버린 피
미적분의 수리는 명쾌해지고
당선인은 확정되네
보수 정파는 하나회
신 군부의 아침처럼 샘페인을 터트렸네
그 이름은 트럼프, 으뜸패
미국을 우선하고
진보 정파는 시중
다수를 얻어 웃고 있네
그 이름은 바이든, 두개의 하늘인가
든 사람처럼 신중하고
하나 둘 컴퓨터처럼 쌍구를 굴리면서
위대한 미국을 향하네
다 탄 피 이제 가야 되는 우리는 생상스
새롭게 태어난 하얀 백조들
이름처럼 살고 지네
산부인과 신생아실
상가집 분향소가 되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네
아 참 시험문제 업로드 해야지
오지 선다 아니고
사지선다니 많이 맞춰라
지문을 잘 읽고 답항 번호에
정확하게 기표해라
기말시험에도 숫자와 언어가

선생님 이게 시인가요 편지인가요
시 낭송회를 해야 되나
편지 낭송회를 해야되나
옆 학생의 우스개 소리에
나도 그만 허허허

5. • 돈킹 •

돈킹은 돈의 왕인가
부정선거를 심판하는 연방대법원인가
핑핑 잘 도는 머리
하늘을 향해 선 머리가 되고
선수들에게 복싱의 시작을 권하네
심판청구를 각하하네
근육질의 헤비급 권투 선수들은
쉐도우 모션 스트레이트 훅
땀은 기량을 뽐내고
우리는 돈킹
옆에서 돈을 세고 있네
세상은 영화 바보들의 행진 같고
우리는 영화속 병태와 영자
시간의 흐름으로 병은 태산 같고
여자는 와이엠씨 노래 속 영맨인지
영화 속 영자인지
세상사 허무함에 서로 웃고 있네
시간의 흐름은 돈킹의 부모를 거두고
돈킹은 어느 순간 죽음을 알게 되네
윤정수 같던 돈킹은
어느덧 김 샷갓 같이 되어 버리고
희생양 주 예수 같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네
시간의 흐름은 어김없네
영화는 바보들의 행진에서
내가 죽던날로 바뀌고
최후의 만찬이려나
버킷 리스트려나
오늘 하루는 영겁의 시간이 되네
바보들의 행진 같은 세상
노년의 선생들은 바보들을 막아서고
정치가들은 죽음을 초월한 돈킹들

천진난만한 젊은 세대는 새로운 돈킹들
윤회하는 세상 좀비같이 줄을 서
죽음을 향하네
앗 애들 가르쳐
하느님의 소리는 여전하고
부모 같은 선생은 모자라네
역사 시험에는 바보 같다는
문제로 세상이 웃고
기말시험 출제는 어려운 숨바꼭질
너무 어렵지 않을까
바보도 알 수 있는 문제인가
사람들의 속은 한 치도 알 수 없네
시험준비에 날을 쉰 돈킹들은
가짜 헤비급 권투선수
잠자는 돈킹들은 플라이급
노 교수의 일주일은
바보들의 행진을 막아서고
기말시험 출제하고
하얀 머리가 되었네

6. • 하늘과 세상 •

땅 위에는 힘이
군인도 아닌 것이
경찰도 아닌 것이
왜 저렇게 힘을 쓰는지
독재와 전단에 투쟁하는 젊은 피
하늘은 우리의 고독
도서관의 학생들
하얀 얼굴을 하고
책을 들여다 보고 있네
도서관의 학생들은
측천무후처럼 되고
어찌 남편 이름은 이치인지
하늘을 재 보고
이치를 따지네
양성의 사방지가 되어 길게 길게
도서관 한켠 자리는 훗날의 직장 데스크
힘쓰는 학생들은
동치제가 되고 함풍제가 되네
이들의 사방지는 서태후와 동태후
동쪽 사람이 되어 서쪽을 취하고
풍성한 황제가 되어 동쪽을 취하네
이웃과 학자들은 말하네
공직 추구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뭉쳐 있다고
역시 세상은 힘이야
힘써본 학생들은 잘 밀어 부치고
토론과 협상은 실종되었네
도서관의 학생들은
순천이 되어 하늘에 순종하고
세상이 그러려니
독심의 영웅이런가
등용되기까지 길었던 참선같은

시간은 힘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었네
힘쓰는 세력과의 질긴 승부는 끝이 없고
사람들은 넥타이 맨 하나회인가
의심하지만 수 많은 추종자들은
양심을 고백하네
독재가 무엇이고
정당한 저항은 무엇인지
오늘도 하늘은 돌고 있고
땅 위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네

7. • 오더 오프 더 코이프(Order of the Coif) •

사건과 사고는 우리의 일상사
바다와 같이 큰 세상
시간과 공간속 수 많은 사람들
노 교수는 바바리 코트 깃을
치켜 세우고 겨울 바다를 걷고 있네
그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과 추억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노래가사처럼
애처로운 겨울 바다
모교는 따뜻한 항구 같은 안식
식당은 옛 군대식 짬밥의 추억
연약한 우리의 노년은 항구같은
옛 학교를 향하고 있네
학교는 바른 말 진리의 전당
우리는 무시하지 못하네
지난 대통령에 사과한다
누구는 불명예스런 동기다
세상의 거인들은 급기야
민초의 소리 학교마저 무시하고
세상은 비리와 다툼으로 가득차 있네
어찌 법이 다른지
도통 양심과 정의는 우롱받네
정치와 법은 연일 힘겨루기
법관은 여론으로부터
독립마저 위협받네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의 영예
오더 오프 더 코이프
코이프는 사례가 이러면
네 코는 무엇인가로 들리고
오더는 그것이 세상에
질서를 줄 수 있는가로 들리네
재미있게 공부한 학창시절은
어디 가고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는지

정치에 매수된 법이 되었나
현실에 타협않는 외골수 검사들인가
연일 세상은 시끄럽고
모교 식당은 우리 젊은이들로 북적
길은 무엇이고 선다는 것은 무엇인지
길우가 되었다 서웅이 되었다
국가는 무엇이고 시민은 무엇인지
국진이가 되었다 민종이가 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지 무슨 갈등인지
손거울을 들면서 코를 만지고 있네
시끄러운 세상 소리로부터 독립하자
질서는 나의 천직 나의 소명
사례들을 모아보고
사례들을 비교하네
우리는 코이프
율사들은 오더 오프 더 코이프
책상 앞 학창시절 상패는
오더 오프 더 코이프(Order of the Coif)
미국 가운데 메테르니히식 형평과 정의
책상 앞 스테레오 노래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심수봉과 같이 우리의 애처로운 속내

8. • 국가론 •

우리는 무정부주의자
국가가 무엇인지 회의하네
베스트팔렌 조약은
근대 절대국가를 탄생시키고
군주주권설 국민주권설을 거쳐
국가주권설까지
국가는 혁명의 대상이 되었다
공법인이 되었다
변화무쌍하고 별명도 많네
국가는 도시국가
고대 폴리티는 국가의 기원
폴리티는 폴리스로
도시에서 경찰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네
국가는 전쟁국가
전수론은 언젠가 국제법 원칙
침략과 약탈은 국가의 뒷 모습
당 태종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홍 따이지에 이르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성전
이순신 넬슨을 숭배하네
국가는 통상국가
무역과 경제는 국가의 본질
식민지와 무역거래는
국가번영의 지름길
제국주의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국가는 최소국가
밤에 도둑잡는
일만 하면 충분하고
시장의 모리배들은
부정의하게 배불리네
국가는 적극국가

세금 많이 걷는 큰 정부
일 많이하고 법 많이 만드네
돈 없고 힘 없는 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국가는 정치국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나뉘어
이념과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토리당은 가톨릭
뭐 먹은게 있어야 토하지
귀족과 지주들 배부른 사람들
도할게 있는 사람들
성공회를 누르고
휘그당은 명예혁명
휘파람 부는 개혁 세력
국가는 헌법국가
신 대륙의 변호사들은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되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아브라함 링컨 등등
많은 나라들은 미합중국을
민주주의 모국이라 추앙하네
큰 부인이라 대처인가
으뜸패라 트럼프인가
영웅같고 정겹던 이름의
보수 지도자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이제는 BTS시대로
바이든 토니 설리반의 BTS
세 명의 변호사가 국제사회의
리더쉽이 되었네
그래미는 그래 미국인지
3관왕 후보가 된 BTS
우리는 정치국가인지 법치국가인지

장관은 정치로 총장은 법치로
여전히 쌈밥집 두 남녀는
갈등과 반목으로
우리는 무정부주의자
국가가 무엇인지 회의하네

9. • 거문고와 가야금 •

우리네 아름다운 소리들
거문고와 가야금은
한국인의 정서 생명의 소리
거문고는 서양의 하프
서양의 콘트라베이스
가야금은 서양의 첼로
서양의 바이올린

우리의 소리는 박연으로 이어지고
박연차는 우리의 신바람
노무현은 우리 노무를 대표하네
우리는 노동과 얽혀진
역사의 슬픔을 느끼고
국악은 봉건적 유습인지
개혁세력마저 홀대하네

음악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노동
공무원 연수원 뒤풀이는
거문고 가야금 연주로
사장님 스트레스 해소는
예술의 전당 정명훈 오케스트라로

거문고는 거대한 서재 수많은 책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혜
왕산악은 왕 같이 산 같이 악을 쓰네
후세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하기 위하여
왕산악의 분향소에는 제자들의
추모 논문이 가득

가야금은 우리의 경제 우리의 속세
가만히 있으면 무슨 돈이 되나
가야금이 되고 돈이 될 것을

우륵은 우리의 친구 친구의 허리
일터로 가야지 일해야지
저녁의 우륵은 행복한 일기를

왕산악과 우륵은 이웃 친구
인생의 반려자
우륵은 왕산악의 대본을 거울 삼고
왕산악은 우륵이 만든 세상을 음미하네
서재 속 노 교수는
거문고와 콘트라베이스
악보를 비교하나
논문의 뒷 페이지 참고문헌에는
길다란 서양서 동양서 목록

2020년 11월

10. • 희극과 비극 •

셰익스피어는 위대한 문호
영국은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네
우리네 인생은 한판의 희극
우리네 인생은 한판의 비극
마치 셰익스피어 4대 비극처럼
마치 셰익스피어 5대 희극처럼
우리의 말년은 조울증 같은
삶을 받아들이고
오늘은 기쁜 하루
어제는 슬픈 하루
장수만세 같은 분향소의 정서는
일장춘몽의 무게감으로 경건하네
4대 비극은 우리 인간의 성격들
개성에 따라 다양한 비극을 엮고
심리학 선생들의
성격 분석 대상이 되네
햄릿은 이름처럼 작은 왕
단종애사 속의 단종 같고
조의제문의 의제 같네
클라우디우스는 부정한 삼촌
햄릿이 클라 불안하고
우리의 친구는 박사들
햄릿을 핍박하네
오페리아는 햄릿 왕에 필이 꽃히지만
작은 왕은 의심하네
맥베스는 거구의 맥주 돼지
뱅크와 짝이 되어 용맹을 떨치네
아 그만 되었다 내가 칸이야
던칸왕을 살해하고
맥베스의 약점은 맥더프
욕실의 맥베스는 어디 더 퍼 봐라
맥더프에 살해되고

맬로 컴퓨터 맬콤의 세상이
리어 왕은 이름대로 후진 운명
영조의 뒤주 같고
딸 부자의 복은 잠시 잠깐
두 딸에 배신 당하여
눈을 잃고 광인이 되네
코델리아는 코를 델래요
바른 코 바른 딸
리어 왕은 의지하고
그녀의 죽음은 리어왕의 죽음
세상은 오형처럼 둥글고 크네
세상속 작은 방에서
법과 질서를 생각하네
오셀로는 용맹한 흑인 장군
이아고는 교활한 아이
세상은 계속 돌아야 하고
나는 죽은 몸 많은 사람이나 하세요
착한 이름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살해하네
수 많은 자살과 비극으로
이어져온 우리네 사회
급기야 씨제이의 알 수 없는
살인과 자살의 비극까지
햄릿처럼 너무 작아서
리어 왕처럼 너무 후져서
맥베스처럼 너무 돼지라
오셀로처럼 법과 질서를
좋아하는 정갈한 성격이라
우리는 어떤 타입의 비극일까
사형제도 폐지
생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강의실에서 떠들던 말은
먼 나라 얘기 같고

생명과 인생은 무상하네
웃으세요 웃어
인생은 한판의 연극이라는
이웃 채근에
다시 또 일상속으로
우리는 TV 드라마
영웅시대에 끌리고
드라마와 연극인들은
우리네 선생
원숭이 같은 우리들은
배우고 흉내내고
거울을 보며 연극인들처럼
서로 마스크를 비교해 보네

2020년 11월



11. • 신중현과 보니 김 •

또 하루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요
많은 대답이 쏟아지네
스님은 수양이 부족하다 하고
언론인들은 칼럼을 통하여 대답하네
그 수많은 모순과 문제들
신문과 언론의 부아 부아
막상 그것은 정치와 관료간 변증법
바름과 전문가들 일간의 갈등
윤리와 과학간의 부조화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르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비리는 끊임 날 없다고 한탄하네
다음 선거는 언제
정치적 공무원은
새로운 윤리를 들고 나오고
전문관료들은 뷰로크러틱 메이즈
진리는 변함없다고 여전하네
양자간 갈등은 또 무슨 모순과 비리를
이런 핵무기는 정권교체와 상관없고
환경 인권 문제는 통상관계 단골메뉴
이제는 그저 그러려니
전문관료들의 힘은 여전하고
얼굴마담 정치가는 그저 끄덕거리다
다음 선거로 바통 타치
해묵은 공수처 설치론
이번에는 법이 되었네
권력 분립에 반한다
사회주의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수 많은 비판에도
우리는 가리라
우리네 정치가들은 얼굴마담이 아니고
우리의 헌정은 어찌 될런지

혼란한 세상과 유한한 삶
상제님 전 얼마나 살겠나요
넉넉히 만년은 산다
상제님은 얼마나 사세요
나는 천지와 자연과 함께
영원히 사느니라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찌를 가져라 남찌 여찌 총기와 음핵
그래서 만년이 되느니라
너의 세상은 보건 아이 엠 나우
너의 세상은 비지니스 인생고해
쌓인다 쌓여 스트레스와 훈련 버릇
너는 신중현이 되고 보니 엠이 되리라
주님의 재림인가
어찌 폐북의 미시족들은
보니 김의 소식을 전하는지
나는 상제 나는 상생 종교
천지와 자연과 함께 영원하리라
신중현의 노래 제목은 어찌
아름다운 강산인지

2020년 11월

12. • 유명인과 대마왕 •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언젠가 노래 가사는 우리의 실존
우리는 대마왕
방방곡곡 인생 이야기들
유명인사는 희생양
사람들의 입은 칭찬인지 조롱인지
보건과 경제는 대마왕의 필수품
세상은 보건과 경제로 시끄럽네
대마왕은 의학의 아들
우리는 안철수처럼 안전하고 철이 들고
우리는 신현정처럼 방방 뜨고
우리는 이왕준처럼 이치의 왕이 되네
메디컬 이미징은 사진을 이용하고
의사들은 환자의 안색을 살피네
세상은 요지경
피둥 피둥한 대마왕들
피곤과 슬픈 표정의 유명인사들
세상 놀이 속에
공주병이런가 관종이런가
대마왕은 뭣도 모르고 유명해지고 싶네
대마왕은 인생의 행복
대마왕 자리는 공짜가 아니네
메디치 가문은 마치 메디컬 선생 같고
면역이 쉬운가
대마왕은 가문의 흑독함 속에서
피어난 작은 밀알
피렌체는 피로 사는 우리의 신체
마치 메디컬의 시작 같네
메디컬은 함부로 살 수 없네
수면시간과 식사를 관리하고
시어머니처럼 까다롭네
키아리시모는 커 가는

아이를 위한 시어머니
대코시모는 큰 코의
성인을 위한 시어머니
토스카나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
토하고 토하여 잘 나가는 차
잘 나가는 나가 되고
메디컬의 진리는 우리의 긴 인생
우리네 대마왕들은
제는 이게 문제야
제는 이걸 잘 했어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을 살아가네
수 많은 유명인사들은
우리의 책임을 깨우치고
우리의 유명희는 사무총장을 노리네
우리의 유명현은 국제사회를 누비네
우리는 선생이나 학생이나 대마왕
메디컬의 아들들 경제의 딸들
앗! 아르바이트 시간이 되었다
대마왕도 경제 없이는 도통 불가능하고
선생은 키아리시모
커 가는 학생들에게 세상 얘기를 전하고
틀렸다고 점수 깎네
선생은 대코시모
출세한 사람 모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선생님 덕분에 출세했어요
우리는 토스카나가 되네
이번엔 보건대통령을
아니면 경제대통령을
대마왕은 인생의 행복
세상의 밑알들
사이버 강의실의 노교수는
세상의 밑알들아
행복한 생명이 되거라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강행군 강의에도
피곤을 모르네

13. • 상갓집과 가무음곡 •

다 먹고 다 산건가
길을 잃은건가
하루의 시작이 어찌
하이포타시스인지
철학과 종교 없이는
자해 같고 음해 같네
상갓집 옆 가무음곡
무희들은 획 돌고
변태의 술잔인가
남성들의 심볼은 무희의 춤처럼
살아 있다고 아우성
인간세상은 스님의 말씀처럼
케이오스에서 케이오스로
인간세상은 그리스 신화처럼
제우스 신 이전의 혼돈속으로
아침의 시인은 헤씨어드
호머가 되어 세상의 창조주인양
에로스를 만들고 헤메라를 들이미네
에로스는 로마의 큐피드
이제 그만 헤메라인가
헤메라는 큐피드의 화살에
정숙해지고
무한광대한 시간과 공간속에
우리는 작은 밀알들
오빠 부대 엄마 부대
자 또 밀어주자
더 먹고 더 잘 살아 봐라
부질없고 찰나 같네
세상은 한판의 상갓집
세상은 한판의 가무음곡
오늘도 노인은 아침의 시인이 되어
헤씨어드 처럼 씨를 하자 시를 짓자

개그 같은 말을 바치며 한 마디
맛있게 드세요
깨어버린 아침의 영혼
좋다는게 뭐여 호머의 영혼은
잠을 깨고 분을 삭이네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
여자는 불난의 시작 세상의 동력
타이탄은 영조인지
아들 크로네스를 시기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추억을
얘기하고 존재를 돌아 보네
신성한 시간은 종교를 향하고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여자가 좋아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를 승화시키네
삼위일체는 우리의 엄숙한 시간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의 힘찬 시간
세상은 한판의 상갓집
세상은 한판의 가무음곡

2020년 11월

14. • 지혜와 은혜 •

우리의 시간은 혜경궁 홍씨
은혜의 혜자 지혜의 혜자는
인간을 구별지우고
약육강식 생존본능의 아마존 같은
세상은 긴 인생애환으로
수 많은 살해 위협
잘못된 아버지로 할아버지의
핍박은 그치질 않네
이산은 커 정조가 되고
산 같은 이치로 나라는 번영하네
혜경궁 홍씨는 혜안의 바이스탠더
한중록의 기록은 잔인한 세상에
의미를 알게 하고
우리는 세상의 한을 같이하네
혜성은 별뿔별
별이 만든 별
왔다가 사라지는 이슬같은 별
항성은 무수리 콤플렉스의 시부
행성은 빙빙도는 문제아 남편
왕비가 못된 한은
은혜와 경사를 헤아리고
정조대왕의 운명은
혜성같은 어머니의 지혜로 부활하여
실학과 과학 상업의 융성으로
국가의 기틀은 튼튼해지네
우리는 혜경궁 홍씨의 유전자
지혜는 끝이 없고
새로운 소통방식은 지혜를 풍성하게
한동훈 금지법은 혜경궁 추씨
수정헌법 5조는 혜경궁 변씨
테니스 코트의 서약은
시민 민주주의의 상징

키 디스클로저 로는 오늘의 주제
떳떳한 국가 적법절차의 원칙
떨고 있는 피의자도
대등하게 다룰 수 있게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법정에서 테니스를 치듯이
허참 국가는 무엇이고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성씨 성 유튜브 덕에
우리는 인섭이의 주말을
재미있는 썸네일들
충격실체 헤민스님
법을 헤아리기 전에
이웃 시민을 헤아려라
아니면 이름처럼
지혜롭고 민첩하게
거물 변호사의 주말은
은혜에 감사하고
의심받을 욕심은 버리자
어떻게 주말을 보낼까
인근 절이라도 들러볼까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삶은
우리의 해탈
언젠가 폐친이 보내온 시
혜화동 4번 출구
흠쩍 커 버린 딸이
자랑스럽고 어렵다네
시끄러운 세상 속 우리
조용한 발걸음은
혜화동 4번 출구에서
조계사 방향으로

2020년 11월

15. • 작은 소야곡 •

작은 것은 강하다
컴퓨터 칩은 그 작은 공간에
세상 모든 것을 담고
옆 나라 일본은 줄이자 줄이자
사람들은 축소지향형이라네
큰 나라 미국도 결국
주 정부 카운티에서 스쿨 라커까지
힘과 강한 것은 작은 것에 있네네
레닌은 나라를 소비에트로 나누고
노동당의 실험실로
작고 강한 것은 조이고 닦는데서
작고 강한 것은 기쁨의 모태
조이는 기쁨 우리의 희열
어디 재밌는 일 없나
일상의 하루는 조이를 구하고
조이 조이 쌓이고 쌓여
단축어로 다가와 죄가 되네
합스 부르크 왕가
부르봉 왕조
천하 통일을 구하던 영웅들도
모짜르트의 작은 소야곡에 힘을 얻고
기쁨에 전율하네
조이 조이 죄 죄 그 많던 기쁨과 희열은
말년의 노인들에게 원죄를 알게 하네
이제는 하느님의 사냥감이 되어
조이는 것은 눈물같이 힘들고
누구는 파킨스 누구는 근육병
부은 몸 병든 모습들
호세 같던 젊은 힘
조인성 같은 기쁨은 언제였나 아득하네
젊은 호세는 이제 이빨 빠진 노인
쭈굴 쭈굴한 호떡처럼 되어

작고 강해지지 못하네
기쁨의 유통기한은 다하고
갱년기 장애 노인병만 덩그러니
자연의 섭리는 컴퓨터 같고
조이는 더 이상 노인의 몫이 아니네
이제 노인은 죄를 질 수 없는 불능범
한 낮부터 밤까지
빗물 떨어지는 연못의 낙수소리
명상의 유튜브는 노년의 시간
초희의 슬픈 사랑
사면초가의 향우 같은 방구석 노인
명상과 함께 유방 같이 넉넉한
젓가슴의 노인으로 환생하네

2020년 11월

16. • 이슬람과 통닭 •

노년의 우리들은 이슬람
아침의 이슬에서 생명을 느끼고
점심으로 소박한 다슬기 된장국을
알라신 같이 세상을 알겠다고 살아온 인생
이슬 같은 지혜는 박람회
같이 커져 이슬람이 되네
이슬람의 천적은 가톨릭
가톨릭은 힘을 얻어 통닭 같이 부풀고
십자가에 못 밝힌 주 예수를 그리며
동방의 놀이터를 구하네
예루살렘은 이슬람과 가톨릭의 성지
저녁의 우리들은 피곤하여
가톨릭을 카톨릭이라 하고
십자군 행렬은 퇴근 길
차량흐름 같이 부활하네
이슬람은 차위에 올라
경적을 울리며 환호하는 영혼들
차량에 낙서하고 망치로 부수는
시위대 같은 영혼들로 부활하네
사막을 달리던 마호메트의 혼은
이슬람 제국이 되고
칼리프의 혼으로
술탄으로 부활하네
고대의 영화런가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는
새로운 이슬들의 나라로
이슬들의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가 되어 유럽을 떨게 하고
서양은 메테르니히 세력균형의 혼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유럽판도를 위협하고
어찌 이름도 프린치인지

황태자와 황태자 부부는
 두발의 총성에 이슬처럼 되어 버리네
 이슬람 제국의 후예는
 사이크스-피코 협약으로
 서양세력의 제물이 되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칸처럼
 디바이드 앤 롤로
 루브르 대영제국 박물관은
 이슬람의 보물들로 가득차고
 우리 사이는 크다 커 사이크스
 이 지역은 복잡해서 알기가 어려워
 알려고 하면 코피 터져 피코
 이제와 날 모른다고
 이슬람은 테러로
 원성은 하늘을 찌르네
 발칸반도는 칸의 발 아래
 세상의 화약고가 되어
 테러리즘과 제노사이드는
 우리를 슬프게 하네
 이슬 같던 총명함은 어디가고
 발칸반도 같은 운명이 되어
 보스세요 저는 취준생인데요 보스니아
 왜 이렇게 지옥 같고
 인생의 고비는 많은지 헬체고비나
 아이고 모자라요 더 자라야죠
 크로아티아
 중년의 이슬과 슬기는 칼리프
 칼같이 날카롭고 잎사귀 같이 무성하네
 노년의 우리들은 행복한 생명들
 페르디난드 황태자처럼
 젊은 시절의 추억에 젖고
 서재 속에 파묻혀
 인류가 남긴 슬기를 즐기네
 세르비아의 프린치 같기도 하고

세빌리아의 이발사 같기도 한
와이프의 짜증섞인 외마디 소리
아 이제 이발 좀 하세요
달콤한 술을 탄 것 같은
서재 속의 술탄은 이제 그만
길게 자란 머리는 옆 이발소로
오후에는 효자동 이발사나 한편 때려야지

17. • 약속과 쓰레기 •

버처러는 혼자 된 실존
우리는 수도승
버처러는 독서실의 고향
우리의 대학 시절
버처러는 배용준 같은 나그네
우리의 대통령
버처러는 자객
버처러는 신용불량자
버처러는 돈 사람
우리 사회의 교양
버처러는 약속을 구하고
언젠가 들렸던 음식점 단두리
티제이 프라이데이를 돌아보네
버처러는 우리의 경제
버처러는 우리의 기둥
그의 분투는 취업전선으로
대학원 진학으로
약속은 가치
법이나 경제나 약속 약속
사회계약론은 근대헌법의 시작
계약이론은 경제 이론의 시작
약속 없는 그 많은 시간들
하느님은 속삭이네 쓰레기라고
대의는 경계의 대상
사회비용 비효율 말 많아도
우리의 대리인들은 출세하고 번영하네
양심을 지키자는 목소리는 밀알 같고
정씨성 유투버는 늘상 시장과 자유를 말하네
전통과 제도는 오른쪽의 자산
공비가 되 버린 대리인들은
그의 칼날 같은 혀에 비리가 되버리고
진정한 주인과 대리인은 그의 이상

이번 지방선거는 그의 현실 체험
 오늘도 우리는 무슨 약속인지도 모르고
 거리의 공비가 되어 킹크랩 같이 돌고 있네
 제도와 전통은 적폐가 되고
 수선할 것 없다 죄다 바꾸자
 머리만 커져 버린 정부는
 돈이면 다 된다
 일과 자생력은 뒷전이 되네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로
 노노간 계급분화 노노간 착취로
 재벌들은 더 나은 외국을 찾고
 우리의 인재들은 무슨 약속인지 투덜 투덜
 위대한 정부는 역시나
 TV에는 오래된 약속이라는 다큐멘터리
 정책홍보 광고에는 정부지원액
 조희하라는 홍보동영상
 테스형 좋아하는 우리들
 크산티페 같은 악처로 버처러가 되네
 내가 버처러인지 알까
 공비가 되어 댕글달고
 대통령같은 기분이 되었다
 자객 같은 기분이 되었다
 우리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 버처러
 하느님은 연신
 공부해라 일해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바닥인 나라
 우리는 약속 없는 거리의 공비
 북쪽과 남쪽으로 갈린 영혼처럼 걸돌고
 핵폭탄이 되었다 쓰레기가 되었다
 수도승 같은 시간은 사막 같고
 우리는 버처러
 연말정산 신년인사

또 한 해가 저무네

020년 11월

18. • 킬링 필드 •

자고 일어나니 조용한 아침
쥐 죽은듯 고요한 세상
프랑스가 남긴 교훈은 캄보디아
깜씨 여자처럼
박사 과정의 학생처럼
내 맘대로 세상
폴 포트는 길다란 주전자
주진우 같고 조정래 같네
끓고 있는 독재자 상처받은 영혼
수천명의 무고한 생명은
빠가 되어 인산인해
미국이 남긴 교훈은 필리핀
정치경제학은 철학으로 노동으로
마르코스는 독재자
늙은 말 같고 코들은 일하네
코라손 아키노는 체제 변혁을
독재는 그의 적
코가 아니고 손이네
그의 정체성은 아이 같이 순수한 키
살해의 위협속에서도
비행기에서 내리고
프랑스가 남긴 교훈은 베트남
배트맨 같이 강골이 되어
크고 힘센 거인도 휘청
남에는 티우 대통령
친구 티는 이제 종말을 맞고
옆에는 키우삼판
삼자 판사인지 열쇠 친구인지
베트남을 압박하고
북에는 호치민 뭐가 그리 좋은지
우리는 좋다 치사한 왼쪽 사람들
베트남의 민족 자결은 환호하네

오른쪽은 따이한 따이한
애뜻한 사랑을 남기고
독재자는 우리의 정서
대중과 독재자는 완벽한 궁합
포퓰리즘은 열광하고
쿠알라 룸푸르는 폴 포트의 영혼
알란 말이야 내 룸은 푸르다
말레이지아가 되어
쉬운 애들은 이제 그만
독재자의 내면은 내로남불
점심 짬을 내 돌아 본 모교 캠퍼스
노벨상을 타겠다는 교수들
고난도 수학방정식과 씨름하는 교수들
실험실의 암호같은 기록들
복잡한 사례를 분석하는 학생들
쉬운 애들이 아니네
폴 포트 킬링필드 같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즐거운 우리네 세상
정치는 우리의 휴게실
독재는 팝콘 같은 즐거움
킬링필드에 쌓인 뼈들
노년의 우리들의 아침은
쥐 죽은듯한 고요함
나는 무슨 뼈일까
피곤한 몸을 일으켜 자기를 돌아보네
위험한 저가 여행사
말 많고 탈 많아도
이번 휴가는 동남아시아로
동남아 여행은 우리들의 즐거움

2020년 11월

19. • 도깨비와 허깨비 •

도깨비는 하느님의 아이들
깨냄새 진동하는 이웃이 부러운지
머리에는 뿔이 있고
귀여운 도둑이 되네
귀여운 비행기가 되어
하늘을 나네
도깨비 방망이는 우리의 슬기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그동안 흠친 깨들로 세상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사무실은 인맥과 네트워크로
인생의 지혜로
허깨비는 할아버지의 영혼
젊은 시절 도깨비 같던 영혼은
허수아비 같이 되어
죽인다 죽인다
아귀들의 겁박에도
꾸벅 꾸벅 졸고 있네
자존심 팽개친 아귀들
약점과 상처로 유령같은 영혼들
더 이상 씨앗이 아니고
까마귀가 되어 노인을 비웃네
하느님의 뜻은 화학적 거세
간음하지 말아라
제주어 혼자 읊서예
도깨비 같은 청춘은 어디가고
노년의 실존은 고독과 척박한 시간들
동네 이름도 어찌 정자동인지
분당 정자동의 노 교수는
가시나무새 같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네
돋보기를 들이 밀고
우리들 씨앗을

비교하고 평가하네
이력서를 들이 민 교수 지원자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시험을 막 치른 학생들
이쁘게 봐 주세요
잠시 들러 본 공원에는 우유와 보름달 빵
취업전선 탈락자들의 아점
할아버지의 뇌리에 박힌 슬픈 영혼들
정자들은 외치네
빵을 다오 빵을 다오

2020년 11월

20. • 동학농민운동 •

제사는 우상숭배
신분제는 미개한 동양인
천주교의 서학은 실정에 안 맞고
우리의 입 맞은 동학
최제우는 우리의 최면
우리의 스펠 우리의 제우스
동학은 새로운 지평
유불선 무당이 어우러진 창조적 학문
만석보는 동학의 저력
명석한 우리네 자원들
고부 군수 조병갑은 농민을 자극하고
김개남 전봉준은 농민들의 대왕
견마지로의 대명사
선생들의 녹봉
일본의 신식군대는 우리의 신학문
시모노세키 조약은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
세상의 키와 같이 가세
우리는 단발의 신사
구한말 멋쟁이 신여성
우리네 농민은 집강소
집집마다 피가 끓는 향토예비군
우금치는 새로운 친구의 돈
치사한 신학문 배워야 산다
농업자본은 산업자본으로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으로
자본주의는 날개를 펴고
주식시장에는 동학농민운동의 혼이 살아 있네
우리 기업 주식을 사 주자 동학개미
서양기업 주식을 제일 많이 샀네 서학개미
우리네 애국심은 끝이 없고
동학은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

우리는 행복한 최면상태
고독한 신의 나라의 제우스
고은의 시 이문열의 소설처럼
한국인의 창조적 꿈 속으로
작고한 이성렬 대법관처럼
우리의 열렬한 창조적 이성으로

2020년 11월



21. • 논개와 스카렛 •

바다 같이 큰 세상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왔다 가고 사라지네
시대의 운명은 인생을 가르고
노 교수는 바바리
코트 깃을 치켜 세우고
겨울 바다를 걷고 있네
지나 온 세월들을 돌아 보네
바람은 혈액형 오형
세상이 되고 전쟁이 되네
남북 전쟁의 상흔은 여 주인공 스카렛
작은 희생양 같은 이름
오스카 상도 없던 시절
상처는 영화인과 예술가들의 컨셉트
영화 속 애슬리는 언젠가
우리 남성들의
북킹 스캔달로 유명해지고
스카렛은 전쟁 속의 드센 팔자
첫번째 남편은 해밀톤
두번째 남편은 프랑크
세번째 남편은 레에트
세번을 결혼하고서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네
바람은 우리네 전쟁
임진왜란의 상흔은 결판진 논개
작은 학자 같은 이름
심야토론도 없던 시절
어찌 이름은 논개던가
진주성의 김시민은
분연히 일어난 우리의 의장
논개는 우리 여성의 결기
왜장과 함께 남강에 몸을 날리네

유몽인의 어우야담은 논개를 기리고
논개는 의암이 되어 사라지네
양키 아아미와 왜적의 수난 속에 핀
꽃다운 두 인생
양성 사방지 같은 긴 시간 인생 여정
우리의 앞은 애슐리 일본 왜장
우리의 뒤는 스카렛 논개
또 무슨 바람이 불려나
또 무슨 인생이 펼쳐질까
겨울 바다의 찬 바람에
스쳐가는 노래들
애슐리나 왜장은 이제 그만
스카렛 논개 같이 되어
세번의 운명을 받아 들이고
책상 앞 논문은 논개처럼 비장하네

2020년 11월

22. · 내 맘대로 암호화폐 ·

열정페이는 열정적 노동에 얹은 임금봉투
사보임은 사임해야 보임되고
김포족은 김장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소확행은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임사는 임대사업자
공시족은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수처는 공직자 수사비리처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 노동 문제
우리의 암호화폐는
세종대왕 한국은행을 희롱하고
빨리 빨리 무시 무시
사보임 소확행은 효율적 소통
공수처 인국공은
공산당인지 인민공화국인지
알 수 없는 말장난은
우리의 재미 시대의 흐름
이제는 별걸 다 줄이네 별다줄까지
빨리 빨리 진보의 흐름은 개혁을 재촉하고
묘한 뉘앙스는 우리의 방향을
적폐세력의 오명들은 눈만 꿈벅 꿈벅
하느님의 스펠은
왼쪽 날개의 이미지들
선과 정의를 말하네
수 많은 왼쪽 이름의 연예인들
공유는 소유권제의 개혁을
원빈은 사람이면 마음을 비우자
김씨 이자 마음 탐욕을 버려라 김규리
현빈은 급기야 가난한 이들을 앞으로
하느님의 엔진은
오른쪽 날개의 이미지들
경쟁과 시장을 말하네
소유진은 우리의 본능 인센티브가 되고

이대근은 힘과 정력의 상징
최수종은 재능과 수월함을 가르치고
이순재는 시장에 잘 적응한 우리들
한효주는 충성과 효도
우리의 서비스 정신
암호화폐와 지역화폐는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우리 사회의 세포분열
우리의 작은 행복
기술과 지역이 신용이 되네
경기도 지역화폐가 잘되어야지
헌법을 수호하자 사형제는 정의이다
좌우의 잠룡들은 깨어나고
대선 프로필을 가다듬네

2020년 11월

23. • 지폐와 파이낸셜 •

사람은 땅에서 나고
아담은 하느님이 흙으로 빚었네
땅은 하느님의 거름
풍성한 생명의 터
땅은 돌고 우리의 머리도 도네
머리가 좋은 놈 머리가 잘 도는 놈
부모와 선생은 아이들을 칭찬하고
엄친은 우리의 입버릇이 되네
우리네 인생은 삶의 긴 여행
파이낸셜은 머리 좋은 여행자
척박한 거리
인생에 삶의 윤택유를
수 많은 사람들 머리 위가 되어
금융통화 위원회가 되었다
국세청이 되었다
잘 돌던 머리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고
국세청은 남남갈등
우리의 화투놀이는 머리끄덩이가 되고
백두산은 남북갈등
하얗고 성스러운 바보 머리가 되네
한라산은 우리의 보배
가장 높은 머리가 되어
출세 못한 사람도 돈없는 사람도
머리는 만두 같이 커지고
출근길의 승용차는 만땅고
뒷 지갑은 불룩
우리의 가짜 돈은 돈 키호테처럼 엉뚱해지고
월요일 아침 한 주가 시작되네
납자루때 같던 지난 시절
파이낸셜이 되고 머리는 잘 도네
TV에는 중국 안록산의 난
녹두장군 녹두전 녹차의 시간들

월급봉투의 추억 두툼한 록봉
우리는 시스템의 행복으로
옆에 있는 지우의 한마디
선생님 은퇴하셨나요
할일 없는 노년에게
파이낸셜은 사치
골품제 같고 카스트 제도 같은 일상들
노년의 관심은
20달러 지폐 해리엇 터부만
결정은 왜 연기 되었는지
5만원권 지폐에는 장영실이 아니네
어찌 신사임당인지
10만원권 지폐는 언제나
뼈다귀만 남은 노년들
조가비 같이 되어
납자루떼의 청춘은
납골당을 바라보고
남남갈등은 레퍼리 스톱 컨테스트
백두산으로 한라산으로

2020년 11월

24. • 장단의 인생별곡 •

병어리 삼룡이는
나도향이 바라 본 세상
삼룡이는 병어리가 되어
믿음직한 서비스맨
주인과 고객은 흡족하네
삼룡아 짧고 굵게
하느님의 뜻이런가
불타는 화마는 신성하고
삼룡이의 영혼은 승화하네
병어리 같이 거리에 파묻혀 지나간
공업용 오일 같은 한 주의 삶
주말은 어김없고
거리는 신성한 화마로
어느 집 아무개인지
영혼은 미소와 함께 잠드네
우리는 일꾼들 주인님의 데릴사위
정 많은 김유정은 길고 긴 하느님
김구 같고 구천같은 배부른 긴 시간들
일은 우리네 보람 우리의 존재감
소설 속 데릴사위가 되어
감질나는 한 평생
언제나 용이 되나
장인과 사위는 우리의 인생 해학
우리네 인생은 웃지 못할 한편의 기만극
하느님의 뜻은 공수래 공수거
영혼들은 각자의 스펠이 있고
자신의 명예를 매네
모파상의 목걸이는 귀족의 삶
허망한 가짜 목걸이는
인생을 김빠지게 하지만
자신의 스펠에 따라 산 행복한 인생
거리의 청바지 병어리 삼룡이

거리의 넥타이 데릴사위
거리의 귀족 마틸드와 장관부인
인생과 영혼들은 제각기 자신의 스펠을 매네
누구는 농사짓는 백남기의 영혼
누구는 백남봉 같은 멋쟁이
주말은 백병원의 최고 병실
우리는 하얗게 되어 즐거워 하네
시와 소설은 우리에게
백락청 같이 행복한 시간을

2020년 10월

25. • 3자 냇두리 •

3자는 우리의 머리털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천지인의 조화를
동양이나 서양이나
3자는 아이디어의 보고
삼각산 굽이 돌아
김상헌의 영혼은 삼학도가 되고
삼성의 거인 앞에는
어찌 세개의 조화만이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주전파의 영혼 김상헌
삼각산은 우리 악의 상징
한강수는 생명의 젓줄
삼두박근은 우리의 거리
우리의 업동어들
우리의 시간은 악을 태극으로
거리의 스타들은 본보기가 되고
천사의 재림을 희구하네
겨울 초입의 정서는 품바타령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잊지도 않고 또 왔네
윤회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다시 구하네
힘 같은 가스펠을 부르는 천사처럼
밥 솟갈을 높이 든 악마처럼
이웃의 문은 활짝 열리고
한석규는 서울의 달 흥식이
넓은 세상 거지들의 모범
품바타령은 흥식이의 노래
자꾸 이웃의 문을 두드리고
유학을 꿈꾸고 배움을 구하네

최민식이는 서울의 달 춘삼이
거지와 빈민촌의 이상
거지왕 김춘삼의 파워풀한 부활
삼성의 큰 별은 수 많은 한석규들의 대부
세상의 의리는 눈물 겹고
우리네 세상은 삼자 돌림의 봄을 향하네
김기춘 어른은 감옥에서 나오셨나
어찌 동명의 이름이던가
우리네 작은 가족들은 인생의 애환을
가락구로 엄숙한 분향소로

2020년 10월

26. · 사건과 논쟁 ·

동키호테는 뚱뚱한 중세 기사
신사도의 상징 왕 같은 영주
동키호테는 법을 만들고 대비하네
가상 현실에 대비하자
법전에는 유식한 말들이 가득
북한을 풍차라 하고
국가보안법은 동키호테 입법이 되었는가
이름처럼 판사였나
동키호테의 집사인가
산초판사는 미련한 주인을 따르다
그가 그리던 바라타리오 섬으로
돈을 쫓아 돈 키호테인가
키가 둔해 동키호테인가
동키호테는 회개하고
나폴레옹으로 근대 5법으로 부활하네
다시 또 대비하자 큰 머리가 되어
유럽에 자유와 혁명정신을
모든 가상 현실을 내 뜻대로
유식한 말들은 그물 같이 세상에 던져지고
부르봉의 머리들은 위계와 와인
나는 너의 상관이다
언젠가 와인 즐기던 장관이 부럽네
산초 판사의 혼은 몽테스키외가 되고
블랙스톤 같이 현명하네
연방헌법 제 3조는 우리네 사법부
사건과 논쟁은 바라타리오 섬의 원칙
법률가의 날개
미래의 일이다 추상적 문제이다
축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차이네
억울한 자와 평생 외길을
위대한 찜밥집의 영혼들

문명은 진보하고 인류는 개화하네
기봉스는 통상의 자유를
드레드 스코트는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을
플레시 퍼거슨은 시민법의 모태
강의실의 노교수
법전을 펴야 되나
판례집을 펴야 하나
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2020년 10월

27. • 베갯머리 귀밑머리 •

귀는 복지의 상징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되고
큰 귀는 재상의 관상
안정된 우리네 상징
코처럼 머리 굴릴 필요 없고
몸처럼 움직일 필요 없네
우리들의 귀는 일본의 원수
풍성한 신하 빼어난 길
이름은 말뿐이고
풍신수길은 증풍에 걸렸나
물길의 고생인가
연신 조선 놈들의 귀를
귀이총에는 웃지 못할 슬픈 역사가
귀는 상속으로 상속으로
부는 대물림되고
특권층은 비리 입학
비리취업 비리병역의 온상
우리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공정사회를 말하네
귀밑머리는 곱게 탄 머리
우리는 아씨 우리는 귀공자
이제는 성인이 되어 사모관대를 쓰고
어른이 되고 배움을 찾네
우리네 선생들은 침변교처
잠자리 폐친 글들은 흠즈의 가르침
아내가 되어 배우고
남편이 되어 가르치네
귀밑머리는 우리의 대가족
베갯머리는 우리의 핵가족
귀밑머리 애환은 부모의 아픔
베갯머리 송사는 세상의 비리
우리의 하루는 귀밑머리와 베갯머리

모순과 시집프스의 신화
헉스리의 새롭고 용감한 세상
누구나 연신 돌을 굴리고 있네
우리의 하루는 유토피아를 향하고
소설 속 아일랜드
크로포트키네스크를 그려 보네

2020년 10월

28. · 홍길동 ·

높은 사람 말 잘 들어라
정의와 가치 배분 체계
누구나 수궁하고 투명하네
백성들은 성군의 덕을 기리고
가을하늘은 높고 푸르네
시간의 나침반으로 세상은 썩어 가고
새로운 수혈은 도통 먼 나라 얘기
소통은 일방통행이 되고
알 수 없는 자신들의 냇두리만
말하기 좋아하는 엽사들은
큰 세상 길거리 동충하초 같이 되어
유튜브 박스에 앉은 홍길동 같고
이 쪽은 오른쪽 저쪽은 왼쪽
하느님은 허균인지
오른쪽과 왼쪽은 균형을 이루네
우리네 이상사회는 울도국
누구나 법 아래에서 평등한 세상
우리네 정치는 활빈당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자원과 가능성을
홍길동은 하극상
아래가 위를 이긴다는 소리에
광해군은 분노하고
반란단체가 되버린 활빈당
사형장의 이슬이 되버린 허균
우리네 전설로 남는구나
민주주의의 신화는 하이 로 카드놀이
나는 하이 패다 너는 로우 패다
시장과 정부는 탐 다운 보름 업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준별되고
오늘의 홍길동들은 우리의 로우 패
정의로운 로우 패는 세상의 울림

조은산과 유튜버들은 우리를 일깨우네
우리는 시민사회의 은총받은 생명들

2020년 10월

29. • 라면과 설렁탕 •

오늘은 라면
내일은 설렁탕
점심시간의 선택지는
우리를 즐겁게 하네
라면과 설렁탕은 직장인의 안정
우리의 돈과 출세
나날이 쌓여가는 명함들
직장인의 얼굴은 커져가고
라라라라 즐거운 얼굴
라면 원조 일본인에게 감사하네
설렁탕은 우리의 자부심
농자는 천하지 대본
왕의 출장은 선농단
열심히 농사지어라
우리의 생명이다
들에는 하얗게 고운 쇠고기 국물
선농단은 설렁탕이 되네
라면과 설렁탕은 노년의 직장인
이제는 이빨 빠져 틀니를 끼고
남은건 큰 얼굴
마음은 자애롭게 설렁 설렁
물고 늘어지자
이빨을 양당 물고 공부하자
젊은 시절 걸기는 어디가고
거울 속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있네
오늘은 오랜만에 찢어 볼까
오늘은 오랜만에 갈비를
아직 남아 있는 약한 이빨들
목요일은 아웃 백 할인되요
아내의 외침에 오늘 점심은 이빨 테스트
아이 같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오후
새로운 이빨이 그리운 시간

중국어 알파벳이라도
오후의 여유는
방송대 중국어 강사와 함께

2020년 10월

30. • 그래피티와 벽화•

시경 대아편

주수구방 기명유신

천명은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은나라는 새로운 주나라로

막번체제는 새로운 근대화로

현대판 군주 히틀러와 박정희

수권법은 히틀러를 총통에

유신헌법은 박정희의 영구집권 플랜

나치의 폭거도 이제는 표현의 자유

나치 그래피티는 부활하고

가세연은 박정희를 재미있게

주 예수 십자가인가

불교 만 문양인가

어찌 이름은 가로세로인지

누가 우파 아니랄까봐

너무 나가 45도 비틀어

극우 나치처럼 ㅋㅋ

천재들이 모여 있나

이근은 이팍나무로

이근은 이무기의 근육 흑치상지

훈련받은 직장인 우리의 거리

이팍나무는 무지한 시절

이무기는 외국 팝송처럼 새가슴이 되고

우리네 거리는 밥 같은 하얀 눈꽃

낙서와 만화는 인간의 밈

말할 수 없는 신들의 계시

세상을 한 컷의 만화로

신문에는 풍자 캐릭터

풍자만화는 세상의 주제

토론장은 열기가 가득하고

이슬람 테러리즘은 샤블리 에브도로

벽은 기존 질서 기득권의 상징

벽에는 수 많은 그래피티가
벽화와 그래피티는 인심의 가름대
나라를 칭송하고 세상을 얘기하네
왕의 무덤벽화에는 백호 청룡 현무 주작
행궁동 벽화마을에는 시민들의 웃음이
이화 벽화마을에는 우리의 복지가
평화로운 아이와 노인의 모습들이

2020년 10월



31. • 결투 •

주말의 우리는 광화문 네거리
요즘은 코로나로 뜸하네
명박산성 재인산성 없던 시절
사람들은 국사봉에 올라
태극기와 촛불의 결투를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충정은
해방정국과 건국으로부터
해방과 독립 시민들은 춤추네
새로운 출발의 갈망은 건국으로
풍운의 해방정국으로
건국의 아버지들로
건국은 지난한 과정
우리는 건국의 수혜자
나라의 혜택은 가이 없고
누구는 대통령 누구는 고위 관리
누구는 손꼽히는 재벌
생명도 보호해주지 못한다
총에 맞은 원혼은 국가를 원망하고
세월호는 왼쪽 혁명의 상징이 되네
건국은 영웅들의 각축장
좌우 이념대립은
해방정국을 결투장으로
암살과 권력욕 대의가 춤을 추고
여운형 송진우 김구의 원혼은
대한민국의 거름
오른쪽과 왼쪽은
나라의 아버지가 다르다네
이념이 없던 무식한 시절
건국의 혼란은
스페인 왕위를 둘러싼 7년 전쟁
쌈밥집의 영혼인가
변호사들은 건국의 아버지

결투를 불사하고
해밀턴은 버의 불구대천 정적
우리네 건국은 좌우 이념대립의 산물
민주주의 원조 미국의 건국은
유럽 세력균형의 산물
버는 라파예트 장군의 영혼
권력욕의 화신 외환죄로 지탄받고
헌법에는 외국 영전 금지조항
같은 외나무 다리
피할 길이 없네 일어 설 수 밖에
황야의 검투사처럼 휘파람을 불며
김두한과 구마적처럼
펜실베이니아의 트럼프와 바이든
월드시리즈의 다저스와 탐파베이
갈등의 장관과 총장
어떻게 총질을 갈등의 김정은과 문통
신성한 결투는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시간의 수레바퀴
우리는 엄숙한 역사의 증인
잠시 열어본 폐북 게시글
주말의 국사봉은 폐친들로 가득

2020년 10월

32. • 스팅크스와 피라미드 •

분홍은 핑크
처녀성과 처음의 상징
어느 외국 대학 이름처럼 우리는 원죄
우리를 알고 죄를 알고
칸이 되고 싶어 하네
분홍은 순수
호박 같고 원석 같네
순수한 감정은 핑 한방이 되고
핑 한 방은 스팅크스가 되어
피라미드를 지키는 사자가 되네
피라미드는 우리의 긴 인생여행
우리 인생의 과실들을 뽐내네
핑크는 버지니아
신대륙은 미개지
호박 같은 원석 강자의 지갑
신나게 춤추는 시골처녀들
조지 3세는 다짐하네 다시 오리라
강자가 아닌 순수남은 늑대라도
버지니아 울프의 영혼은
동정남의 대명사
호박 같이 큰 세상 우리네 짧은 시간
가진 것 없는 순수남은
세상속 슬픔이라도
짧은 베르테르의 영혼은
우리네 청춘
핑크의 단순함은
중년의 남자를 만나고
빅터 위고는 중년의 승리
톨스토이는 노년의 승리
핑크는 인생을 알게 되네
개미 영혼 출세한 인간들은
베르나르로 베니간스로

베자 돌림 배부르고
불룩한 배는 성인병의 표적
말라카와 히말라야는 건강 셰이프를
바라는 중년의 마음
출세 못한 노교수는
피라미드 같은 긴 이력서 인생
우리네 인생 동행하는 여행자
찰나 같은 인생은 부처가 만든 신화
세상은 사막같이 황량하고 긴 시간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톨스토이의 영혼
결혼은 인생의 무덤
세상은 돈 걷는 톨박스
우리는 그의 장난감

2020년 10월

33. • 타이완의 노래 •

하느님의 정의는
우리가 딛고 있는 땅
땅의 균형은 우리의 세력균형
작고 고독한 호랑이는
이퀄라이저의 정서
보통법의 지배를 말하고
큰 대륙의 호랑이는
메테르니히의 세력균형
뉴트랄리아를 말하네
큰 대륙의 스케일 위나라 왕 조조
삼국시대는 뉴트랄리아
대륙은 세력균형을 이루고
고독한 신의 나라
우리의 조소생은 이름대로 소생이 되고
이성계는 명월의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의 영혼들은 현실주의자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환희를
뉴트랄리아의 영혼들은 이상주의자
유럽의 노래처럼 비너스를 향하여 비상하네
땅위의 우리들은 인생의 일희일비
망통이 되어 일장춘몽 허무를 말하고
생통방통이 되어 생명의 미락을
우리의 동시대는 타이완
타이완은 하느님의 뜻
팔레스타인의 종말
수 많은 스타들은
더 이상 팔지 못하고
우리 뭇은 평등한 세상 균형잡힌 세상
타이완의 우리는 완벽한 타이가 되어
또 다른 오늘 또 다른 내일을 향하네
풍성한 시장만이 남겨진 세계에는
여왕과 여 수상의 웃음소리

이문세의 노래처럼
척박한 타이완의 우리네 인생
연애질과 동반자를 갈망하고
클레 클레 크겠다는 사람들에게겐
어김없이 파트가 있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 파트라는
우리네 룸싸롱
동지들의 모임사진
라임 오펜버스는 오붓한 동지 모임
검사들은 스폰서와 향응접대
세력균형은 하늘의 뜻
제국의 꿈은 완전하지 못하고
아카데미나 가상세계의 녀두리
구 세계는 나폴레옹의 꿈
섬나라 이퀄라이저는 워터루 전투
나폴레옹은 물이 되고
유럽동맹은 하늘의 뜻
20세기는 히틀러의 꿈
대륙의 히틀러는 빌헬름의 다른 모습
유럽은 동서로 갈라지고
유엔 안보리는 하늘의 뜻
노 교수의 타이완 아침
강의 준비를 위하여 펴든
작은 외교사 서적
천일야사 시인 모양과
기생 동소완 같은
작은 연애 이야기

2020년 10월

34. • 쇼크와 충돌 •

문화적 쇼크는 개화기의 우리
서양의 코쟁이와 어떻게 사나
페리 제독과 일본
북경의 밤의 중국
기말대 없는 대원군
살아 보려는 새로운 무리
역사의 순리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씨 조선의 혼란 속에 민씨는 민첩하고
젊은 포부들은 개화파가 되네
민씨는 미리견 민주주의 밍크코트
왕도 없네 밋밋하고 광활한 대국 미국으로
알렌은 페리 제독 헤르난데스 장군
큰일 났다 전쟁의 영혼
개화파들은 어찌 그런 이름인지
박영효 홍영식 김옥균
통일 영범이 되어
일본과 통하고 영국을 모범 삼네
고균은 독고영재인가
섬나라에서 홀로
대륙의 세력균형을 생각하는 것 같고
미리견을 본부 삼아 영국을 더하자
민영익 등을 폭사하려 하고
일세를 풍미한 민태호는 척살되네
문화적 충격은 우리네 정서
문명의 충돌은 정치적 현실
20대의 젊은이들은 인생플랜을 생각하고
이란의 핵무기는 해 묵은 골칫거리
서봉수 같이 국내파가 될까
조훈현 같이 유학파가 될까
꿈들이 영그는 나이들
나는 오늘도 젊은이들 앞에 서네
어찌 프랑스 대통령 이름은 마크 롱인지

열심히 공부해라
남겨진 성적은 뱀 같이 오래 남는다네
뛰니히는 묘하고 메르켈은 멜로 화학
독일은 우리의 맥주
뮐렌도르프는 요셉의 영혼
뉴 밀레니움 고종은
김영삼으로 부활하여
평생교육 통령이 되고
컨셉트는 평생학습
학교에서 직장에서
십자가 주 예수와 함께 영원하다네

2020년 10월

35. • 역관과 소통 •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우리의 일상
 우리는 서로를 알고
 지구는 한 가족이 되네
 울부짖고 물어 뜯는 야생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짐승 사람
 그것은 소통의 덕
 푸코가 말한 철학자의 웃음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소통은 귀염쟁이
오리지날은 재미있는 암호같이 되네
 미 대륙은 아미리가가 되고
 프랑스는 법란서로 법국이 되고
 독일은 덕국으로
미국이라는 미리견은 메리칸에서
 어 자 발음은 약하게
 귀염쟁이 소통은 주인의 재미
 통문관은 거리의 현실이 되어
 치열한 우리의 일상이 되네
 고려의 조인규는 서양 말 조인인지
모임을 규명한다가 되어 통역사의 호사를
 조선의 흥순언은 어찌 클 흥
 어찌 순언인가
 큰 세상을 말의 순리대로 흐르게 하네
 이제는 은퇴하여 타일러의 콩글리시
 주인의 재미나 찾는 신세
 우리는 콜라병을 든 영화 속
 부시맨처럼 되어
 하느님의 귀염동이가 되고
 은퇴한 정치인은 플로리다의 어디에서
 그림을 그린다네
정치인이 그린 그림은 나의 인생 너의 인생

복잡한 통역을 넘어 심심상인이 되고
세상 곳곳의 부시맨들은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네
문명이라는 콜라병을 들고
우스꽝스런 모습이지만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채
아침의 일상은 맥심 커피로 기지개를 켜고
아미리가처럼 맥심도 한자로
맥심은 노 교수의 보리 마음
그동안 거쳐간 수 많은 학회 통역사들
그 많은 정상회담 외교 모임
통역사들의 수고가 떠오르는 아침
오늘은 보리 같이 안정되게
보우들과 함께 코스모스 길을

2020년 10월

36. • 바보와 신화 •

하나회는 인간이 만든 신화
일심회가 되었다 바보가 되었다
하나회는 한 시대의 주역이 되고
쌈뽕둥이었나 전씨 성 노씨 성
통령들은 갈라서네
내란 수괴라는 오명과 함께
그래도 우리는 바보 근성
신화를 그리고
폭력혁명 노동자 세상
자애로운 군주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네
우리는 송년회 술자리에서
누군지도 모른채 위하여를 외치고
고속버스 첫 칸 앞 자리는
누군지도 모른채 남겨 두고
컴퓨터는 계산 머리
하나 둘 하나 둘 마음과 신화를 넘고
바보는 저리 가라
세상의 실체와 진리를 향하네
세상의 이야기가 되네
서양은 경제와 생산의 변증법
동양은 인간과 사상의 변증법
변증법의 종말은 또 다른 정반합이 되어
역사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돌고
쌈밥집은 원고와 피고의 변증법으로
폐친은 기록을 뚫어지게 보고 있네
이제는 쌈밥집까지
오른쪽이 되었다 왼쪽이 되었다
정치가 법을 덮었다
아우성 소리에
꼭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사명감과 함께

폐친의 하루는 점심으로

2020년 10월

37. • 역사별곡 •

하나로 동명성왕은
2대 왕 유리가 되고
치희와 화희는 유리왕의 변증법
원도우인가 피씨 화면 창인가
투명한 유리가 되어 황조가로 탄식하네
김춘추와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변증법
반도를 헤집는 용맹스러운 김유신
나이를 알자 왕의 기품 김춘추
정반합의 위대함
각간 위홍과 진성여왕
경순왕과 마이태자는 시대를 가르고
새로운 정반합으로
홍타이지는 송덕제 덕을 칭송하고
그의 양팔은 용골대와 마부대
남한산성의 인조는 머리를 조아리네
주전파와 주화파는
인조의 고뇌 신하들의 컴퓨터
사림파와 훈구파는
진보냐 수성이냐
동인과 서인은 지역정치의 원조
지역 연고는 출세의 필수품
노론과 소론은 예송논쟁
나의 기품 나의 정치
패배는 무지와 야만이 되고
경제의 성장이 폭력혁명론을 잠 재우듯이
영조의 탕평은 분열과 파국을 달래네
찬란한 여명은 개화파와 수구파
미국은 보빙사절단
일본은 ㅋㅋ 신사유감단
결기와 의협심은 급기야 처절한 대립으로
우정국은 우정의 파탄장소
민영익은 폭사하고 정변은 삼일천하

21세기 우리는 오른쪽 왼쪽이 되어
화희는 왼쪽 치희는 오른쪽
김유신은 왼쪽 김춘추는 오른쪽
마부대는 왼쪽 용골대는 오른쪽
주화파는 왼쪽 주전파는 오른쪽
아직도 갈 길은 먼데
수구파는 우리의 좌파
뿌리를 주사파에 두었나
그 많은 남북간 역사를 뒤로한채
단재 신채호 같은 영혼이 되어
우리의 몸을 묻을 한반도라는 집을 그리네
개화파는 우리의 우파
뿌리를 성장에 두었나
연신 배우자 개발하자
유길준은 서유견문
서재필은 신 학문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제는 동력이 다했는지 지리멸렬
신문에는 초일류 삼성
재계신화의 큰별이 졌다네
고인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오른쪽과 왼쪽은
죽음 앞에서도 말이 많네
의식화는 끝이 없나
조의 표현마저 양비론

2020년 10월

38. • 남겨진 명언 •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할 말 하였네
남겨진 명언은
우리에게 과제로 남고
명언의 울림은 튀니지의 재스민
아랍의 봄처럼 이웃으로 이웃으로
사건 앞 판사는
대법원장의 부하가 아니다
금리 결정 금통위원들은
기재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강의실의 교수는
이사장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 취급하는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한국은행장은 정치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을
총장은 교수를 보호하고
강의는 아카데미 프리덤
맘에 안든다고 뭐라 할 수 없네
장관은 청와대 정치 동지
검찰총장은 법치주의의 파수꾼
법치주의의 방파제
사건 앞 검사는 법과 양심
우리 돈 들여 키운 법률전문가
준사법권을 실행하는 독립관청
법치주의의 실현자
장관의 부하가 된 파수꾼은 무력하고
사건 앞 검사들은 파도에 휩쓸려
법은 저 멀리
양심을 팔아야 할 위기
우리의 거리는 어쩌면 스탈린 거리로
우리는 탄식하네
총장이 장관 부하면

법치주의는 먼 나라 얘기
삼권분립은 장식적 헌법
헛된 구호 헛된 공염불
우리는 자승 자박
노예 근성의 바보들
옛 선현들의 지혜를
스스로 걷어차네
정부는 묻지마 정부가 되어
대리인이 주인을 핍박하고
우리는 컴퓨터 없는 암흑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네
언제 교수직이 날아갈까
연금은 함부로 무효가 되네
불안과 의심 속에
저녁 상 된장찌게도 못 먹게 될 처지
사람 눈치나 슬슬
정치가 주위만 어슬렁
탑에서 보름까지
눈치보기와 규준없는 불안만이

2020년 10월

39. • 아멘과 오 마이 갓 •

인간은 정치적 동물
나는 바르다 나는 완벽하다
인간은 생명과 경외
유한한 생명을 한탄하고
영생을 구하네

정치적 동물의 비명은 오 마이 갓
세속의 화려함은 정치의 자랑
정씨 재승이는 수원화성을 소개하고

세계 패권의 사람들은
국민교육헌장이 필요한지
그리스와 로마의 갓들을 캐내네

제우스와 헤라클레스
그 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은
세속 우리들의 내면
상상 속의 별들 우리의 힘

종교적 인간의 기도는 아멘
우리는 경외와 희생을
아멘은 크지 못한 아이인가
에이 학점의 바보인가
우리는 희생양을 찾고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의 고난의 길
뼈만 앙상한 석가불은 인생 고해
세상을 주유하는 공맹은 거지 인생의 상징
험악한 세상은 알라신
종교는 우리들 신성의 내면
현실 속의 위대한 영혼

휴일의 우리는 정치에 실망하여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휴일의 우리는 인간에 실망하여
아멘 아멘 아멘

TV를 켜니 상생방송이
단군의 큰 그림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종도사님
단군은 정치인지 종교인지
상상 속의 별인지 위대한 영혼인지
강단사학은 연신 유도히스토리라 하네

단군은 상상 속의 별이 되어
우리 정치의 구심점
여야는 없고 정치는 실종되었네
바른 단군은 언제나
상생의 정치의 정치는 언제나

2020년 10월

40. • 역사와 바이오 •

역사는 우리의 지식
과학은 분석과 예측까지
역사는 우리의 몸통
과학은 우리의 머리
역사는 단단하지만
우리네 미래는 밝지 않네
기후변화 세계화와 보호주의
우리는 계속되는 시험대로
유도히스토리인지
아침의 역사는 바이오의 제물이 되고
백신을 맞은 생사람처럼
머리는 가볍고 생각은 가는대로 흐르네
하얀 멧쟁이 백거이
멧쟁이 머리 두보
노인의 모델은 멀어지고
강단사학의 우리네 시조는 동명성왕
졸본은 쭈글 쭈글 고구려의 수도
비상을 꿈꾸는 핵폭탄 우리네 아버지
주몽은 우리의 꿈
동명성왕은 밝음과 변영의 상징
광개토대왕은 큰 집을 짓고
장수왕은 길게 길게 수복을 누리네
코리아의 시작은 고려에서
개소문은 사나운 개인가
용맹하다는 소문은 왕을 능멸하고
아들 남생과 남건은 왕이 못된채
남자인지 남생인지
고구려의 멸망은 후삼국으로
삼천궁녀의 한은 흰하고 밝은 개로 부활하고
경순왕과 마이태자의 슬픔은 망해 버린 신라
남건이 아니다 왕건이다
예의를 아는 도인인가 왕건을 만든 선생인가

궁예와 왕건의 혼은 마진 태봉에서 고려로
 코리아의 시작을 알리고
 무인시대는 진술한 권력 얘기
 문인의 방자함은 정중한 매너
 정중부의 심판을
 경대승과 이의민은
 마치 경제와 정의 같고
 최충헌은 헌법에 충성하자
 작은 나라의 무인정권은 몽고의 발 아래
 이제는 왕자 앞에 총자가 붙어
 우리는 속국이 되네
 몽고의 힘은 하늘의 뜻에 따라 약해지고
 우리도 짱구를 굴리네
 공민왕은 이름대로 백성을 생각하고
 정몽주는 우리의 주체적 꿈의 구심점
 정도전은 정몽주 꿈의 구현자
 부처님 공양인가 마지막 왕은
 그들의 종교대로 하늘에 바쳐지고
 이성계의 4불가론은 조선의 이성
 원석 같은 코리아는 이성으로 얽혀
 명나라와 함께 오래 오래
 청나라와 함께 맑게 맑게
 신식 일을 하여라
 일본은 우리를 가르치고
 아침의 사이버 강의실은
 고종인지 신식 일인지
 우리네 시민사회는
 왕인지 돈인지
 정몽주는 정주영 같고
 이성계는 이견희 같네
 아침의 역사는 바이오로
 단군을 찾아 상생방송을 찾아
 요즘도 개소문이 있나
 견우와 직녀가 생각나는 아침

오늘은 한견우 교수 찾아
신촌에서 막걸리나 한잔할까

2020년 10월



41. • 반란의 변주곡 •

왕과 반란은 하느님의 장난
함길도는 이씨 조선의 천적
이씨 조선의 골치거리
태종의 콤플렉스는 아버지 이성계
이성으로 연결된 시스템
왜 하필 무인정사인지
왕은 힘 무인의 용맹함
계 조직을 넘어 회사를 세우자
조영무 이천우는 그의 창업동기
방구인지 빅뱅인지
그의 뱅은 왕권에 눈이 멀고
민씨 성 사돈 어린 혈육들은
반란의 제물로
함길도의 조사의는 이성계의 정서
비극의 이성계에게 조사를
이씨 조선에 조사를
그것은 분향소의 의로운 조사
군사를 모으고 한양을 향하네
세조의 콤플렉스는 계몽군주 세종
문을 숭상한 형님 문종
왜 하필 계유정난인지
닭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 주겠다
달걀을 낳고 말았네
신숙주 한명회 홍윤성 양정은
달걀이 만들어지기 위한 산파역들
함길도의 이징옥은 김종서의 정서
이씨 조선의 방자함을 응징하고
함길도의 이시애는 양정의 정서
남이 이준과 얽혀져 게릴라 같이 항거하네
영조의 콤플렉스는 무수리 엄마
너무 세비는 아들
급기야 영조의 뒤주는 살인 병기로

영조는 영어 같은 하얀 외투를 입고
탕평이란 이름으로 드센 정승들을 아우르네
영조의 천적은 이인좌와 홍경래
 커져 버린 북쪽은
 무수리 같네 영어 같네
이상한 사람이 왕좌에 있다
 소리치고 일어나네
넓은 세상 상도 같은 시절
축적된 부와 힘에 정치적 기회를
슬로건은 홍경래 이름처럼 방방곡곡에
왕과 반란은 달팽이 같은 역사 매니아
 주말의 점심 상은 권커니 작커니
 왕이 되었다 반란군이 되었다
 매니아의 한가로운 시간은
 천적과의 한판 술자리

2020년 10월

42. • 영터리 지리여행 •

세상은 넓고도 가까운 우리의 공간
김찬삼 선생님은 우리의 벗
토요일은 새털 같이 되어
김씨의 엄중함에서 낄낄낄 삼생이가 되네
선생님 따라 영터리 지리 여행을
정치가는 워싱턴 디씨
정치가와 공무원은 걸어 다니는 법
청렴은 이들의 생명
연신 씻어라 우리는 하얗다 결백하다
안정과 능력은 영국인의 결벽증
안정감 있게 낮게 낮게
정부는 다우닝가 10번지에
영국왕은 윈저성에
프랑스의 고상함은 엘리제 궁으로부터
독일의 합리주의는 체계완결성
걱정없는 궁전 상수시
천연가스 자연미의 러시아는
페테스부르크의 호박방
사회주의는 비밀주의 전체주의
소비에트 당 비서들은 크레믈린
중국의 정치는 인민대회당
북한의 상징은 금수산 궁전
반도의 아름다움을 뿜내고
동양의 결혼은 제주도로
우리는 충과 효 우리는 조상의 제주
서양의 결혼은 하와이
아담과 이브 문화는 핵가족
언젠가 추리 프로 와이처럼
영어의 와이처럼 연신 와이 와이
신혼 부부는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하네
와이키키 해변에 누운 두사람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두개의 키가

하와이는 완벽한 아래 공합
 아웅산은 못사는 집 애들의 생명 발악
 폭탄은 터져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노벨상의 주인마저 수치란 이름이 되네
 로HING야는 아웅산 수치
 한국의 검찰인지
 한국의 법원인지
 어찌 이름은 로이고 힘도 아닌 HING인가
 법은 무시되고 국제사회는 아우성
 민다나오는 서민들의 휴양지
 대개문인가 문빠인가
 뺨질 뺨질 좌파 시민같이
 서민 여행객은 넘쳐나고
 우리는 알파벳 오자 같이 둥글게 되네
 영터리 언어학과 함께 한
 주말의 지리 여행
 연거푸 500 씨씨 맥주를
 들이키는 맥아더 같이 되고
 주말의 오후
 그 종착역은 트루먼
 너 뭐하는 사람이나
 트루먼의 일갈에 맥아더는 맥케인이 되고
 수천씨 맥주 기운은 정신이 번쩍 들어
 주섬 주섬 아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챙기네
 책상 옆 스테레오에서는 엘가의 행진곡이
 맥아더 같이 신나다 가락은 바뀌어
 트루먼 같이 장중하고 감격스럽네
 에드워드 7세의 권유로 만들었다는 명곡
 음악을 듣고 교육을 향하는 시간
 7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 듯한 기분
 마치 황제가 된듯한 황홀한 시간

2020년 10월

43. • 장군과 재상 •

도롱뇽은 재상의 제목
우리는 도롱뇽 같이 왕눈이 되어
책을 훑치고 책상 앞에서 일하네
책은 종이 호랑이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르고
우리는 올챙이가 되기도 하고
가짜 세상의 황제가 되네
피라미는 장군의 제목
우리의 젊은 의인 열혈 남아
끓는 피는 크게 되어
바다의 고래가 되고
용맹스러운 사자
하늘의 보라매가 되네
도롱뇽과 피라미는
우리의 도련님 우리의 서방님
우리의 인생 여정
도롱뇽의 인생 분투는
버스 광고의 크로커다일
갈라파고스섬 코모도 섬의 도마뱀
국장이 되고 재상이 되네
피라미의 인생분투는
바다의 포획자 백상어
피둥 피둥한 아프리카의 표범
지휘관이 되고 장군이 되네
선생은 우리의 엄마
모성같은 영혼
무진 기행 같은 우리의 현실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낭만과 사상의 세계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현실은 다시 배움을 일깨우네
판례를 살펴보고

전사를 연구하고
도롱뇽 왕눈이처럼 되어
실험실 현미경을 들여다 보네
교수들의 하루는
모자이크같이 얽혀져
우리네 엄마처럼 크고
자이리톨 같은 희생을
우리의 혜택은
긴 시간 가벼운 즐거움
교수들의 하루는 모짜르트로
아이디어와 멜로디를 짜내네
도련님과 서방님은 선생의 보람
책과 논문은 우리의 음표들
우리네 연극 각본
우리는 노래하네
옆에는 웃을까 말까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나리자

2020년 10월

44. • 한지방의 노래 •

문화는 우리의 영혼
사나운 원숭이의 신모
경제는 우리의 육체
모리배의 컴퓨터 사람의 힘
우리는 담배를 꼬나 물고
돈 계산을 하고 있네

경제는 시장 법은 시장의 생명
법은 기업가에게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법은 기업가의 금고를 보호하네
시장을 자유롭게
쿼터제를 실시하지 말아라
국가는 시장의 명령을 듣고 있네

스크린 쿼터제는 문화적 예외
우리 영화 산업의 밥줄
아름다운 예술혼 세계적 빈대 BTS
빈대는 성공하여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문화는 하늘 높이 시장은 시큰둥
문화는 포스트 모던
공장의 매연은 날카로운 감성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콘텐츠 진흥원으로

지칼과 자스민의 정서는
우리들 창작자 우리들 선생님
말년 노교수의 손발은 초라하고
문화적 예외는 노교수의 생존권
전주 한지는 교수들의 명품
서양학문의 창조적 승화

한지방은 교수들의 일터

단아한 동서양의 책들이
하느님은 어찌 알았는지 이웃에 길잡이를
서양문화와 신학문은 이동인 동인선사
다도의 향기 차 한잔을 권하는
우리네 선생이름은 서순복
뮐렌 도르프 같은 외국 선생이름은 한지영

포스트 모던은 문화와 경제의 실험실
3조원의 BTS 스크린 쿼터제로
가낳픈 월급봉투지만
수 많은 주몽을 키운다는 자부심
정든 한지방은 노교수의 안식처

2020년 10월

45. • 아비뇽과 김대두 •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존재들
육체는 이승의 생명
영혼은 무한한 생명
동양은 천지인의 조화를
서양은 삼위일체를 말하네
하늘은 성부 조물주 여호와 하느님
땅은 성자 희생양 주 예수 우리가 밋는 땅
사람은 성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네
하늘을 흠뻑나 연상의 여인이었나
양두구육이라도 할 것이지
왜 그렇게 머리는 큰지
김대두는 땅 위의 변태종
요셉 같은 젠틀맨 쉬운 남의 일
나이 많은 여인들은
그의 포악으로 이슬이 되고
교황은 살아 있는 주 예수
이 땅위 하느님의 사도
여호와 하느님은 필립 4세를 부리고
교황을 진정한 주 예수로
시련과 반성의 시간으로
아비뇽은 어린 시절 우리의 죄이던가
필립 4세는 보니파키우스 8세를 유폐하고
보우를 희롱하였나 여성을 멸시하였나
하느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도 모르던
보니파키우스는 아비뇽의 징벌을
주 예수는 다시 부활하여
어엿한 성인 클레멘스가 되고
이웃을 아는 그레고리가 되네
아비뇽과 김대두는
노교수에 대한 하늘의 심판
필립 4세는 노교수의 짜증
에드워드 4세는 노인의 책임

철학과 교육을 생각하는
노교수의 주름살은 늘어가고
잠시 찾은 성당에는
삼위일체를 간구하는 우리의 이웃들
희생양 주 예수가 되어
안식할 수 있기를 기도하네
바치자 하느님께 루루 즐거이 노래하는
납자루떼의 마른 육체 풍성한 영혼들
여호와 하느님은 웃고 있네

2020년 10월

46. • 조각과 호박 •

사람의 얼굴은 조물주의 메시지
어머 깎아 놓은 듯 아름답네
어머 호박 같은 자연미가
신이 빛은 우리들은 행복한 웃음들

탤런트와 정치가는
우리의 대표 우리의 이미지
놀이 공원의 모형인형들
및 롬리는 법으로 깎아 놓 로마 병정 같고
버락 오바마는 왜 하필 버력인지
병영의 병사처럼 굽고 단련하네

우리는 감독 우리는 주인
탤런트를 캐스팅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네
이미지와 정치 투쟁은
다시 또 2020년을 맞고

승리 승리 외치는 호박 같은 트럼프
도날드는 귀여운 이웃 도둑
들어야 된다 시중 처럼 조정하고
연륜과 훈련 조각 같은 경쟁자 조 바이든
로댕의 조각인가 루소의 자연미인가
도박사들은 흥분하네

얼굴과 함께 한 허허로운 시간은 잠시 뿐
사극 드라마는 우리를 능지처참 부관참시로
폭군같이 되어 버린 마음들
우리네 얼굴은 사나운 원숭이로 변하네

오늘은 옆 박물관 로댕의 조각전으로
다시 한번 사람을 찬찬히

얼굴이 아니면 총기인가
아니면 잔인한 폭군인가
아직 못 다한 수정헌법 2조
수정헌법 8조의 숙제는 그대로

2020년 10월

47. • 안방극장 •

젊은 연인들은 팝콘을 들고 영화관으로
거실 앞 작은 TV는 노인들의 하루
직장가서 일 해라
학교가서 공부해라
바보상자라고 놀림도 받지만
TV는 노인들의 안방극장 우리네 인생
수 많은 지성과 예술들
우리는 즐기고 인생은 풍부해지네
작품을 만드는 거장들은
우리의 미시족 우리의 비타민
아이디어는 끝이 없고
우리는 예술혼의 수혜자
찬란한 여명은 우리의 개화기 우리의 시작
여명의 눈동자는 우리의 고난 도약의 시작
덕이는 어려웠던 시절 우리 운명
은실이는 어려웠던 시절 우리 실존
소문난 칠공주는 어떤 노인의 인생 고해
파리의 연인은 우리의 활주로
슬픈 예술혼 슬픈 연가
미시족들의 창작혼은 시대를 아우르고
드라마들은 시대 혼을 알리네
사막같고 피를 말리는
모래 시계는 우리의 산고
아들과 딸로 부잣집 딸로 이어지고
50대의 청춘기는 사랑이 뭐길래
벽오동 심은 뜻을 배우고
대발이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둥
할리우드 같고 우디 알렌 같은
직장인의 혼 불휘깊은 나무
사랑이 뭐길래는 LA아리랑이 되고
순풍산부인과로 발전하네
LA아리랑은 끈질긴 한국인

순풍산부인과의 미달이는 우리의 행복
 봉주르 안부 인사 같은
우리 영화 감독의 4관왕 수상과 함께
 대대만년 이어지네
아리랑은 거침없는 하이킥이 되어
 거인의 술이되고
 학교에서 주는 학위인가
 높은 디그리 낮은 디그리가 되어
90도 보드카 8도 와인을 즐기는 우리
팔뚝에 찬 시계는 수업시간을 알리고
TV는 안방극장에서 바보상자로
 아쉬운 양 강의실로 향하네
 ㅋㅋ 웃는 뒷 모습
 또 무슨 재미있는 드라마가

2020년 10월

48. • 생명과 어릿광대 •

우리는 어릿광대
법정의 판관은 위그를 쓰고
개별적 구체적 정의를
정치가는 하회탈을 쓰고
공동체와 추상적 정의를

하회탈의 큰 그릇은
세상 모든 이를 모으고
어릿광대의 춤 덕으로
우리는 땅위에 모여 행복을
범죄인과 악당들은 지하로 밀으며
우리의 연극은 끝이 없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보는 사람들
실험실에서 실험용 비커를
들고 있는 사람들
넥타이와 하얀 와이셔츠의 회사원들
푸른 점퍼를 입은 블루칼라들
헤아리기 어려운 연극과 에너지
그 많은 연극과 자기 기만들은
시간의 심판을 받고
힘이 다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핑계를 대네
슬픔은 생명을 지키네
연극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게
슬픔은 창피함 눈치 보기가 되고
우리는 무대 위의 뼈에로
슬픔을 상실한 생명없는 존재
웃고만 있는 영정사진
하느님은 인간의 지혜를 벌리고
우리는 알게 되네

헤이 주드 노래 가사처럼 슬픈 노래는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고
5박형 형님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네
맘껏 슬퍼하라 맘껏 기뻐하라
영생의 징표를 받는 우리들
생명의 구김살은 십자가
우리의 구김살은
희생양 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네
사랑은 부활하고
찰나같은 세상에 생명의 축복이

2020년 10월

49. • 직장인과 모리배 •

하느님은 일본 하느님은 모리배
자꾸 우리들을 욕하네
병신이라고 빠가야로라고
일찍 깬 섬나라 일찍 일어난 새
일본은 우리네 직장인의 모습 직장인의 시간
오늘도 태양 아래 쪽발이가 되어 열심히
일터는 생명의 본부
법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일본풍 기업이름은 성공한 우리 회사들
이또오 히로부미는 일제의 상징
카스라 태프트 밀약은 일본의 엔진
끊임없는 이빨은 다시 또 다시 또
허물고 쌓고 모래성 같이 되어
하얀 부자 사쿠라 미국이 되어
금고에는 금이 가득
이력서에는 논문이 가득
일본은 하느님의 분재
태평양의 고도가 되어
동양과 서양의 실험실이 되고
동양척식회사는 동인도 회사
천황과 황제는 순수 그 자체
페이퍼 컴퍼니도 아니고
세속의 욕심은 대리인인 회사가
양심적인 지식인은 경응의숙
경성과 함께 의로운 숙부처럼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제가
내다 버린 분재 같은 의인
어찌된 일인지 잘 살아오던 이웃은
감정으로 감정으로
우리네 직장인은 한국인의 혼이 되고
지식인들은 조선책략을 펴드네
김구는 우리의 헤라클래스

김좌진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무기
안중근은 우리의 무게 우리의 자존심
단군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기쁨
동해물과 백두산은 우리의 육체
조소앙과 김원봉은 우리의 깡다귀
김두한은 불우한 시절의 박치기
종로는 의협들로 넘치고
그 한 켠에는
오랜 시간 직장인과 함께 한
청진동 해장국 집
낮은 종로서점
우리는 진시황 같이 되어
불로장생을 구하고
인생이라는 만리장성을 쌓네

2020년 10월

50. · 학교와 별 ·

나도 많이 늙었구나
유튜브를 틀어보니
부산시장에 출마하였다는 시험 동기
로버트 할리와 친하고
바다를 위하여 일했다네

바다는 생존을 위한 자원의 보고
항구는 전문가들의 모태
신세계의 사람들은 요크를 뉴욕이라 부르고
우리는 새로운 욕인가 허허 웃네

요크셔와 바크셔는 영국 돼지 우리네 생사람
바클레이는 영국 은행 사람들의 시간
욕을 잘하는지 말이 번지르한지
뉴욕은 정치가들의 고향
바클레이는 정치가들의 투쟁

갑자기 꺼진 체육과 예술의 광기
할리우드 당구장은 한산하고
로버트 할리는 요즘 뜸하네
아 미국 대선이구나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물
바다는 수 많은 사람들
항구는 우리의 모태 우리네 학교
은사님과 비슷한 이름의 시험 동기는
80년대 나스탈지아로

전문가는 유기천 선생님
대중의 하늘로부터 유기된 높은 하늘
미국법에 더하여 칸트와 헤겔을 말하고
바다는 많은 사람 세상 속 대중들

대중과 함께 진리를 구하다
안타깝게도 대형 트럭과 함께
강구진 선생님의 학교 시절 한 말씀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
아 뭐해 딴 사람들 공부하는데

학교는 항구 우리네 마음의 안식처
낮에 들러 본 학교는 옛 모습 그대로이고
책은 하늘의 안식처인가
밤에 바라본 하늘은 가장 빛난다는 북극성
전문가들은 책을 찾아 북을 찾아 극성이고
그 옆에는 묘한 하느님이 만들었나
신비로운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2020년 10월



51. • 이야기와 멩 때리기 •

누구는 백일장에서 환호하고
누구는 멩 때리기 대회뵤 승자가 되네
이야기는 번식의 조건 우리의 공동체
공동체 이야기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학회로 논문으로
동아리를 이루고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네 대중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민과 양식이 되어 TV와 신문으로
우리는 정치적 인물이 되고 교양을 얻네
친구와의 만남은 컨버세이션
컨버세이션은 짧은 이야기
말을 맞춰 보고 안부를 묻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
우리는 페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수 많은 표현의 장과 이야기들 속에서
하루의 저켤에 서 있네
우리네 이야기는 끝이 없고
분이 덜 풀린 사람들은 고소 고발로
입이 무슨 죄냐 표현의 자유다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는
힐링의 시간을 희구하고
급기야 멩 때리기 대회까지
서재는 우리의 안식처
우리들의 힐링시간
우리들의 멩 때리기
대마왕 같이 된 우리들은
그 많은 이야기를 담은 책 속에 파 묻히고
바디 프렌드를 친구 삼아
자연스럽게 잠이 드네
힐링의 시간이 끝난 우리는
다시 또 전문가의 사명으로
학생과 클라이언트를 찾고

환자와 상담하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우리네 대중으로
활인당의 홍길동처럼
의로운 도적이 되어
사람을 살리자 세상을 구하자
엄숙한 전문가의 시간은 다시 아침의 기도로
공정하기 위하여 눈을 가린 아스트라이어처럼
엄숙한 생명에의 선서 히포크라테스처럼
밤을 꼬박 세운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2020년 10월

52. • 당뇨와 배부른 거지 •

노년의 우리는 메디컬 매니아
서양 선생님은 심장과 피로 부터
동양 선생님은 위장과 담으로 부터
서양 선생님은 운동하라 심장을 뛰게 하라
동양 선생님은 만병의 원인으로 식사와 담의 건강을
서양 선생님은 당뇨는 피가 잘못되어서
동양 선생님은 당뇨는 소갈증이라네
서양 선생님은 연신 하트 하트 러브 러브
사람이 죽으니 심장이 멎었다고 하고
동양 선생님은 연신 해탈 해탈 충효 충효
사람이 죽으니 밥숟갈을 놓았다고 하네
당뇨는 노인병 노년의 동반자
주제를 알아라 무리할 수 없네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만이
당뇨는 불활성 에너지
노인의 울분 노인의 현실
나는 너의 에너지다
언젠가 광고와 함께
우리는 이웃을 돌아 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한탄하기도 하는 우리들
당뇨는 소갈증
풍성한 젊음은 말라가는 나무가 되고
잘 관리하는 당뇨는 문사들의 스타일
폭발하는 에너지는 선수촌으로
절제된 에너지는 글자로 목마름으로
원로원은 지혜의 샘터
독서실의 젊음이는 젊은 당뇨
당뇨는 문사의 시간 인고의 시간
묵직한 소 같이 된 우리의 피인지
몇 시간 뒤 독서실의 화장실은
소피 보는 사람들로

시간과 오줌은 당뇨측정의 기준이 되고
피가 나빠 에너지 소모가 잘 안된다네
당뇨는 불활성 에너지
우리는 노년의 배부른 거지
식도락 친구들의 권유에도 시큰둥
식욕은 달아나고 갈증과 알고 싶어요만 남아
이 종이장 저 종이장으로
내 종이장은 실형이네 집행유예네
네 종이장은 웨스트 로네 이코노미카네
하느님은 사람의 설계자
하느님은 인생의 설계자
진시황의 분서갱유는
종이장에 대한 우리의 심판
네로 황제의 웃음은
문명에 대한 우리의 희롱
우리는 하느님 우리는 설계자
우리는 종이장보다 사람
우리는 문명보다 자연

2020년 10월

53. • 시간과 사람 •

공간은 자연 시간은 사람
우리는 방송대학 지리 여행
네셔널 지오그래픽 매니아
아침의 자명종은 여지없이 우리를 깨우고
월요일 아침이 되어 한 주를 시작하네
시간은 우리의 시장과 노동
우리의 생존체계
서세동점 서양문물은
서기를 강요하고
단기는 뒷전으로
대정 몇년은 옛 판결에나
왕의 경제는 민주주의와 시장의 경제로
시간은 돈이다
법정이자율 이자제한법으로 씌름하고
변호사들은 타임 차지
시간은 착취다
시급 최소임금은 매년 골치거리
시간은 하느님의 삼청교육대
우리는 순화되어 하느님을 칭송하네
학교의 수업시간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50분 10분 휴식
야타족은 어림없고
병영의 시간은 어김없이
10시 취침 6시 기상
시급 주급 월급은 테일러와 포드의 지혜
연봉은 우리의 중산층 풍요의 혜택
세븐스 최후의 날을 믿고
일주일은 하느님의 수칙 메시지
월요일은 달
한 주를 시작하며 꿈을 꾸다는 몽데이
화요일은 불
담금질하는 튜브같이 길게 길게 하라는 튜즈데이

수요일은 물
웬걸 하면서 흘러가는 웬즈데이
목요일은 나무
목마른 나무가 되어 열심히 일한다는 써스데이
금요일은 돈
일주일을 튀기는 프라이 데이
토요일은 땅
땅위를 나는 새 같이 가벼운 새털데이
일요일은 글자대로 태양
하늘을 보며 조물주를 생각하는 선데이
군대 같은 시간은 이제 그만
노동 유연화는 우리의 왼쪽
프리랜서는 우리의 오른쪽
우리의 풍요는 주 5일제 주 4일제로
우리의 과학은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네
시간이 너에게 뭐냐
갑자기 묻는 하느님 소리에
한국인은 잠을깨네
오이씨디 통계 가장 많이 일하는 세계적 노예들
가장 많이 시간에 항거하는 최고의 자살율
우리 노동 왼쪽의 현실
실록이 못 되고 일기 같이 되버린 우리의 왕들
결실없는 시간들 우리의 오른쪽

2020년 10월

54. • 관보의 노래 •

툭 다운 보름 엮은 민주주의와 정부
학자들이 만든 신화
그 말에 혹하여 톱이 되고 싶었고
국사봉이 되었고 목민관이 되었네
관창은 어린 국사봉 만개한 어린 꽃
화랑은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
화랑대는 국가 동량의 산실
아관파천은 국가의 위기
하늘은 암흑이 되네
휴일의 오후는 지나 온 추억들
국자 돌림 주자 돌림의 지우들
일찍 가버린 국씨 성의 상종이
국씨 성의 민수 김씨 성의 진국이
대학들 절친은 아니나 다를까
20년 30년을 국민과 함께
관보의 노래가 되네
관보의 생명은 사명감
네로는 브루터스의 후예던가
어찌 4자이고 어찌 로자라던가
지난 논문 네편의 제목을 돌아보네
도시는 불타고 폭군 네로는 기뻐하네
원숭이라는 별명의 서울 시장은
어찌 그리 허망하게
네로를 조금만 빼 닮았더라도
노씨 성의 전직 대통령
국민과 함께 한다는 동기 이름대로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했더라면
국사봉의 운명도 하느님 따라 제각기
고령화 사회는 양로원의 또 다른 풍경
할아버지 상할아버지가 되어
서로를 알게 되고
연수원 시절의 선생과 학생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 되어
시대의 아픔은 시로 시인으로
주씨 성 광일이는 상할아버지 시인
이 시대의 우리 가슴
주홍글씨 같은 주인의 설움은 시로 승화되고
그 학습열은 노년에도 여전하여
멋쟁이 서양 노인이라는
이름의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바클레이 영혼이었나
노년의 총명함은 외국 변호사 시험까지
양로원은 정관계 재계 학계
세상 각계 각층의 사람들
수 많은 신들로 가득차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네
회상은 이제 그만
잠시 켜 TV에는 관보의 노래가
드라마 제 4공화국이

2020년 10월

55. • 이치로와 생활인 •

TV 앞의 우리는
인기 연예인과 함께 만원의 행복으로
비상한 생존력에 놀라네
르네쌍스는 신에서 세속의 왕으로
우리는 해방되어 머리가 굽어지고
이치를 말하네
아는 것이 힘이다인가
우리는 힘센 쌍놈이 되고
힘센 쌍놈은 상도 속의 우리들
이치는 소비자에게도
소비자는 왕이다
최소비용은 생활인의 구호
르네쌍스는 계산인지 컴퓨터인지
사람의 공부 버릇인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염가세일을 좋아하고
어느 죽은 재벌 지갑에는 달랑 5만원
우리는 생활인 코는 사람의 중심
언젠가 코로나 말장난은 사회적 지적거리
이제는 만성이 되어 돌아보며 웃네
코로나는 가진 것 없고 코만 남은 우리들
이퀄라이저의 행복
병을 통한 하느님의 은혜
코브라는 무서운 뱀 게임의 승자
아난티코브는 아이들의 어려움
코브라가 못된 영혼
기득권자들의 전용 휴양소
복잡한 생활인의 즐거움은 아침의 커피 한잔
평소 인간성은 하느님에게 알려져
너는 큰 사람 커피가 되고
너는 못 된 사람 코피가 되네
약육강식의 국제사회는 이치보다는 힘

커피 아난은 대의를 품은
우리의 사무총장 우리들의 커피
커피 아나요 묻는 듯 인상 짓네
야구선수 이치로인가
일본의 노래는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우리의 노래는 독도경비대 홀로아리랑
드라마 상도는 왜 그런 도짜인지
민나 도르부데쓰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이치
우리는 도의를 아는 요셉
언젠가 이경실은 경제를 잃었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네 유명한 대사를 남기고
우리의 공부 버릇은
최소비용으로 가성비로
옆에는 할인 특가 세일 광고들
연신 대조해 보고 비교해 보고
어느 죽은 재벌 지갑속에는 달랑 5만원
독도는 홀로아리랑
착한 사람은 아침의 커피 한잔
못된 사람은 아침부터 쌍화차
우리의 말장난은 노래처럼 유머레스크

2020년 10월

56. • 노교수의 하루 •

왼쪽은 솜사탕 오른쪽은 철강왕
유원지의 연인들은 솜사탕을 들고 킁킁대고
노년의 철강왕은 누구처럼 강가의 돌맹이
왼쪽은 학교 오른쪽은 졸업장
학교의 아침은 끊임없고
졸업장은 기득권이 되네
왼쪽은 컴퓨터 오른쪽은 귀금속
왼쪽 가슴의 우리는 계산하고 계획하고
오른쪽 가슴의 우리는 경매장을 기웃 기웃
왼쪽은 아드레날린 오른쪽은 엔돌핀
이상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인가
경매는 행복의 호르몬
왼쪽은 이상 오른쪽은 우리의 현실
세상은 말하네
이상은 젊은이
현실은 노년의 우리
늙은 이상 늙은 좌파는 세상의 바보
젊은 현실 젊은 우파는 세상의 사생아
왼쪽은 큰 정부 오른쪽은 시장
큰 정부는 구차하고
시장에는 모리배들이
왼쪽은 환경 오른쪽은 개발
그림같은 그린피스는 왼쪽이 되고
오른쪽은 생산과 시장으로
그린벨트는 왼쪽의 자랑
그린벨트 모리배는 러시아 마피아
인류의 풍요는 오른쪽의 자랑
불량한 다국적 기업은 착취와 인권침해
왼쪽은 퍼블릭 오른쪽은 프라이빗
세상은 실험실이 되고
재생산되어 리퍼블릭이 되었다

모나기가 되었다
선조 나폴레옹은 황제
후손 나폴레옹은 대통령
옆 집 제일 높은 머리는
대법원도 아니고 프라이비 카운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실험실 같은 세상
백발의 노교수는 퍼브릭과 프라이빗을 왔다 갔다
우리는 독립된 세계이다
누구의 권리는 이렇고 누구의 의무는 저렇고
재산과 가족은 어떻게 되나
초롱초롱한 사법 시간의 학생들
권력과 법은 어떻게 되나
초롱초롱한 공법시간의 학생들
국가도 학교도
재벌기업도 유명인도
법 안의 실존이 되어
법정 판사는 피고 국가
피고 학교법인 출석하였나요
오랫 동안 가보지 못한 법정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유튜브 변호사
대한민국 사법부는 망했다네
학교 사진첩에는 오래되어 빛 바랜
옆 법원 견학실습 사진이

2020년 10월

57. • 게오르규와 아리랑 •

게르만은 황성의 힘센 황소인가
이웃을 위협하는 힘의 상징
우리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어느 대학 이름처럼
넥타이를 매고 예의를 갖춘 일꾼들
어느 대학 이름처럼
앞으로 앞으로 소처럼 소처럼
주말의 우리는 뒤로
한 주를 돌아 보며 흐뭇해 하네
게오르규는 게르만의 오만을 증언하네
게르만은 뒤늦은 거인 실기한 거인
게오르규의 날카로운 눈으로
게르만은 적나라하게 규명되고
좋아 보세 올라 보세 오르세 미술관을 그리는
게르만에게는 황포와 잔인만이
서양세계는 종언을 고하고
우리에게는 게오르규의 25시
게오르규의 25시는 주말의 아포칼립스
광란의 에게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일본과 독일의 황포는 새로운 질서를
칸트와 켈젠은 유엔탄생의 철학이 되고
친구인 파운드는 유엔탄생의 자원이 되네
우리는 독일법을 모범으로 하고
게오르규의 절망은 법을 통하여 이상이 되네
무릎 꿇은 독일 수상은
평화의 상징이 되네
이제사 오르네
게오르규의 25시는
한국인 마음에도 깃들어
허무와 절망은 우리 영혼의 한 부분
캠퍼스의 교수들은
시간을 끌고 가는 견마지로

개들이 모여 있나 소들이 모여있나
교수의 서양 이름은 개드리
교수의 동양 이름은 소지섭 소병철
문과 교수는 리어카를 끄는 노인
해골 물을 마신 원효 같이
대오각성 하기도 하고
홀로 아리랑 같이 되어
우리의 학문은 영그네
아리랑은 봄의 아지랭이
우리의 오르세 미술
이과 교수 실험실에는
다국적 그림 같은 교수와 학생들
게오르규의 절망은
원효와 아지랭이 같은
문과 교수들의 시간
게오르규의 허무는
지구는 한 가족이라는
이과 교수들의 시간
월요일 아침은 송창식 노래처럼
동해의 태양이 떠오르네

2020년 10월

58. • 로마와 터키 •

고독한 신들의 나라
담은 높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공갈 협박
거리의 핵폭탄
역사는 이야기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경외
주말의 우리는 역사 매니아
지리 매니아가 되네
역사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지난 이야기는 이웃의 높은 담을 허물고
핵폭탄은 과자 같이 되어
공갈 협박 같은 인상은 친절한 이웃으로
못지마 폭행 못지마 살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로마 이야기는 언젠가 일본 선생
로마의 개살 대왕은 서양 지혜의 상징
미련하고 뚱뚱한 브루터스는 그만
서양인들은 개를 보호하자 보신탄은 야만인
개들이 모여 있나
언젠가 소개받은 서양 교수 이름은 개드리
한국인에겐 개살은 파파라치
개살구는 비아냥 보신탄은 양반음식
파파라치 같은 조서관은
곰이라고 정체를 감추네
로마는 라틴의 정서
작고 예쁜 깡통같은 이미지에
지혜와 문명이
왕도와 귀족의 기품이 정의와 법으로
크고 힘센 게르만은 야만족
킹크랩 같은 위압감으로 게르마니아의 시대가
옆으로 옆으로 유럽은 게 걸음
클로비스는 루이가 되고
루이는 클로비스가 되네

이사벨 여왕은 라틴의 정서가 되어
동인 익스프레스도 아니고
이사를 가는 것이 살길이라네
콜롬부스의 달걀은 바다 사람의 호기
해적 드레이크는 영국 해군의 아버지
알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시대의 서곡
대륙은 루이가 되고
바다는 알리자베스가 되었네
로마는 서쪽과 동쪽으로
서쪽은 단종 같은 짧은 운명
동쪽은 오래 남아
우리에게 비잔틴 문명과 터키를
한국의 오늘은 우리의 일터
주말의 한국은 우리의 쉼터
비잔틴 문명은 비 내리는 고모령
잔인하게 남아 있는 라틴 문명
정치와 법은 우리의 정의
법대로 되는 사회인가
주말의 우리는 우리 터의 열쇠를 그리네
터키로 터키로

2020년 10월

59. • 전봇대와 산 •

나는 자연인이라는 은퇴한 노인의 삶
산은 노인의 전봇대
수력발전 같은 책과 논문집들
화력발전 같은 수험서
원자력 발전 같은 돈과 출세
모두 일장춘몽이 되고
산은 노인의 쉼터
엉터리 같은 전봇대
이산 저산 연결하여
꺼져 가는 인생에 마지막 파워를
몽블랑은 꿈을 꾸는 낭군 같고
에베레스트는 S자 학위이름 같이 세상에서 가장 높네
로키산은 바위 같이 굳은 의지
황산은 동양인을 대표하고
태산은 오랜 세월 쌓여 온 동양의 유산
킬리만자로는 마라톤과 같은 긴 인생
한라산은 한국인이 커지는 산
백두산은 사심을 버린 노인 같이 위대한 산
설악은 우리의 경쟁 배설에는 시간과 책임이
금강은 돈의 위력 같고 우리는 부를 향하네
묘향산은 신비한 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학문과 예술을 숭상한다는 동송동은 과거가 되어
관악산과 캠퍼스는 말 잘 듣는 공무원 양성소
크고 광대한 지리산은 길고도 긴 우리네 인생
잠시 켜 본 모바일 폰
단톡방에는 산악인 모임 사진 속 목로주점
메시지에는 교학팀에서 보내 온 중간고사 안내 문자
아직 남은 우리네 시간과 책임을 일깨우네
주섬 주섬 책을 펴들고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고 전기가 올까
이 문제를 내면 감전사할지 모른다
소꿉장난 같은 노 교수의 하루

목로주점에는 막걸리와 우리의 혼이

2030년 10월

60. • 노동요와 대한민국 •

학자들은 진리를 구하고
세상은 크고 우스꽝스러운
하느님의 피조물
학자들은 밀알 같이 소금같이
소고기 한근 10킬로 쌀가마도 아니고
어찌 이름은 그램인가
왼쪽 진리를 향하는 학자 이름은 그램씨
물건보다 사람이야
역시 사람인지 김씨 이씨 같이 씨 자가 붙었구나
모순과 정의 이상사회를 말하네
오른쪽 진리를 구하는 학자이름은 밀그램
밀방아간 같은 세상 물건 같은 세상
물건이 사고 팔리는 원리를 말하네
세상은 우스꽝스럽게 생긴 도자기
오른쪽 세상은 앵벌이 하느님
우리는 아이가 되고 물건이 되고
나는 너무 부자야
장학재단을 만들고
아프리카 난민 구호금을 쾌척하네
커져 버린 아이들은 하느님에 대들고
큰 머리가 되어 디제이 디오씨
노래처럼 춤을 추는 세상
소비자가 되어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노동자가 되어 80년대 운동권 노래
모성이 되어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농부가 되어 노동요를 합창하네
왼쪽 세상은 가계부 하느님
우리는 소비와 평등을 생각하네
누군 금수저 누군 흙수저
착취를 말하는 학자들은
자기 손으로 채소를 기르고
환경을 걱정하는 학자들은

채식주의자가 되네
커져 버린 생각들은
체 게바라가 되어
킹 크랩같이 포효하고
어머니의 권위 같이 되어
중국을 농업 사회주의로
정체가 뭐냐 큐바의 지도자는
연신 까스를 내뿜네

2020년 10월



61. · 가을 하늘 ·

김종서는 백두산 호랑이
세조 대왕은 이유
엄한 아버지 밑에서
공부의 대명사가 된
세종대왕 이도는 나 몰라라
권력의 화신 리바이아던 처럼
반인반수 괴물이 되어
피를 보고 잔인한 왕도를
부드러운 왕이란 이름은 공수표
남이와 귀성군은 우리의 오른쪽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품
재승박덕인가
남이는 짧은 생애의 운명이 되고
한남동의 교훈으로 남네
귀성군의 후예인가
말없는 다수는 귀성군 같이 되어
가늘고 길게 세상의 호사를 구하고
오후의 직장 책상 속
몰래 감춰 둔 스닉스 초코렛을 즐기네
망이와 망소이는 우리의 왼쪽
부곡은 부자들의 계곡인가
뼈까번쩍한 우리네 물질
재벌개혁을 외치며
부정부패 적폐를 외치며
들고 일어나네
양가주망을 외치는 사람들은
참여연대를 만들고
경실련이 되어 경제정의를 부르짖네
울사들은 민변으로 우리법 연구회로
수 많은 귀성군은 꿀먹은 병어리 같이 되어
매도되고 욕 먹는 세상
그래 왼쪽 오른쪽 얼마나 높게 되었소

추궁하는 하느님 목소리에 할 말을 잃어
부활한 백두산 호랑이
말을 탄 백두혈통
에베레스트의 고상돈 같은 영혼이 되어 버리고
일찍 하늘을 뜬 송파 세모녀 처럼
가늘고 긴 하늘의 고사리가 되었다네
음악처럼 인퍼르노가 되어
캉캉춤에 천당을 찾네
고개 들어 물끄러미 바라 본 하늘은
천당인지 하늘보리인지
밤의 아귀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천고마비의 높은 가을 하늘이
이산 저산으로 노인을 유혹하네
내일은 가까운 산 단풍놀이라도 가볼까

2020년 10월

62. • 알츠하이머와 다운증후군 •

근육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복
노인의 근력을 말하고
TV속 파닥파닥하는 심근에 경외하네
알은 우리의 엔진 우리의 저장소
팔을 들어 알통을 자랑하고
갓 구운 쭈꾸미를 즐기네
하느님은 엔돌핀과 아드레날린
엔돌핀은 우리의 알
아드레날린은 시간의 정의 하느님의 플랜
근육이 되어라 근육이 되어라
뒤 처진 이들은 옛 시절의 사람이 되고
알츠하이머의 심판을
젊은 시절은 저는 알인데 뭐가 높나요
노년의 알은 쭈어 들어 기억력은 쇠퇴하네
알츠하이머는 치매
다운증후군의 일종이 되어
일어선 이층 사람들이 남인양
세월의 심판은 여지없고
그렇게 알겠다는 알리도
결국 노년의 알츠하이머
위대한 복서일망절
높은 하느님을 이길 수 없고
알씨 동영상은 기록에 불과하네
알은 알라 알라가 되어 이승의 종교가 되고
주 예수 희생양 앞에서 우락 부락
알은 알탕이 되어 우리네 점심이 되고
컴퓨터의 알집은 우리를 편하게 하네
알은 알파벳이 되어 집앞 교회 간판이 되고
교회의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네
하느님의 장난은 이무기와 용으로
이근은 왜 이근인지
무슨 훈련을 받아 저리 근육이

단백질은 생명과 장수라는 일본 선생
그 상징이 되어 버렸나
용자 돌림의 친구들 강용석 김용호는
용의 대표가 되어 연신 이근은 가짜 근육이라네
저녁의 유튜브에는 우리의 작은 일상이
수복과 장수를 바라는 우리들
국제거래법은 탄탄해져 이근이 되었나
결혼한 용들은 행복하게 사나
그러니까 알탕 먹고 탕자 탕자 놀지 말랬잖아
평소 여편네에게도 신경쓰고
크크크 이웃에서 들리는 묘한 웃음 소리

2020년 10월

63. • 독일과 독도 •

독일은 하느님의 실험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불 같고
마치 하늘의 해는 하나라는 듯이 오만하네
독일의 영화는 부처님 부자 아내로
독일의 근육은 차범근 힘차고 용맹하네
하느님의 실험은 요정
마치 드라마 부잣집 딸의 이한우와 누구처럼
독도는 마치 독일의 오피스 같고
독일은 생각하네
요정은 독일의 오만 독일의 일생
독일은 패기의 상징 세상의 밑거름
거듭된 하느님의 실험은
급기야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맨하탄 프로젝트로
독일은 유엔을 낳고
하느님은 빙긋이 웃고 있네
독도는 아직도 남아
우리는 독도는 한국땅 노래를
저쪽은 독도는 일본땅 국제법 노래를
하느님의 실험은 알 수 없는 맘이 되어
어느 노 교수의 천사와 요정이 되고
독일 같이 되버린 노 교수의 마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의 유일한 해 같이 되네
하느님은 마지막 승자
천사와 요정의 입을 빌려 말하네
다 먹고 다 살았어
하느님의 소리에 잠을 깬 독도
자기소개 동영상을 만들고
이력서를 매만지고
자서전을 구상하네
스탈린 같이 되어 버린 아침

이웃과 우리네 분향소 향내음만 모락 모락
다먹고 다 살았어
뼈만 남았다는 요정의 소리에
다시 돌아 본 동영상
분향소의 한 장면인가
미리 봐 둔 가묘인가
처음은 콧수염을 단 독재자 스탈린
다음은 박물관의 어느 부장품들
마지막은 한국동란 전사자 유해 같네
새벽의 우리는 독도를 탈출하고
푸틴이 잘 할까
독려 미러 외교관계는 어떻다네
우리 대사는 왜 그런 말을
빙빙 도는 생각속에 우국지사가 되네
우리는 독도를 지나 울릉도로
동해의 푸른 물을 넘어 삼척으로 횡성으로
저녁의 끝은 서라벌의 휘황 찬 강남거리
우리네 인생은 기적소리 가득한 서울역

2020년 10월

64. • 지하철과 도서관 •

지하철은 우리의 내장
우리의 무게
이리 저리 얽힌 노선도는
웬만한 교과서보다 복잡하고
사람들은 눈을 지긋이 감고
지중해의 철학자같이 상념 속으로
치기 어린 젊은이는 마치 옆 아가씨
향수 냄새가 즐겁다는 듯이
포근한 인상으로 잠들어 있네
도서관은 학문의 상징
편당은 대학의 연구력
누가 논문이 많고 누가 책이 많은가
인용빈도는 어떻게
라이덴으로 신문사로
젊은이는 진학가이드를 찾고
유학원장은 정보를 모아
레퍼런스를 만들어 알리네
교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도서관
부릅뜬 눈은 책상 앞의 책에 꽂혀
안광은 지배를 철하네
우리는 투탄카멘 미이라 같이 무섭게 변하고
아프리카 식인종처럼 식성이 왕성하여
나는 네가 되고 너는 내가 되어
무아지경 속 독서의 환희에
나는 유튜브 자기 소개 동영상
스탈린 같은 교수다
나는 한개다 나는 최고대학이다
넌지시 살포시 매만지고
갑자기 개 같이 되어 발악도 해 보고
헛깨비 같던 시간은 진지해 주네
저주와 발악의 시간은 우리의 저력이 되고

우리의 흑시간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네
대포통장은 저리 가라
도서관의 시간은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밤시간의 도서관은 나바론 요새가 되네
젊은이의 청바지는 요새속
치명적 무기같이 변하고
아포칼립스의 밤인가
캠퍼스를 걸어 귀가하는 젊은 대학생
남성의 향이 물씬한 밤 벚꽃 내음이 정겹네
지하철과 도서관의 지난 추억
추억을 헤매다 얼른 깬 선잠
다음 역은 한티역입니다
아릿따운 아가씨의 목소리
옆에는 출판사 사장님의 추석선물
장모님이 가져 가라는 10킬로 들이 쌀
아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고향의 포근함이 몰려오네

2020년 10월

65. • 소프트웨어 •

신은 우리의 소프트웨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우리의 모범이 되고
교훈을 주고 귀감이 되네
누구의 명판결
어떤 기업인의 비사 그의 성공담
대기자 칼럼 컬렉션
위대한 정치가의 일생기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네
나는 저 법관을 모범삼고
나는 선배 기자에게 배웠고
아버지의 기업정신은 오늘의 내가 되고
어떤 정치가는 정치인생의 좌표가 되네
시장과 환경은 우리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
시장은 치열한 현재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환경은 하느님의 경고
우리와 자손들의 생명과 건강
금수저는 조상 덕
흙수저는 자수성가
신과 소프트웨어 탄생의 배경이 되고
산림욕의 쾌적함은 환경 덕
일본 수산물 금수는 자수성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 되네
발전론자와 환경론자는
지구를 구하겠다는 독수리 5형제
국제사회는 힘이 없고
강대국들은 자국 이기주의가 되어
환경협약 이행은 위협받고
통상관리체제는 이상을 말할 뿐
무역전쟁은 여전하네

세계인의 하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우리는 영터리 컴퓨터가 되어
워크 어라운드 리더쉽인양
여기 저기 기웃거리네
어떤 신은 안보와 공무원 살해를 따지고
어떤 신은 속지 말자 국제법은 일본의 노래라 하고
어떤 신은 아예 하드웨어를 바꿔야 한다네
말년 노스탈지아 같은 노 교수의 아침
거울에 비친 오래 되고 예러 투성이 컴퓨터
신밧드야 신밧드야 어디로 가니
언젠가 노래 가사처럼
오늘은 어떤 신을 받들까
문 앞에 놓여진 신발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네

2020년 10월

66. • 페디그리 •

유한한 생명들
자손을 찾고 선조를 추모하네
동양은 족보 서양은 페디그리
성경은 구전되어 고대의 역사서가 되고
월시 페디그리가 되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요셉을 요셉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우리는 선조가 되고
자손이 되네
선생님은 농사꾼
영근 벼 탐스러운 사과
축사의 송아지는 선생님의 보람
선생님의 기대 선생님의 후손
영근 벼는 자라 선생님이 되고
다시 또 수확의 가을을 이곳이 바라보네
우리 벼가 잘 팔리네
너희 소가 잘 팔리네
선생님들은 보람에 살고
돌고 도는 지구처럼
윤회하는 우리 세상
페디그리는 우리의 경배
나는 어떤 선생덕으로 선생이 되고
그 선생은 또 누구를 퍼트리네
선생들의 페디고리는 그대로
귀족원이 되고
수장은 그레고리 교황같이 되어
다시 또 성경 같은 역사를 쓰고 있네
우리들은 미꼬미 배움의 수혜자
선생님이 창조한 추수기 벼
우 시장의 누런 황소
가락동 농산물 시장의 잘 읽은 사과

선생님은 물 주는 농부
농약치는 과수원 일꾼
선생님은 씨름장의 장사
상금은 누런 황소
언제나 우리도 선생님이 될까
국내 박사가 선진국 대학 교수가 되고
연구자 사이트에는 공동저술 논문이 가득
외국인 학생은 배우겠다고 옆에 있네
선생님들은 세계화의 첨병
신문에서 낮 익은 경제학자
언젠가 아내로부터 소개 받은 심리학자
전문분야에서 국가의 권위를 높이고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BTS처럼 남진 나훈아 처럼
잠시 들러 본 연구실 옆 교수휴게실
신문에는 교수 임용비리 기사가
교수는 성직이라는 선배님 말씀
수확한 벼들은 공정을 부르 짓네
언젠가 기자선생 이름이었던가
허무호 같이 되버린 허탈한 귀족원
언젠가 신문의 지난한 교황선출 기사였던가
사기극처럼 되어 버린 콘클라베
화학방정식은 아침의 생명
여지없이 컴퓨터처럼 안에 깃들고
은퇴한 노 교수는 시인이 되네
개인적 자아를 보편적 자아로
시간이 된 선생들은 강의실로 연구실로
개인적 과학을 보편적 과학으로

2020년 10월

67. • 인사동 발라드 •

인사동은 한국인의 자랑
작은 지구촌
고달픈 영혼들의 해후 장소
사람은 인력이 되고

노동은 우리의 삶
인사하고 미소짓는
지구촌 사람들로 인사동은 꼭 차고
동방예의지국의 보루인양
불에 타버린 송례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네

인사동은 발라드
인사동은 블루스
누구는 넥타이를 매고
누구는 청바지
모두가 모여 우리의 노동을 찬미하네
별과 힘이 합일하고
인간의 예와 자존심이 공존하는 세계
인사동은 피곤에 지친 우리들의 고향

인사동은 발라드
인사동은 블루스
제우스 같이 신들의 제왕이 되어
교육과 학문의 신 미네르바 같은
아카데미 사람들도
지혜의 신 아테나 같은 화이트 칼라도
힘의 신 헤라클래스 같은 블루 칼라도
하나 같이 제우스 신을 칭송하네

신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세계 우리의 우주

재능 정력 리더쉽은 신들의 덕목
우리는 정계 관계에서
재계 학계 언론계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보건과 경제는 신의 뜻
우리는 정치를 말하고 공정사회를 그리네
신은 우리네 사는 동안 인생의 희비를 만들고
우리는 죽어 별이 되네

그 많은 삶들은 신과 동행한 인생의 자이언트
그 많은 별들은 우리가 희구하는 종착지
그 많은 청바지는 우리네 물질이 되고
그 많은 넥타이는 우리의 정신이 되네

인사동의 10월은 생명이 합일하고
풍요를 나누는 시간
우리는 어우러져 블루스가 되고
발라드를 배우네
제우스 신의 은총을 그리네

인사동 옆 동네에는
고시계사 고시연구사 간판
어린 왕자들의 날개 짓
신이 되고 별이 되고
고시계사는 어린 정관계
고시연구사는 어린 학계
사람들은 어린 정관계 어린 학계가
로스쿨로 통합되어 시원하다고 하네

노 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공시생 생각에 정신이 번쩍
짜장면이라도 사주자
연구재단 소식

노벨상 소식을 전하는
신문을 황급히 접고
조용히 캠퍼스 모퉁이
황금추관으로 발길을 돌리네

돌아 오는 발걸음은 흥가분하고
귀에 낀 워크맨에는
프랑스 출신 가수의 감미로운 노래
코로나 시대 우리 같은 전자음악이

2020년 10월

68. • 재미와 배짱이 •

휴일의 안식은 새로운 한 주가 되고
오랜 경력의 노 교수를 바라보는 학생들
나이가 들어 원숙해졌네
아니 맛이 간 것 아닐까
킁킁 대며 웃는 강의실 풍경
작은 세계 미시론
배짱이는 재미를 비웃지만
재미는 아랑곳 않고 끊임없네
재미는 공급곡선
배짱이는 수요곡선
우리의 소비는 노래부르는 배짱이
우리의 공장은 쉬지 않는 재미굴
작은 세계는 큰 세계가 되고
우리의 현실 거시론적 세계관으로
재미와 배짱이는
늑대와 양이 되고
호랑이와 소가 되네
우직한 소는 우리의 작은 진실
호랑이는 소를 채근하는 공장장
물질의 풍요는 늑대 같은 여피족이 되고
고급 코트를 입고 양 같이 양순해 진
우리는 데스크 오피서 테크노크라트
자본주의는 장난꾸러기
세상은 하느님이 만든 유원지
그 안에는 생사를 건 경제전쟁이
미국 채권은 양키 본드가 되고
일본 채권은 사무라이 본드
영국 채권은 불독 본드가 되네
칼보조항은 경제주권을 부르짖고
시장보다는 우리네 정치 우리네 경제 정의를
언젠가 영화였던가
편의 전쟁 타짜는 돈 연구인을 흥분시키고

통화정책에서 가계경제까지
무지를 일깨우네
후벼파는 시민들은 문통을 뭉님이라 부르고
사람들은 뭉님을 타짜의 호구라고 팔아 넘기네
사람으론 안된다
개미가 되자 소가 되자
양이 잘해야 글로벌 발전을 따라 가지
되내이고 되내이네
케이블 채널 명품 편집숍 장면의
귀여운 늑대 최양락
어머 너무 비싸 이백만원 가까운
명품 코트에 놀라고
직업채널 성공신화 속
호랑이 같던 사장님은
토끼 같은 모습으로
인생의 눈물과 환희를 말하네
킵킵대던 강의실의 풍경은
어느덧 엄숙해지고
교수와 학생들은 마음을 모으네
양키처럼 후벼파자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자
사무라이처럼 날카롭자
이제 우리도 채권 이름을
붉은 악마 레드데빌 본드가 좋을까

2020년 10월

69. • 신화와 낚시 •

하늘은 우리의 경외
하느님은 우리의 신
이집트는 태양신에 경배하고
부처님 석가모니는 원시 경제 경배의 대상
우리는 여호와 자애로운 성모마리아의 품으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종교는 우리의 넋 정신의 쉼터
종교는 부패 종교인은 기망과 축재
착취를 일삼고
똑똑한 왕은 종교와 다투네
소격서를 철폐하고
내셔널 처치를 선포하고
부패한 종교는 전쟁의 참화 속에 새로운 종교로
세속의 왕은 새로운 신이 되네
종교는 아편 종교인은 아편쟁이
이제는 사회과학이 우리의 넋이 되어
이것 저것 많이 아는 학자는
우리의 현실을 일깨우네
가진 자들의 착취를
사회과학은 명색이 과학이라
내셔널 처치를 넘어
인터내셔널로 인터내셔널로
이념이 되고 준종교가 되어
토끼반도는 그 희생양이 되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김흥국은 헨리 왕의 한국판인가
근엄한 콧수염을 달고
호랑나비 호랑나비 노래하네
옆에는 흥국생명 이자율 높다고
좋아하는 아내
나라는 흥에 겁고
국보자매 공효진은 춤추네

낚시는 여유의 상징
 낚시하는 우리들은 시간과 신분을 즐기네
 지나온 인생사가 신자 돌림의 파노라마로
 상중 같고 감옥 같은 인생살이
 죽음을 초월한 치열한 예술쟁이 신상옥
 행정 전문가로 일본 관료에서 부총리까지
 확 그냥 신분의 대명사 신현확
 준수한 월급쟁이 우리의 이웃 배우 신현준
 대비되는 옛날과 현재 배우 친구
 구 시대의 유럽 드보르작의 신세계 찬미
 가난은 저 멀리 휘황찬란한 신세계 백화점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천지 교회
 교주는 노년의 환상
 휴일 저녁의 쓸쓸함은
 추운 겨울 저녁 인덕원 근처
 어느 구석진 고기집의 정서
 내셔널 처치래요 이데아래요
 어느 중년의 해바라기는
 국보자매가 되고 싶어
 자꾸 답을 강요하면서
 다음 정부를 그리네
 주일의 한 낮은 서산 목장 근처 유원지
 낚싯대를 드리운 한태공은
 여유롭게 시간을 낚고 있네
 중년의 해바라기 같은 큰 고기가
 아니 해바라기를 키우는 해 같은 월척이
 자연 속에 파묻혀 시간가는 줄 모르네
 신화가 만들어온 인간세계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유명 의학저널 마저 철회되는 수많은 페이크 논문
 빅뱅은 은하계의 발견으로 창조론인지 진화론인지
 신은 왕으로 왕은 시민으로 시장으로
 시장은 인민국가로 계획경제로
 믿음은 시대의 신화에 불과하고

우리 믿음의 종착역은 희생
희생양 주 예수
신화의 종착역은 끊임없는 설법과 문답
석사과정 학도처럼 석가모니처럼

2020년 10월

70. • 마굿간과 연금공단 •

하느님의 수고는 우리네 일주일
첻 바퀴 도는 시장과 일터의 삶 속에서
은혜로운 휴일은 어김없이 돌아 오고
한 주간의 피로는 저 멀리
하느님은 주 예수
가장 많이 닦았네
태어난 곳은 마굿간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는 세상들
주 예수는 하느님의 은총
샘 쌍둥이는 하느님의 저주
서로 샘을 내었나 전생의 원수인가
한몸으로 태어난 비극적 운명
분리안된 두 생명은
우리 물질과 시장의 상징
호모섹슈얼 같이 되어 버렸네
아담과 이브는 하느님의 뜻
샘 쌍둥이는 인간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
하느님은 우리의 신
성경은 인간과 물질
하느님의 뜻은 카인과 아벨로
비정한 시장과 생존경쟁으로
샘 쌍둥이는 분리수술을 받아
아벨과 아벨로 카인과 카인으로
수많은 우리가 되어 통일 상법전이 되고
오른 쪽은 물건 같은 우리
시장은 비타민이 되었다
독약이 되었다
왼쪽은 군인같은 우리
경제마저 자유가 아니고
지휘와 복종
군대같은 시장이 되네
시장의 한 쪽은

비타민이 되어 우리의 살 맛이 되고
시장의 저쪽은 독배를 든 탈락자들의 아우성
사람이 먼저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신형 자동차 신형 컴퓨터 보다 사람을 앞세웠지만
냉엄한 현실은 퇴락하는 현실 지표들
그 결과는 칭송받지 못하네
아무래도 공정사회는 잡을 수 없는 환상
우리의 앞날은
군기 빠지고 말 안 들으면 배급 없을 줄 알아
요즈음 생존경쟁은 나눠먹기에 적응하기가 되어
복잡한 사회법 지원금 수혜요건을 헤매고 있고
노년의 은퇴 교수는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펴보네
부처님과 주 예수는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주말은 이쪽 저쪽으로
황색은 산을 찾아 절간과 부처님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의 은덕으로 살아 온 날들에 감사하네
백색 흑색은 우리의 희생양 주 예수
용서 받고 앞으로 앞으로

2020년 10월



71. • 무관의 제왕 •

주말의 우리들은 그림 같은 골프장
사장님과 이사들
총장님과 보직들
통령님과 참모들
무리를 이루어 라운딩을 하고 있고
골프 황제는 타이거 우즈
하느님이 보내신 선물
우즈 이름처럼
일송정 푸른 솔 같은 우리 직장인의 삶
타이거란 이름처럼
휘두르는 골프채는 직장인의 박력
호랑이 같은 직권이 되고
총장보다 잘 치면 안돼
통령이 눈 빛을 주네
연신 사장님 사장님 실력을 감추고
라운딩이 끝난 식사 시간은 웃음으로 가득
다음날 통령의 직권은 여지 없이 행사되고
허탈한 웃음과 함께 지방의 한식으로
그 많은 우리의 즐거웠던 시간들
조치훈 조훈현은 이창호 이세돌로
힘차게 돌을 놓던 이세돌은
이제 신진서가 되었다네
바둑은 스포츠 끈질김의 미학
원로는 이름처럼 신진으로 바뀌고
젊은 챔피언을 거부할 수 없다네
우리의 주말은 산으로 들로
높은데에 올라야 고상한 돈이 되나
에베레스트 정상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의 등산인 고상돈
그렇게 잘 맞추나 양궁의 여왕 기보배
완벽하게 정갈한 착지 체조 영웅 양학선
기와 예의 순간 순간들

주말의 우리들은 무관의 제왕이 되어
골프장의 라운딩 그룹이 되고
도시락을 싸들고 야구장 배구장으로
루이자 글력은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에게는
글로 행운을 얻은걸로 들리고
소박한 경력 소탈한 이미지로
문명의 심벌이 되었네
한달전 시작한 초보 시인은 무관의 제왕
개인적 자아를 보편적 자아로
글력의 수상 소식은 시인을 흥분시키네
광주 거리 저편 술집 긴 간판 이름
세상은 나에게 술 한잔 권하지 않았네
폐북을 편 시인은 노년의 백건우 같이 되어
시는 하느님이 내린 한잔 술이 되고
시가 주는 즐거움에 감사하네
월계관을 쓴 손기정 같이 되고 싶어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을 바라보며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승자를 꿈꾸네

2020년 10월

72. • 천기누설 •

연수원 시절 선생님 천기흥도 아니고
하느님은 애기를 가만 안두네
조지아의 에모리인지
연신 말하라 말하라

아는 것이 힘이다는
땅위의 정의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세되어
하늘이 되고 바다가 되네

아는 것이 힘이다
모스 코드는 전장의 생명
움직일 수 있는 힘
왜 하필 랭커 이름은 모스일까
선생들이 잘 하는지
논문은 쓰는지 인기는 있는지
대학은 애들 점수도 넣고 이렇게 저렇게
대학원은 별 다르니 다른 방법으로
친절하게도 자세한 설명을

선생들도 스포츠광
ICC도 아닌 것이 10년 마다 인코텀즈 개정하듯이
박사과정 평가는 빠짐없이 보다 정밀하게
수 많은 모스부호 같은 정보들
모스 부호와 모스는 거세로 부터 힘을
허수아비 같은 세상에 스포츠와 활력을
모스부호 따라 살아 온 시간들
이제는 무불통지가 되어
모스는 모르세가 되어 단단해진 돌 같네

강의실의 선생은
자기 소개 알씨 동영상 같이 되고

연구실의 선생은
우리 법대 연구학위 과정은
소수정예 세계최고라고
지원생들을 꼬드기네

다시 또 교재를 펴들며 모르세는 이제 그만
알자 알자 아는 것이 힘이다
신의칙은 이렇고
최혜국대우는 저렇고
몇 시간을 훌쩍

2020년 10월

73. • 술 익는 마을 •

학교는 작은 우주
우리의 동네 우리의 마을
딘은 우리의 친구
전문가 영혼의 종착점
전문가 양심의 대변인
딘즈 리스트는 석학으로 가득
알라딘 서점의 예스러운 정취는
딘을 알아라 속삭이고
백화만개한 캠퍼스는
학도들로 인산 인해
한쪽 운동장에는 생화학 경제학
다른 쪽 운동장에는
물리학 화학과로 나뉘어
힘과 기를 다투고
걸쭉한 막걸리 파티가 이어지네
노벨상은 노 교수의 자존심
하느님의 축복
저승길의 노자 돈
노벨리스트는 과학과 문명
노년의 주름진 벨 보이
노벨상 저녁은 술 익는 마을이 되고
상 발표를 기다리는 노 교수의 마음은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타는 저녁 놀 같네
저쪽은 40명이 넘었네
이쪽도 30명이 넘었네
누구는 노벨상 받은 학술원 동문 수
대학 동창 수 세고 있고
빈지같은 광란의 밤이 지난 후
축제의 뒤 끝은 뒹구는 쓰레기와
형클어진 머리 뿐
다음 날 캠퍼스 도서관에는 불이 환하고
낮 시간 강의실에는 초롱 초롱한 눈망울

선생들은 캡틴 같은 단을 중심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책으로 실험실로
샤르팡티에는 정성을 다하는 목수
교수 연구실의 우리들
다우드나는 교수 휴게실의 우리들
다우존스 지수처럼
소중하게 자신의 이력서를 바라보네
휴게실 TV에는
세종대왕 전시실 탐방 프로그램
가수 딘딘의 얼굴이 보이고
우리는 한지방 같은 분위기에 빨려드네
딘은 우리의 상투 우리의 동아리
젊은 모습의 딘딘은 빈지와는 거리가 멀고
다시 기초부터 차근히 하자네
동도서기의 자세로 내년을 기약하며
캠퍼스는 술익는 마을
딘딘은 우리의 방파제

2020년 10월



74. • 인섭이와 용섭이 •

동아리가 있었네
작은 사회가 있었네
지우의 이름은 인섭이와 용섭이
인섭이는 왼쪽
우리는 사람이다
흙수저 금수저 평등한 하느님처럼
화합과 이상을 말하고
자신의 성씨처럼
한반도의 후예임을 자부하네
용섭이는 오른쪽
우리는 물건이다
공부하라 채근대는 엄마처럼
경쟁과 발전을 말하네
돈벌고 출세하겠다는
자신의 성씨처럼
섭생은 자유인의 축복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무슨 책을
봉구는 가짜가 되어
만화방으로
천일야사 고금소총 지봉유설을 즐기고
발표를 앞둔 선생은
민주적 시스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네
상원은 사람수도 아니고
대법원은 종신제 상원의원은 6년 짝이나
대법관 상원의원은 물건 같이 용이 되어 버렸고
하원은 민주주의 현실 사람간 정의
2년마다 새로운 피가
세상은 부조리일 수 밖에 없다고
우울한 표정을 짓는 용섭이
어찌 이리 다를까
개혁없이는 좌불안석인 인섭이

용섭이는 오늘도 누군 용이네
 인섭이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반도의 하늘을 날고 있네
 어린 시절 즐거웠던 섭생은
 이제 퀴퀴한 냄새의 서재
 낡은 책으로 가득찬 연구실에 묻히고
 어느새 훌쩍 커버려
 인섭이 용섭이가 되었네
 옛날 섭생하던 업보인가
 샷갓 쓴 김병연이 되어
 어제는 미꾸라지 탕으로
 오늘 점심은 짬밥을 그리며
 옛 대학 구내식당으로
 아침 사극의 병인양요 장면
 서적 재물을 약탈하는 프랑스군은
 아직도 뇌리에 남아
 오후의 힘없는 발길은
 캠퍼스 저쪽 규장각을 향하네
 저녁 TV드라마 앞의 두 사람
 돌부처 같이 굳은 얼굴이 되어
 쫓쫓 혀를 차고 있네
 용섭이 앞에는
 형제 다툼의 비극 앞에
 망연자실한 아버지 장면의
 대하 사극 용의 눈물이
 인섭이 앞에는
 인민재판과 학대받는 지주 장면의
 대하 드라마 토지가
 저녁의 두 사람은 그대로
 우리네 내심이 되고
 우리네 정서가 되네

2020년 10월

75. • 콘센트와 반지 •

이무기 같은 영혼은
이제는 사랑을 찾기 어렵고
우리의 영혼은
가련한 토끼
슬픈 늑대의 울음 소리
세상 고생 혼자 다 하는 말
구박받고 멸시받는 개
전장에 나 뒹구는 호랑이들 머리
실체 없는 하늘
정체불명의 하느님
귀신의 허세
콘센트와 반지는 선현들의 가르침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기품
더 이상의 영혼은 환멸로 남고
천생연분은 어릴적 소설 속 미사여구
하늘이 맺어 줬다는 연인은
일어 선 사람이면 누구나 차는
축구공 같이 되어 버리고
콘센트는 우리의 합의 우리의 사회
다양성과 조화는 한전으로 통합되고
반지는 우리의 경제 우리의 행복
누구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누구는 은반지 하며 웃고 있네
천자도 아닌 것이
어찌 영혼 과잉이 되어
배우였던가
신현준의 목젓도 모르고
지난 세월은 허무와 환멸만이
부시시 눈을 뜬 아침의 생명은
응접실 콘센트 박스 충전이 끝난
모바일 폰을 빼고 있네
짐승의 머리털은 이제 그만

울부짖지 말고 웃어라
세종대왕님은 우리의 성격
전기가 통한다는 여전한 진리
더 이상의 영혼은 이제 환멸
분당 집 근처에는 한전 본사
집 바로 앞에는 박준 미용실
광주 직장 옆에는 한전공대
구내 식당에는
전주 한지 같은
느낌의 한씨 성 동료
전기 의자로 할까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목을 땄까요
창 밖에는 결혼 반지 낀 아내의 슬픈 모습
하늘에는 영정사진 같은 친구들 모습
이게 웬일인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외치다
갑자기 깬 꿈
앞에는 사형제도 컨퍼런스 준비물
수정헌법 8조 잔혹형벌 금지 조항은
자다 흘린 침으로 얼룩지고

2020년 10월

76. • 아가씨와 할머니 •

왜 하필 멋진 최고의
테니스 선수 이름은 아가씨일까
왜 하필 영화 집으로의 주인공은
우리의 할머니일까
옆집 중년의 아줌마는 마담 보봐리인가
부티크 같은 이미지에
말을 부리고 담을 쌓네
피카소의 삼색시대는
우리의 인생 같고
우리의 청년 장년 노년의 시간
우리의 인생은 한잔 술
같이 하는 작은 공간
올리자 젊은 나이들은 룬싸롱 위스키
옆에는 시중 드는 아가씨
앞에는 신기루 같은 오르세 미술관
안정되자 중년의 아저씨들은
중후한 맛의 막걸리
오붓한 시간의 저녁상 진로소주
인생의 정점에서 부티크와
수도원을 왔다 갔다
피곤한 군상들은 너나 할 것없이
집으로 집으로
우리네 집 같은 에버랜드는
사람으로 넘치고
언젠가 직장 상사와 함께 한 모주 한잔
영화속 편안한 할머니로 돌아오고
할머니는 우리의 영생
백색시대의 모델리아니

2020년 10월

77. • 이무기와 용 •

이무기는 아수라
용은 어른들의 허세
이무기는 부아 부아
용은 연극 속 웃음
이무기는 총각 귀신
용은 늙어 가는 노인
이무기는 만물을 다스린다는 저승사자 같고
용은 웃으세요 소리와 함께 찡찡한
가족 영정 사진 같네
이무기는 용이 못되어 자객이 되고
용은 처도 얻고 관직도 얻네
살아 있는 이무기는 거리의 물건
우리의 부아 부아
살아 있는 용은 거리의 연극인
우리의 출세 우리의 허세
이무기는 궁정동의 총구멍
궁정동 장롱은 용의 방패막이
큰 신발은 저승사자가 보낸 이무기
용은 탈을 덮어 쓰고 춤추는 처용이 되고
히틀러는 저승사자가 보낸 이무기
용은 대영제국의 허세가 되어 위기의 처칠로
요트는 시민들의 이무기
용의 남편은 처신을 공격 받고
이무기는 별의 황포 독재자 스탈린
용은 민주주의 우리들의 얘기
이무기는 하늘을 나는 탐견
용은 우리가 만든 하늘
우리는 등용문 앞에서 용이 되려 하고
결혼식장 두 이무기는 용이 되어 안식을 구하네
이무기는 성경속 뱀
몽매한 아담과 이브를 꼬여 용이 되게 하고
아담과 이브는 세상 속 우리들 행복과 불행

천변 만화 같은 이무기
이 세상 모든 물건이 되고
용은 머리를 가누며 하루를 시작하네
용은 경제 우리의 봉사 우리의 직업
교수의 점심은 애들을 구하고 있는 아구찜
회사원의 점심은 화이트 칼라 다운 하얀 설렁탕
건설판 노동자의 점심은 병사 같이 맛있는 짬밥
이무기에 시달린 대통령의 점심은 소탈한 칼국수
서울 법대 나와서 책장사를 하나
한심하다는 표정의 고관대작집
여사님의 한마디에
그만 정신이 번쩍
용이 되려는 교수는 이무기 같은 책을 저리 하고
아구찜 아구찜 외치며 점심을 향하네

2020년 10월

78. • 덧없는 세월 •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네
연습 같이 살아 온 인생
터미널 같은 느낌의 노년이 되어
하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라크를 좋아했었나
어린 소년은 왜 그리 이무기가 많았소
옆 묵직한 인상의 출세한
쿠웨이트를 건드려갔고
다국적군의 심판을 받아 세상을
헤엄치는 유대인같이 되고
지나간 수십년이
하느님의 징계 같이 되어 버렸네
인생은 연습이 되어 버리고
고관대작 명함
삐까 번쩍한 호화 별장
외제 승용차는 먼나라의 현실
뷰로크러시의 횡포에는
이웃처럼 층간 소음에 항의하고
삐까번쩍한 물질에는
빈부격차와 정의를 부르짖네
집 바로 옆에는
머내과학공원과
한림과학기술원
끈질긴 하느님은
노년까지 찾아와
현고학생신위부군
독서백편의자현
거역할 수 없는 팔자를 일깨우네
집안 서재 한켠
일본인 교수가 쓴 민사법 연습
프로스트의 시 가지않은 길이 담긴 시집
정겹게 읽던 낡은 책들이 삐딱하게 꽂혀 있네

그 많은 연습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하늘들
또 다른 연습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무상한 지난 세월이 노년의 나스탈지아로
제단에는 30페이지 넘는 긴 이력서
가짜 쿠웨이트가 되어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네

2020년 10월

79. • 만산홍엽 •

오른 쪽은 속알 머리
왼쪽은 주변머리
주변머리는 우리의 금강산
미와 화합을 향하여
속알머리는 우리의 만물상
힘과 재능을 향하여
하느님이 창조한
금강산의 유훈은 간데 없고
오만 짝퉁 현상만이
왼쪽은 같은 파는 무조건 옳다네
비리 동무는 무조건 같은 처지
법보다 사람도 아니고
누구 말마따나 법보다 주먹이 되어
로고스 법인 변호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법은 정치의 제물로
지향한다는 정의는 간데 없고
역겨운 말들 말들만
오늘의 황희는 더 이상 명 재상이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전위병
사람인지 주먹인지는
사람을 모아야 산다가 되어
선거는 의심받고
여론조사는 불신의 대상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무리수와 피바다 같이 되는구나
오른쪽 짝퉁은 내가 크다 니가 크다
매일 매일 싸움질
오른쪽 특히 긍정혁명
이름도 어찌 하필 긍정동인지
술판은 피바다가 되고
급기야 소장은 참모총장을 희생양 삼네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너희들은 쓰레기다 국민을 멸시하네
삼청교육대는 오만의 상징
광주의 비극은 우리의 아픔
오른쪽 유튜버들간 먹살잡이는 일상사
이그러진 만물상이 되는구나
자기 이름은 홍엽
만산홍엽을 그린다면 이름 자랑
50 대의 반도는 깊어 가는 가을과 함께
만산홍엽이 되고
만물상이 되고
시인은 가슴 머리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인공처럼
마음 가는대로 발길 닿는대로
반도의 사람들이 이리 다를 수 있는지
같이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는
시인과 홍엽의 머리에는 벌써 백발이 성성
가을은 어느새 만산홍엽이 되어
노래처럼 판타지아로

2020년 10월

80. • 빈 배와 스님 •

신씨 자 유티브 선생님
식자우환은
많이 아는 지식인의 걱정이 아니라
잘못 아는 지식인의 걱정이라네
알고 보니 한강물에 코 박고
죽으라는 뜻이구나
잘못 알 수 있는 우리
한 세상 나그네 같은 우리
왜 효봉스님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하지 않았을까
황희 선생님 같았더라면
하늘같이 높고 우주같이
크다는 인간의 생명
사법살인이라는 절규에도
사형제도는
우리네 자존심
우리의 정의
오휘광은 한국의 오스왈드
문세광은 김기춘 자칼의 날
황태성과 이수근은
오늘의 태영호
어제의 황장엽
조봉암은 희생양이 된 조가비
김대두는 한국의 조디악
한강 나룻터에는 나그네와 배
나그네는 배 위의 사람과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네
주고 받던 얘기와 함께
우주 같이 크다는 생명은 보이지 않고
나그네는 스스로 머리털을 자르고
낙화유수처럼 사라지네

오회광 사건의 오판을 파 헤치고
진실을 밝혔다는 인상깊은 기자
식자우환이 무엇이나
한강의 영웅이 되었네

허망한 꿈 같은 허무한 인생 속에
오늘도 한강은
수천년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인양
말없이 흐르고 있네

2020년 10월



81. • 모래성 •

해변가 쌓았다 허물고
다시 쌓고 또 쌓던 모래성
곧 생명을 다하는
모래시계 같이 허무한 시간들
너도 전문가니
책임을 일깨우는 하느님은
뭐 좀 알라고 나를 인도하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간 전쟁
시나트라 닥트린은 분쟁의 씨앗
분쟁 중재를 책임 진
민스크 공동의장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유튜브에 남아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 토론 동영상
대법관 지명을 다투고
헌법을 말하네
그러나 다시 또 허물고
아제르바이잔은 애가 재네
바이 바이 잔인하게 남아 있는 것 같고
아르메니아는
젠 놔은 그냥 둘 수 없다
밀방아간 매니아 같고
거리를 헤집고 다니던 디즈레일리는
히틀러의 황포에 집에서
색칠하는 처질이 되고
옆에는 드실건 뼈 밖에 없다는 드골 장군
아이젠 아워는 큰 아이인지
아이크 아이크 불리면서
유럽에서 재고 있는
장군의 시간 같네
페이퍼 체이스의 킹스필드 같이
우리의 트랙은 언제나

사랑과 영혼은 러브 앤드 쏘울이 아니고
영화 제목 고스트
주제곡 언체인드 멜로디라는
영어를 듣지 못하여
러브 앤드 쏘울 러브 앤드 쏘울 외쳐대는
우리들 앞에서
두 팔을 쫓긋 어깨를 들썩이며
의아해 하는 미국인
영문 논문을 교정해 주겠다
게재율이 높아진다
연신 밀려드는 이메일
미래성은 우리의 운명인지
바벨탑의 혼란인지
노래 속 이스라엘 노예처럼
나라와 주님을 배반한
가혹한 대가로 돌아오네
이스라엘 노예처럼 맛이 간 교수
강의실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엄두가 안나고
연구실의 마음 속 깊은 생각들은
출간되지 못하고 사장되네
미래성과 미래시계는 피를 말리는
우리의 인고와 노력
오래전 드라마 속 가공의 킹스필드 교수는
어느덧 기본 3법 헌민형 법의 역사가 되고
법과 경제 비판법학이 되어
법학 6개 주요 분야로 발전하네
이제는 현실 속 로렌스 트라이브
로렌스 프리드만으로
웨인 라파브 프로써 & 키톤으로
리처드 포스너 김벌 크렌쇼우로 부활하네
미래시계 앞 우리는 맛이 가
국가보다 김앤장을 찾고
미래성 앞 맛이 간 교수는

근로자의 일상으로 복귀하여
다시 또 쌓고 다시 또 허무네
우리는 모래시계 검사
모래시계 건달이 되고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있네
생수 왔어요
주문한 생수가 왔다는 소리에 그만
앞에 놓인 찻잔을 물리치고
사막 오아시스 속 사람처럼
시 같은 생수 한잔을 단숨에
옆 방 하씨 성 교수가
버드란 자신의 이름처럼
새가 되어 날아 갔다는 부고 소식에
바빌론은 베이비 런던이 되고
사할린 하얼빈 사하라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네
사하라 사막을 지날 수 있는
기름이 들어 있다는
쌍봉의 낙타 그림
조용히 카멜 담배를 한개피 피워 무네

2020년 10월

82. • 50대의 조의제문 •

단종도 아니고 의제도 아니고
어찌 이리 일찍 가셨소
60 부근의 나이라지만
남들은 백세를 산다는데
이웃 좋은 친구들을 버리고
험악한 숙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학 시절 어린 왕자 같던
그 모습이 그림소
알레앙스 프란시스를 외치면서
자신은 프랑코포니의 정서를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사하라 사막의 프랑스와가
되어 버렸나
프랑스 본토를 정찰하던
생택쥐 베리가 되어 버렸나
어찌 이리 일찍 가셨소
정답던 그 이름이 그림소
어찌 성은 국씨이고
이름은 상종이었던가
누가 서울 법대 출신 아니랄까봐
상종가의 당신은 법원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패기 넘친 포즈로 볼을 뿌리던 투수였는데
포탈리는 근대 6법으로
우리에게 머리를
랑델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우리에게 케이스를
블랙스톤은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법원칙과 법의 이상을
켈젠과 쉬미트는 게르만의 이성으로
우리에게 결단과 관방사법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했던 벗 지우 국상종
우리는 한문으로 철이 든다

동기 한문철 변호사 이름과 함께 웃었는데
방과 후 같이 했던 영화 로제타 스톤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데
벗은 간데 없고 음악만 귓가에

2020년 10월

83. • 도둑과 주 예수 •

세비어(savior)는 우리의 구세주
민나 도르부데스는 우리의 존재감
컴퓨터의 시작은 도스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동차 이름은 크레도스
주 예수는 알고 있네
최후의 만찬의 진실을
베드로야 너는 날 세번 배반할 것이다
배반자는 세번이나 기도하지 않네
토키 소녀와 박 에스더는 주님의 계획
베드로의 수줍은 얼굴은 주님을 향하고
두 손을 모으고 속죄하네
열심히 세비겠노라고
열심히 용서해 주시라고
베드로는 어느덧 대도 조세형이 되고
한국의 똑똑쟁이 조세형 주필이 되네
영화 도가니의 무지와 폭압은 남의 일인양
노년의 베드로는 빨강 줄 노랑줄
미군 병사같은 티셔츠를 입고
윗 단추를 단정히 한채 신부같은 모습으로
조화되지 않은 창조형 복장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방패 삼아
국제거래법 교재를 앞에 놓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네
아는 것이 힘이다 힘만큼 산다
나 처럼 세비어라 제자들을 독려하면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주일의 교회당에는
죄인들과 용서를 비는 자들로 가득
노래 속 하늘처럼

2020년 10월

84. • 한가위와 시간들 •

노래 물레방아 도는데
영화 속 방앗간의 두 남녀
긴장 속의 워룸
가수 빅뱅
우리의 방에 대한 소박한 개념들
흑백사진 같던 시절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나
칼라가 있는 시대가 되었나
언제부터인지 방방 뜨는 우리들
피씨방 노래방 n번방 박사방
심지어 먹방까지
추석 영화 7번방의 선물
더듬거리는 반말
천진난만한 주인공
어느 나라 외국어인가
연신 예쁘다 예쁘다 프리티 프리티
말 한번 잘못하여 생명이 없어지고
예쁘다는 딸 예승이는
우리의 예의 우리의 승리
똑똑한 변호사가 되어
아빠 영혼을 해방시키네
한가위 우리는 테스형 소크라테스
구금실 독방에서의 질긴 자기 성찰
문답은 끝이 없고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에
이력서 자기소개 동영상으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은 막을 내리고
악법도 법이다 한마디에
철인과 그의 세상은 독배와 함께 막을 내리네
한가위의 밤은 가수 이름 빅뱅처럼
끊임없이 커져 가는 방이 되고
방 중의 방 대방으로

어느 아줌마 말마따나 댕방으로
방방곡곡 TV속 박수치는 우리들 모습처럼
커다란 얼굴의 남성미 넘치는 노년의 가수처럼
다음 선거의 대통령 후보들 처럼
노래속 달밤의 꽃처럼

85. • 후천성 면역 결핍증 •

거지와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친구
가장 자유로운 영혼들
가장 맑은 영혼들
가장 끈질긴 영혼들
배 나온 우리는 병이 되어
후한 사람이 되고
잔인한 사람이 되고
후한 사람은
나 살고 너 살자
제 살고 너 살자
잔인한 사람은
너 구차 나 살자
제 구차 너 살자
거지와 교수는 더 이상
좋은 직업이 아니네
사람들은 피곤한 된장처럼
면역은 잔인한 횡칼처럼
병이나 면역은 세상의 모범이 되고
메디칼의 세상은
더 이상 우리는
생사람이 아니라네
거지를 구박하네
선생을 물리치네
그래 무슨 병이오
면제는 받았소
대통령병도 아니고 직업병도 아닌
면역이 있을 수 없는 생사람
거지와 교수는 연신 생명을 가르치고
생사람이 되어 죽어 가네
어느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처럼
그가 말한 페놉티콘의 감시카메라 아래서

에이즈라 불리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거지와 교수는 나의 영혼 나의 친구
노년의 3 자형이 되었나
어찌 이름은 트리폴리스인지
분당 집 트리폴리스 이름처럼
항상 같이 한다는 노래 속 경찰처럼
조용히 페이스북 소식을 열어 보면서
음악의 시간은 조용히 우리 곁에

2020년 10월

덕이는 경제
우리가 살아 온 지난날들
한국동란 개발국가 시절을 돌아보게 하고
드라마 속 귀덕이와 귀진이는
마치 노동의 진실
성공과 재능의 상징처럼
고두심은 우리들
오른 쪽이 맞나 왼쪽이 맞나
높은 머리가 되네
군수의 양녀가 되어야 한다
대국의 원조를 받아야 한다
미군이 주던 초콜렛
언젠가 먹던 햄 부대찌게
그 시절의 정서를 되살리네
어찌 귀덕이는 빨치산의 양녀일까
어찌 귀진이는 영악한 모리배일까
매스로우의 존경 욕구는
우리의 사치
매스로우의 자아 완성 욕구는
느낄 수 없는 불감증
오만한 우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갈려
이방원의 하여가가 되고
정몽주의 단심가가 되었네
쌀 한톨 우유 한잔 만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른채
사람 한번 느껴 볼 수 없는
파당의 대중들 속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엷혀서 누리자는 귀덕이가 되고
임 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없다는 귀진이가 되네
인덕원을 돌아 과천의 정부청사를 지나고

드라마 덕이
아름다운 음악의 김기덕
한국 경제의 한덕수
마지막 공주 덕혜
파노라마처럼 덕자가 생각나는 아침이 되고
덕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한가위 인사를 꾸벅
타인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한 시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
밥상 앞의 조기는 어찌 나에게까지
기도와 함께 덕이 같이
진이 같이 되어 버린 아침

2020년 9월

87. • 삼손과 데릴라 •

힘이 장사라는 삼손
괴력의 사나이 헤라클래스
이들은 우리의 신화
3 자와 무슨 관련이 있나
아니면 대학 시절 클래스 인가
이들의 얘기는 마치 하느님의 장난인양
이스라엘의 영웅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 버렸네

머리카락과 본다는 것은 힘의 원천
마치 구한말 신사유람단이 그렇듯이
아름다운 데릴라
팔레스타인에 넘어가
머리카락을 잘리게 하고
두 눈을 멀게 하였네

아킬레스 건은 학생들의 불안
장래가 불확실한 아이들을 우울하게 하네
삼손과 데릴라의 비극은 하느님의 플랜
헤라클래스의 아킬레스 건은 하느님의 계시
데릴라는 부활하여
호동왕자 공부시키는 우렁각시
떡을 썰고 있는 한석봉 어머니가 되고
아킬레스 건은 더 배우라는 채찍으로

힘센 3 자 패기 넘치던 젊은이들은
어느덧 직장에서 학교에서
목 젓이 굵어지고
데릴라는 심봉사의 효녀 심청이 처럼
생명의 존재를 알게 하네

아침의 우유 한잔

저녁의 소주 한잔을 권하면서
삼손은 옛날을 그리며
그 손은 폐북의 시로
클래스로 강의실로

2020년 9월

88. • 순장 •

주먹만 하다는 사람의 작은 밥통
돼지는 우리의 우환
사람은 휴식을 그리네

화장실의 서양 말은 레스트 룸
화장실의 동양 말은 해우소
쉬는 곳 걱정 근심을 해소하는 장소
이웃들은 해우소로는 양이 안 차는지
영원한 안식을 희구하고
자살한 대통령 자살한 시장을 그리네

어느 장관 분향소 향내음과 함께
자신들의 인생을 묻네
옛 순장의 정서는 아직도 살아 남아
우리는 한국이라는 정신병동 속 병아리가 되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공동묘지 속 이웃이 되네
연애는 끝이 없고
한국이라는 동굴은 뱀으로 가득

슬픈 연애는 우리를 죽음으로 사의 찬미로
프란시스 레이의 슬픈 음악처럼
영화속 죽음을 앞 둔 제니처럼
하이힐을 신어
옆 친구의 이 말이 뭘 소린가
베르사이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어
사방에 널린 인분을 피해야 하잖아
하하 웃는 우리들

불편한 하이힐과 함께
산 사람들은 푸른 사랑을
연애는 끝이 없고
휴 할 수 있는 방하나 없는 데카당

우리는 민주주의의 행복꾼
착한 동양 사람들
하느님의 복덩어리
레스트 룸 해우소의 영혼들
연애와 순장의 영혼들

2020년 9월

89. • 몽골리아 •

괴물이 되어 버린 아침
카사노바도 아닌 것이
광야를 달리는 징키스칸이 되고
홉즈의 리바이어던을 그리네
나는 1 개다 나는 1 자표다
그 많은 울부짖음과 이바지를 받으면서
S자 형님 삼박자는 꿈을 꾸네
유럽을 호령하던 사상 최대 제국의 수장인양
주권을 상징하는 신비로운 마스코트인양
곳곳에 퍼진 다루가치는 제국의 가치를 퍼트리고
곳곳의 세도가들은
왜소감과 함께
5배나 큰 하느님 칸을 칭송하네
시민들은 자신의 운명을 위탁하네
기황후는 칸의 다른 모습이 되고
공민왕과 노국 공주의 애달픈 사랑은
양재동의 전설로
삼별초의 애국 충혼은
제주도의 전설로
회식 블루스 성희룡 미투 소식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손발
세상을 헤엄치던 몽고의 꿈은
이웃의 카사노바들로 그만 정신이 반짝
몽고는 원래의 이름이 되어
우매한 꿈 먼 시간이 되어 버리고
우리는 이웃의 성화 속에
양재동으로 제주도로

2020년 9월

90. • 비타민 같은 하느님 •

존 에프 케네디는 우리의 정서
우리는 관종으로 공주병으로
케네디는 하느님과의 대화 통로
미시족의 희롱인가
주 예수의 재림인가
TV 미백치약 광고에는
케네디 같은 젊은 미국인이
페북에는 내 마음을 아는 듯한
선별된 소식들이
관종이 되어라
공주병이 되어라 채근대네
남겨진 백로그는 노인을 재촉하고
관종과 공주병은 이제는 사치
오스왈드를 불러내
강의실이나 치우게 할까
아니면 응접실 TV앞
루비가 되어 케네디를 추모할까
데리다의 해체주의 망령은
여전히 아둔한 나의 주위를
미우라는 착한 미국 친구들 같고
일본 공사는 나를 미워하라 웃고 있네
정작 우리는 미운 줄도 모른채
명성황후의 비극은 남의 일 같네
신미양요 박규수는
새색시 같은 박사 참모
갑오경장 김홍집은 큰 집
대학 시절 모아 모아 생맥주 집
정치나 상투는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유추와 희롱은
미시족의 시간들 같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고 되내이면서
지식을 찾던 시절
점수를 찾던 시절
눈물겹던 월급봉투 시절
넥타이 매던 양반 시절
영화 속 병태의 추억 같이 아련히
머리 끄덩이 화투치던 총명함
도서관 방장같던 끈질김은 어디가고
비타민 같은 하느님이 되었나
비타민 같은 미시족이 되었나
착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이름은
멋진 차를 몰고가는 여자
명성왕후의 원혼을 달래듯이
어렵다 미안하다 노래하네

2020년 9월



91. • 먹이 사슬 •

이건 무엇이오
사람이오 축생이오
먹이사슬의 희생양인가
사람이 아니면 왜 이렇게 쓰라린지
강의실이 휴게실보다 낮고
시라도 끄적거리야 사는 것 같으니
축생은 먹이 사슬
진실이라고 다짐하는 고크들
사람은 생존 본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구봉서 선생님 주례장면 코메디 대사
나살고 너죽자 양이 허튼 말이 아니었구나
나살고 너죽자는 일원형 먹이사슬
커져 버린 머리는 제살고 너죽자가 되고
우리는 복잡한 먹이사슬 속 처량한 사람들
나미 노래 빙글빙글처럼 돌고 있네
도라 도라 작전의 가미가제처럼 산화하네
제는 아니고 나는 사이드가 아니다는 제노사이드
나 혼자 비용 다 대서라도 살아 남겠다는 홀로코스트
웃자고 하던 옆 친구 말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먹이사슬의 희생양은
여전히 핵 핵 하는 누구처럼 되고
핵폭발 후 남는 것은 푸른 지구와 빈 건물들만
피바다 극장 같이 덩그러니
사람들은 언젠가 서진 룬싸롱
잔인한 고크들처럼 시체가 되어 나 뒹글고
가현 엄마 외치는 이웃 소리와 함께
아내와 딸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의 통로인양
다시 세상이 나타나고
정신이 번쩍 든 아침의 축생
꿀잠 자는 축생은 내 뒹이 아니네
유니세프 광고 아프리카의 기아처럼

내시 같은 노인처럼
못에 박힌 주 예수처럼
피곤한 몸을 일으키네
죄 짓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시나브로 하루의 일상이 교향곡 운명 같이
주 예수 앞의 우리는 패권 로마 병정
제국과 정치의 화신

2020년 9월

92. • 튀니지아 •

체육을 잘 하는 이
성공한 정치인
누구나 아는 TV 속 연예인
튀는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
튀니지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최강대국 대법관들
우국충정 똑똑새 우리들 폐친 같네
아는게 많은 이웃은 튀니지 튀니지아
지식의 고고학은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고
스칼리아 대법관은 튀니지의 정서
딸 옆 등글 등글 동안에
왼쪽 광대뼈가 튀어 나온 사진 속 50대
몇년 전 작고한 대학 시절
민법 선생님을 닮았네
지팡이를 짚고 무서운 얼굴로
내 강의 안 들으면 검판사
못된다고 호령하던 패권 교수
586 법학을 한다는 사람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제는 검판사 뽑자며 모였던
합숙 기억만 오롯이
하느님은 개구쟁이
이번엔 다른 사진 속
50대를 들이미네
웃고 있는 아내와 장모 옆에
칠성 사이다 같이 하얀 얼굴을 하고
버드나무 같이 서있네
일하라 가르쳐라
교재로 사용하는 국제거래법
저자 선생님처럼
튀니지 튀니지아 같던 어린 시절
이제는 강의실의 월급쟁이

컴퓨터 고치러 왔어요
옆 가게 컴퓨터 사장님의 목소리
멀고도 멀었구나
깨져 버린 튀니지의 정서
그런데 몇 킬로나 왔을까
지중해풍의 신비로움
올리브 잎 같던 튀니지의 정서는
이미 눈 덮힌 킬리만자로로
종로서점 교보문고 추억은 아련하고
광화문연가를 뒤로한채
일어나 돌아 본 응접실 서재 한켠
빛 바랜 출판사 사장님의 새해 인사장
가을 추수 겨울을 향하는 우리들
인생의 무상함과 함께 또 한 해가 저무네

2020년 9월

93. • 코로나의 휴일 •

코로나의 일상은 하느님을 찾고 있네
빠듯한 하느님 잔인한 하느님
손님 없는 가게 사장님 얼굴에 주름이 가득
하느님은 복고풍
우리에게 검약과 충성을 강요하네
다다이즘도 아니고 풍요로움은 파괴의 대상
집안에 돈도 없다
특별한 재주도 없다
얼굴이 잘 생긴 것도 아니다
주변머리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살래
대학 시절 걱정해 주던 친구와 웃던 우리들
이제는 어른이 되어 관보가 되고 학보가 되었네
인생의 무덤이라는 결혼도 하고
아이들에 둘러싸여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 같은 일상을 즐기고 있네
그러나 이웃들의 절박함은 사느냐 죽느냐
오른쪽은 크리스티 경매소 같고
왼쪽은 새벽 어시장 같이 시끌법적
주말의 교회는 크리스도를 그리는 사람들로
하느님은 복고풍
어쩌다 보수쪽이 되어
카톨릭과 노틀담의 향수로
이웃 나라 대법관 임명 소식은 나를 일깨우고
성당의 신부같은 엄정한 이미지를 느끼며
학점을 잘 따려는 학생들
변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마냥
시나브로 일상은 자세를 바로 하네
파괴와 생존을 시험하는 듯한
푸른 지구 감사한 하느님
오른쪽이 되었다 왼쪽이 되었다
우리를 희롱하네

우리는 희생양
부활을 간구하는 주일의 하루
새로운 한주는 노래처럼 카운트다운에

2020년 9월

94. • 마스크와 사람 •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제자
열심히 공부한 졸업식장의 제자들
선생님들을 기쁘게 하네
옛 학교 도서관의 책 속에 파묻힌 수험생들
긴 숨과 함께 1 시간을 10 시간을
시간을 끊어 피던 담배 한모금의 해방감
생과 사의 전장에서 숨 죽이며 피던 화랑 담배
누가 물 속에 오래 있나 장난하던 옛 친구들
토마소 알비노니 음악과 같던 시간들
숨은 우리의 주제가 되고
마스크는 이제 사람이라는 징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네
세상은 자연히 책읽는 학생
화랑담배 군인들 같은 기품으로
짐승 같이 매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들
마치 살인자 범죄인들처럼 마스크를 쓴채
숨을 죽여야 하는 우리
하느님은 왜 이러실까
의사능력은 곧 범죄능력이라는 형법 선생
사람은 분별력 사람은 교양 사람은 기품
짐승보다는 살인귀가 사람 같다는 하느님
니가 짐승과 뭐가 달라
짐승 고기라도 먹고 살라면
마스크 쓰고 참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하느님
마스크는 이제 사람의 징표
우한 저편 허름한 시장의 짐승들
주 예수 같은 희생양이 되었구나
제자들의 환한 얼굴에 숨겨진 숨 죽이던 시간들
그 옆의 우리도 서울 횡집 사장님도 학생과 군인처럼
사람의 기품과 인지는 또 한 시대를 건너네
마스크를 안써 방역처분하였다는 북한군

우리가 학생이나 군인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정권의 시민 길들이기라는 사람들
이제 사람과 짐승이라는 보건 문제를 넘어
디서플린과 제도 질서를 둘러싼
사람간 갈등으로
이 때 할리우드 영화
엔딩 씬처럼 걸려오는 전화
김 교수님 형사모의재판 학생들
지도 좀 해주세요
전화의 형법 교수 이름은
왜 하필 종구인지
사람과 짐승 구별하라는 이름 같네
나를 우한의 짐승들로 의심할지 모른다
BTS같이 세계적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
시험대에 든 것 같은 기분과 함께
학생들에게 이걸 이렇고 저걸 저렇고
마스크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네

2020년 9월

95. • 나의 명예를 메고 •

연구실 서재 한켠의 무기수 수기집
나의 명예를 메고
작은 연구실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교수
전문분야에 매몰되어
사계의 권위를 향하는 사람들
어찌 그리 무기수와 딱 맞는 처지일까
동병상련의 주말 오후
무지의 한계를 개척하는 희열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
서해상에서 불태워진 외로운 고향같네
그 넓은 바다에서 어찌 그 먼 거리를
놀라운 바다 사람인가
책 속에 파 묻힌 연구원인가
하느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력
방역규정 때문에 사살을?
원칙법과 예외법을 가르치면서 아연실색
이건 무슨 원칙이고 무슨 예외인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도살처분도 아니고
물건의 특성과 멸실위험의 이전 같은 책임문제?
피살자 특정 후 6시간이나
정부의 늑장 대응에 시민은 치를 떠네
마치 우리들의 운명인양
무기수 같은 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나마 외쳐온 인권은
남북 대치 속에 사장되어 버리고
바다위에서 물건 취급을 받아 버렸네
아침의 인력시장에는
노동력을 팔려는 사람들로 시끌법적
취업 면접 대기실에는
잘 가꾼 상품 같이 보이려는 응시생들
서비스무역협정은
상품무역협정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누누이 가르치면서도
정작 사람은 무엇이고 물건은 무엇인지
이런 일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동란을 배경으로 노동자의 척박한 삶을 그린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인간에 대한 비애감과 함께
영화의 주제 음악 러브 아이디어가
애절하게 흐르네

2020년 9월

96. • 시인과 농부 •

언젠가 노무현인가 일터의 하루
도라무통 같이 굴러가는 나인 투 식스 사람들
죽은 시인의 사회같은 침묵
시인은 새 같이 하늘을 날고 싶고
이상의 날개 짓을 그리네
시인이 되버린 것 같다고 하니
시작도 새만금 사업 같이 쉽지 않다네 하는 친구
그러나 그저 마음 가는대로 발길 닿는대로
시내를 돌아 분당의 집으로
동대문 밀리오레는 포스트 워 전시물인지
밀리타리가 아니고 밀리오레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정치의 상징 우리 노무의 현현
워릭의 향수는 옛 전쟁의 정서를 기품있게 품어내네
동대문 경기장은 예술적 조형물이 되어
대학 선생이 되겠다는 연구과정 학생들의
창조성을 상징하고
동대문 을 지인의 당협 사무실을 지나
한참을 오니 대왕판교로 밀워키 자동공구 간판
고속도로 옆 위아위스 기흥파크 본사 간판을 지나니
위례 A3-3a 아파트 분양이라는 광고가
오후의 자동차 산책은 옛 기억들을 되살리네
우리 노동과 기업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네
미시족의 희롱인지
주 예수가 재림한 듯한 저녁 시내 드라이브
언젠가 동숭동 대학가 뮤지컬 같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된듯한 신비로움
옛 동숭동 서점에는 주폐의 시인과 농부의 선율이
집에서 켜 유튜브에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2020년 9월

97. • 노년의 김씨 •

레빈 스트라우스의 구조주의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안소니 기든스의 제3의 길
우리 주제를 일깨우는 정신세계 선생님들
불씨는 데카당에서 교양과 세계시민으로
영씨는 존엄한 고독에서 주체적 사회인으로
한씨는 해학과 함께 생사람으로 빈대로
하느님의 여유인지 해체주의의 망령인지
정치는 간데 없고 노년의 김씨는 돌을 굴리고 있네
나이프 노래 가수 이름처럼
가수 나미는 나는 미국이 되고
영어강사 타일러는 콩글리시를 타이르는 친절한 선생 같고
서장훈은 큰 키로 훈장받는 이웃처럼 다가오고
개그맨 강섬범은 무대위 포효하는 호랑이 같네
그러나 문재앙과 달빛기사단은 여전히 우리 정치
문리버 영화의 주제가는 낭만으로 갈등으로
이그 노벨상감의 한국정치 한국사회
블릿 프루프(bullet-proof)도 아니고 방탄소년단은 BTS가 되어
한국과 세종대왕의 위상을 전세계 만방에
어느 웃고 있는 대마왕처럼
위대한 생사람으로 위대한 세계적 빈대로

2020년 9월

98. • 까발리에 •

알아 주네 알아 주네
관종도 아닌 것이
무슨 그래 인정을 받고 싶을까
하회탈을 쓴 처용은
우리의 연극 우리의 그릇
피카디리 써커스
추적자 파파라치는 서양의 개혼
까발리에(Cavalier)는 서양의 기사도
동양 사람들은 그만 까발려라로 들리네
그러나 나미는 보이네를 노래하고
주페의 경비병 서곡은 여전하네
에보니 아이보리 노래처럼
캠퍼스와 책을 왔다 갔다할 뿐
명함도 못 내미는 생사람은
이력서 한줄 소개동영상 하나 못 만든채
세계지도 관광사진
큰 캠퍼스 그림과 함께
아침의 고향이 되고
라운드헤즈(Roundheads)가 되고
평화로운 세상
생명의 축복을 그리네
생사람의 하루는 시나브로
세상 속으로 피곤한 일상으로
소독하러 왔어요
캠퍼스 그림 속 천사 같은
보건소 여직원 소리와 함께
우리의 데카당은 저 멀리
그만 세탁기에 처박힌 세탁물처럼 되고
오래된 연극인의 습벽이 되살아 나면서
출근을 서두르고 있네
아내가 다려논 하얀 와이셔츠
하회탈 같은 샤넬 향수를 찾고 있네

학교 가는 아이처럼
군 점호를 받는 병사처럼

2020년 9월

99. • 시간과 달팽이 •

시간이 되었네 시간이 되었네
함께 한 화합과 행복한 시간들
이제는 시금치 같이 되어 버린 피곤한 육신만
지구촌 가족들은 뿔뿔히 흩어지고
도시의 달팽이는 이제 그만
세상 어느 구석인가
대마왕 같이 되어 버린 우리
시간이 되었네 시간이 되었네
누구나 이별을 누구나 이별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단말마 같은 비명 소리와 함께
극락강을 건너고 있는 우리들
아직도 우매한 군상들은 뭐가 아니어서 죽는지 의아해 하고
시간의 정의는 어김없는 하느님
대마왕의 종말은 하느님의 플랜
할리우드 좀비 영화 엔딩 장면
낄낄 웃는 악마는 우리네 자화상 우리네 대마왕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간사한 하느님의 섭리
그러나 영생을 외치는 미련한 영혼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를 되내이는 질긴 인생들
대마왕의 주제 속에 간사한 하느님을 알기 시작하네
타성에 젖어드네 환락에 끌리네
질긴 인생 대마왕은 몽고메리 드골을 넘어
아이젠아워로 고선지(Gao Xiahnzi)장군으로
평화의 상징이나 된다는 듯이
동서양 다국적군 총사령관인양
밤의 환락가를 헤매이네
그러나 시간은 다시 또 아포칼립스 에게해의 정서로
별이 빛나는 밤에 시그널 뮤직과 함께
스타벅스의 망고 바나나 주스를 앞에 두고
간사한 하느님의 놀이감인지도 모른채

2020년 9월

100. • 쓰디 쓴 사랑 •

까진 놈은 연애질
의인들은 연애의 정의인지
내로남불은 우리의 일상어
사랑과 영혼의 언체인드 멜로디는 한 때의 유희인가
이제는 쓸쓸한 노년만이
하느님은 불한당
연애로 세상을 쓸어 버리겠다는 듯이
까진 놈은 정치가
힘든 일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힘에 부치는 노인과
공부해라 채근대는 엄마의 소년은
이 징표 저 징표로
이 책으로 저 책으로 분주한 아침
손바닥만한 응접실 한켠 제주도 돌 하루방
우리 부부들의 인생 징표
그래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라고 묻던 옛 시절 개그맨
그래 얼마나 출세했소라고 묻는 이웃 친구들
제주도 놀러가기가 두려운 우리들
책이 징표가 되어 버린 출세 못한 인생살이
인생은 일장춘몽 속에 오후를 향하고 있네
사랑은 이제 그만이라는 철 든 가수의 노래처럼
세상 한켠 자기를 즐기는 오붓한 시간의 대 마왕
쓰디 쓴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

2020년 9월 우거에서



101. • 영혼과 육체 •

영혼은 음의 세계 우리의 쓰일
육체는 양의 세계 우리의 업적
영혼은 우리의 생활 삶의 진실
육체는 우리의 존재 과학의 진실
영혼은 어머니로
육체는 아버지로
영혼은 죽어 하늘에 있는 선생님
육체는 땅에 남은 개나 소
개천절도 아니고 왜 그 선생은 하늘에 박혀 있나
도저히 못 살것 같다 싶어 저리가 했더니
되돌아 오는 소리는 반말하지마 임마
개씨가 떴다 소리치던 알개 시절
고삐리 시절 기울반 수학선생은 개씨로 해학으로
영어하는 이웃에게 반말하지마 하면서 웃던 시절
광주의 산수동은 음양오행설, 동양의 정의, 몽계구름같은 이무기
기생충과 서민은 우리의 과학, 서양의 정의, 진리라는 이무기
서양 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엄마
동양 개는 우리의 그릇 우리의 아빠
칼뱅의 교훈은 물질과 기생충으로 봉 감독으로
도가의 교훈은 끈질긴 생명으로
엄마를 외치며 죽어가는 전장의 영혼들
아빠의 자애로움 속에 잠시 머무는 이 세상
개천절 앞에서 끝까지 하늘은 개라고 우기는 친구들
소말리아의 정서는 마라톤의 비극을 잉태한 채
소로 말로 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퇴폐 우리의 타락 우리의 데카당
영화 기생충 지하실의 기생충 같은 우리
영화 말아톤의 비극적 장애아 같은 우리
상품 같이 팔려가는 우리
새로 출시된 자동차 쇼 걸 같은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인지 목포의 눈물인지
실업문제는 여전히

개나 소의 피곤한 하루는 계속되고
피곤한 군상들은 희생양 주 예수를 노래하네
꺾가에는 엠프티 핸드스(empty hands)라는 서양 노래 가사
강의를 앞 둔 로빈슨 교수의 주제를 일깨우네
시나 그림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노래 속 빈센트 반 고흐는 우리의 자화상

2020년 9월 우거에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짜증같이 들려 오는 하느님 소리
인터넷의 웨이크 디플로마인가
작은 모형 캠퍼스를 사 가라는 놀이공원의 영국 상인인가
시간 때우는 파파라치인가
피라미드의 파라오인가
하느님은 케기 하느님은 케네디
하느님은 영혼의 올림
갈증으로 우리를 일깨우네
먼 곳의 일상이 변방 작은 나라에서는 꿈으로 갈증으로
언젠가 함께한 이국적 풍경의 진해 벚꽃 놀이
신나게 들던 벗님네 음악들
벗들은 우리에게 음료수
벗들은 우리에게 한잔 술
벗 기영이는 우와형 대미소다
벗 승화는 대중형 코카콜라
벗 인호는 전진형 환타
벗 종균이는 권력형 오란씨
벗 동원이는 밥 돌형 애플주스
벗 기창이는 위스키와 진로 소주
벗 도기는 경주 법주 일본식 사케
벗 우현이는 지평 막걸리
신씨 변호사 선배님은 우리 학번 읍저버
화이트칼라형 사이다
뉴 하브의 고씨성 법학자님은 건강형 생수 하늘보리
벗 태웅이는 하와이 남생이형 키위 주스
이들은 우리를 꿈과 갈증에서 해방시켜 일상으로 일상으로
교수 한명 없어도 세상은 그대로라는
하느님의 슬픈 속
찰나같은 인생
광수 생각의 오후로
미시족 따라 공부로 포카리 스위트로

커피 한잔을 앞에 둔 벗 광수의 서강대 연구실
우리 모두의 자화상 같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제 그만
물건 따라 삼천리도 이제 그만
현고학생 신위부군일 망정
이제 그만 어른이 되라네
이제 그만 머리를 올리라네
당뇨병의 옛 이름이 소갈증이라는 소리에
그만 허탈한 웃음만이

2020년 우거에서

103. • 생명의 추억 •

그 많은 나날들
대학 동기들이 보내 오는 유튜브는
파노라마 같은 지난 날로 나를 인도하네
오하이오 주는 세계로 열린 미국의 정서
수십년전 레빗(Theodore Levitt)은 오하이오에서 매사추세츠로
그가 주창한 세계화는 광주 법대 한켠 포스터에
유명인사들의 강연장 테드(TED)라는 이름에
살포시 스며 있네
밭은 지역에 이상은 세계로
포스터 속 점프하는 대학생은 세계 시민
강의실 연구실의 선생들은 세계 대통령
점심을 향하는 시간들
생명들의 섭생
마루구스도 아니고 모두 허위의식인가
뇌리에는 들렸던 음식점 뿐
큰 이벤트를 준비하려나
예술의 전당 앞 매드 포 갈릭
우와형 세계 대통령이 사랑하네
맛갈진 수육 한접시 처음처럼의 감미옥
소박형 정갈형 세계 대통령이 좋아하네
고사리형 세계 대통령은
꼭지네 생선 조림속 잘 씹히는 고사리로
밥 한 그릇을 똑딱
선생들은 암사해물탕으로
월선네와 청진동 해장국은 월급쟁이들의 애환
진시황 같은 황제나 왕이 즐긴다는 시
세조나 진시황의 형님이 되어 버린 나이
백발은 늘어가고 생명의 추억만이

2020년 9월 우거에서

104. • 점심 한끼 인생 살이 •

천지 창조의 먼 옛날
어둠과 빛 만이 있던 시절
영화 백색 공포
노래 에보니 아이보리 같던 시절
인간은 징표로
축생은 생존으로
저 징표는 무엇일까
문자 징표인가 숫자 징표인가
그림 징표가 된 우리들
원숭이 갖기도 하고 네발이 아닌 두발이네
나지막이 들려 오는 소리들
짐승 소리인가 사람 소리인가
뺏긴 짐승이면 호랑이
뺏긴 사람이면 식인종
주인은 공주병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양
갈데 없는 주인은
저승사자 같은 소리와 함께
침대 위에서 나 뒹굴고
일상의 아침 시간이 흐르면서
짐승 소리는 체육 선생님 소리로
사람 소리는 선각자들 소리로
양지탕의 점심 한끼
로마의 휴일같은 하루

2020년 우거에서

105. • 고양이와 호랑이 •

노년은 노르웨이의 백야
스웨덴의 노을 나스탈지아
고양이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네
소나타도 포르쎌도 모두 사치일 뿐
하이델 버그 철학자 다리 위를 왔다 갔다
긴스버그 할머니 죽음을 애도하며 인생의 허무함만
노래 동영상 국화 이미지의 대법관
코스모스 같은 인생 여정
그녀의 위대한 족적들은 노년의 그림자
길게 길게 가업에 맞춰온 우리네 청장년 시절
하느님의 작살을 피하려 하는가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아내는 남편이 되고 남편은 아내가 되네
여장 보이 조지
남장 레이디 가가
양성의 사방지
콧수염 근육질 퀸 그룹까지
옆방 지영이라는 이름의 남자 교수
왜 또 성은 하필 한씨일까
묘한 웃음을 짓고 있네
남국의 야자수 아래 타잔 같은 자연생활
그러나 길고 긴 우리의 얘기는 긴스버그나 사방지가
철학자 다리나 산책이
긴스버그는 법률사무소 안 율사들의 속내
책상 위에 놓인 80 페이지 장문의 변론요지서

2020년 우거에서

106. • 하느님은 불한당 •

하느님은 불한당
힉스의 빅뱅인가
요세프 멩겔레의 생화학 실험실인가
육신과 내장을 가만 두지 않네
까진 사람들은 연애질 세상으로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이 징표 저 징표로
끈질긴 생명들은 면벽 도사 달마 대사
윗 층의 생명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면벽 도사 달마 대사는 시간과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우리의 기품
하느님은 불한당
버림 받은 우리네 작은 양심
그러나 사랑과 희생은 우리의 영원한 삶
주 예수상은 주말의 우리들
법정 스님의 설법 테이프는 우리의 자장가

2020년 우거에서

107. • 주말은 시간 여행 •

갑돌이는 역사 매니아
을남은 전쟁 매니아
병녀는 정치 매니아
망한 정읍 만석꾼 유전자인가
맛따라 멋따라 살아 온 인생
효자촌에서 복분자를 시켜 놓고
갑돌이의 휴일은 시간 속으로 시간 속으로
옆방 교수였던 조상제님은 간데 없고
조상의 제인가 조 교수의 유훈인가
우리법 연구회에는 율사들이 가득
조상을 찾자인지
신식 학교에서 배운건 저 끄트머리에
주체사상 사극 드라마 같은 우리의 엘리트들
개미 같던 지난 시절은 적폐가 되고
커져 버린 한국인들
미래와 운명만이 덩그러니
사극은 타임 머신
시무 7조는 시간 비타민
천민들이 춤추는 나라는 조씨 사림 우리의 진보
박원종과 홍경주는 대작 훈구 우리의 보수
찬란한 개혁 의지는 두 사발의 독약과 함께
이성적 검사인가 대통령의 검사인가
대운 같은 모 검사
국민만 바라보고 소처럼 가겠다고 열렬 검사
소운 같은 모 검사
대운과 소운은 정치가들의 보호막 정치가들의 외숙
왕이 되겠다고 자들은 낙마할까 노심초사
주말의 점심 테이블은 방향을 틀어 미래로 미래로
인종은 누구일까 명종은 누구일까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 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너는 누구냐
지상의 나는 생명의 행복 주말의 여왕

저녁 과일접시 위 메롱처럼 혀를 내민 자화상만이

2020년 우거에서

108. • 사이보그의 아침 •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향수에 젖게 하네
옛날을 그리는 우리들
경제는 어려워지고
앞으로 서비스는 모두 로봇트가?

국가가 우릴 먹여 살릴 것이라고?
제조업도 아니고 허탈한 웃음만이
로봇트가 진행하는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SCIgen 학술논문 자동 제작 사이트 앞에서
Ig Nobel Prize의 해학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수가 무엇인지

두 학기째 사이보그 경험은
옛 향수를 자극하네
샤 롯데 버지니아 공항 사장이 되었다는 월덴 동기
우리의 중산층은 현대와 삼성을 넘어
롯데로 안정환으로

대빵 달고나인가 단 눈깔 사탕인가
상생방송에 내 걸린 큰 단군조선 그림
우리의 시조 중국의 시조 우리의 자부심
폐친 백수인은 하얀 죄수
폐친 백수인은 실업자의 친구
조선 이름의 하얀 캠퍼스에서
시와 함께 40년의 세월이

오른쪽 빌씨 컴퓨터 재벌 아버지는
사람이 되라는 울사
왼쪽 마루구스 아버지도
사람이 되라는 울사
법이 다른지 사람이 다른지 갈등은 여전히

우리네 재벌 아버지는 10월의 어느 멋진날 테너 같고
하얀 캠퍼스 롯데 시절은 사람 내음으로 가득
사이보그의 아침은 시나브로 일상으로

2020년 9월 우거에서

109. • 농사꾼과 선생님 •

농사꾼은 선생님
선생님은 농사꾼
농자는 천하지 대본
전원일기의 응삼이 일용이는 우리의 똑똑쟁이
아들과 딸의 최수종은 우리의 이상형
수능을 앞 둔 아이들
경쟁에 내 몰린 직장인들
더 배워 보겠다는 사람들
한결 같이 최수종을 되네이네
첫눈이 내릴 쫄의 우리네 정서
금수저는 고액과외
흙수저는 한숨 짓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의 농사꾼 일
그러나 우리의 금강산은 정치로 경제로
소박 이미지 백일섭은 우리네 아버지 우리네 카리스마
언젠가 본 효철이를 닮았네
조용한 반도의 하루를 느끼게 하네
동네 눈 밭 앞에 선 전원일기 김희장과 하희라
독수리 5형제인가 세계 교수협의회 회장인가
그들의 얼굴엔 주름살이 가득

2020년 9월 우거에서

110. • 커피 한잔의 하루 •

하느님은 심술쟁이
아침부터 도 닦는 우리들을 흔드네
달마 대사나 서울의 달은 하느님의 적
마치 가라앉은 우리들을 비웃듯이
마치 아쉬워야 새로운 생명이라는 듯이
옆에서 기도하는 이웃
주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손을 모으네
그러나 세상을 끌고 가겠다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하여 하늘을 거스르네
자신들의 정의와 이상은 흔들릴 수 없다는 듯이
거창한 징표에도, 소박한 카리스마에도 아쉬움이 없다네
오만한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애환
우리의 터전은 하느님이 만들어낸 생명과 세상의 절묘한 조합
흑치상지의 수고로움은 저 켄에
아침의 생명은 금세 성인이 되어
남쪽은 최백호의 정서로
북쪽은 백두혈통의 정서로
언젠가 태릉 옛 다방의 쓴 커피 한잔

2020년 9월 우거에서

111. • 찰나같은 세상 •

아무 이유 없이 뒤척이는 밤이 지나고
맛이 간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네
강의 동영상 핀 마이크를 쬐는 손에 피곤이 역력하고
잠시 틀어 본 음악에는 스모키의 노래가
황성옛터의 서양 버전인가
루이로 팩스 브리타니카로
상제리제 거리는 팩스 아메리카와 옛 영화만이
대학자라는 푸코 부르디외는
가짜 세계 속 세계 대통령에 불과하고
대학생 동정남은 낮이 없네
새해를 맞이 하기 위하여
꼬박 밤을 새우려는 일출 관광객인가
밤을 즐기는 야타족인가
휘황찬 네온 사인 속 시끄러운 사람들
루이스를 그리는 젊은이는 힘없이 하루를 시작하네
언젠가는 꼭 달 밤에 만나겠다는 다짐을 되내이면서
미식 축구 쿼터 백인가 달 밤 아래 장 클라우드인가
동전 한 잎을 꼭 쥐고 세상에 남아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

2020년 9월 우거에서

112. • 기울어진 운동장 •

이웃들이 살기 싫어 하네
고발자는 범인이고 양심은 다수에 묻혀 있네
사람들은 정치네 아카데미네 머리 찾기 바쁘고
김씨 자 지형이는 원자력, 원자바오
개발이나 환경이나 저울질 하고 있네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
어디간들 머리가 가능할까
송파 세모녀 원혼은 개발 쪽 지형이
산 불로 타 죽은 원혼은 환경 쪽 지형이
가우디와 바우 하우스는 멀어지고
기울어진 운동장만 덩그러니
아카데미는 세계 대통령
옆집 이웃이 우와형 세계 대통령이라고 놀리네
헌팅턴 후쿠야마 아마르는 학교에서 인상 짓고
로버츠와 아브람손은 법원에서 인상 짓네
그럼 소박형 정갈형 세계 대통령
언젠가 은사님은 미국 대통령보다 높다네
그럼 고사리형 세계 대통령
사람들은 밥상머리 앞
머리 찾으랴 진지 찾으랴 하루가 피곤하네
정치나 아카데미, 가짜 속의 우리들
진짜 정치는 어디 갔는지
이민 간들 나아질까

2020년 9월 13일 우거에서

113. • 출애굽기 •

 캠퍼스 그림은 마치 학보 같고,
 언론인들은 사나운 남생이 같네
 유튜브 소개 동영상은 사막의 피라미드,
 피라미드 속 파라오
 피라미와 올챙이는 내가 낫다고 아우성이네
 사람들은 오아시스에서 목을 축이고,
 사람 삼킨 바다는 말 없이 조용하네
 이집트의 정서는 우리네 가족들
 살아 남아 광 팔아 보겠다는 정치인, 에햄 관료들
 바보라는 놀림에도 하염없이 돌리는구나
 옆 동네 학예회 아이들은 상 받고 짜지는지 알 수 없는 웃음만
 큰 부자들은 희생양 될까 봐 좌불안석이구나
 도 닦는 판관들은 생색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연극 찾기 바쁠테고
 사람들은 병으로 생계로 울상 짓네
 드라마 야인 시대 같은 이 세상
 플라톤의 철학자 군주는 꿈에서나

 2020년 9월 어느날 아침 우거에서



김 기영 시인 이력

학력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2017-2020)
미국 미네아폴리스 월든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 및 행정학 박사 (2012-2018)
프랑스 파리학술원 외교전략연구소 (그랑제콜)
국제관계 및 외교학박사 (2000-2003)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과학박사 (1994-1995)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 (1993-1994)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과정 수료 (1992-1993)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diplome (1985-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1-1985)

경력

사법시험 7위 합격 (1983)
행정고시 7위 합격 (1984)
외무고시 8위 합격 (1986)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1991/임관 서열 1위)
대한민국 변호사회 변호사 (1987)
미 뉴욕주 변호사회 변호사 (1997)
미 연방 제 9 항소법원 변호사회 (2015)
헌법학회 이사
법이론 실천학회 이사
사법시험 위원
법과대학 교수평의회 대표
대외협력처 자문위원
전남 수자원관리 위원
지방고시 면접위원
법학논총 등 다수 저널 심사위원
[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구논문 및 저서

○ 저서

- [헌법강의], 박영사. 2000
[헌법학], 박영사. 2000
[국제거래법사례연습],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로스쿨가이드북], 솔트웍스, 2007
[미국법강독].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9
[A Rout of Experience in the Qualitative Method:
Tackles and Reflections],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2017
[Piece to Text on the Monument and One:
Letters with the International Body
Managers], Createspapce Independent Publishing. 2018

○ 연구논문

-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대한민국과 EU간의 통상분쟁에 관한
WTO 결정, 인권과 정의 제 350호. 2005
국제통상질서상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에 관한 소론, 법조 제 589집. 2005
국제통상에서의 법치주의: 세계무역기구 (WTO) 항소기구의 몇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 357호. 2006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개혁: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조 제 599집. 2006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규범체계와 문제점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법연구 16호 1권. 2007
버드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의의와 시사점, 법조 제 610집. 2007
국제통상법의 발전과 헌법국가의 전형: 미합중국
헌법원칙과 법제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4권 2호. 2007
국제정치와 법철학: 헌법과 국제법의 접점에서, 유럽헌법연구 제 5호. 2009
사법의 통일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인권과 정의 제407호. 2011
국제통상법에 있어 세계적 정의의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6권 2호, 2011

사법관임용제도에 관한 소고-차선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식 사법관제도를
제안하며, 법학논총 29호 3호. 2017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법학논총 24권 3호. 2017

그외 국제학술지 논문 다수